

August 2013

Monthly

Gardenin

가든인

SALE COUPON!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 할인권



Garden Plan

잔인한 8월
이달의 정원관리



Season Item

글라디올러스



Season Item

정원속 작은생명체
다육식물 하월시아



Monthly Gardening

- ✓ 장마 후 정원 관리
- ✓ 병해충 관리
- ✓ 잡초 및 잔디 관리



CHECK LIST

8월은 김장을 준비하는 달
김장채소 파종 · 육묘 · 정식

ISSN 2288-1719



0.8 >

10,000원

HOW TO GROW YOUR GARDEN

정원시공, 관리, 컨설팅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은 우리나라 고급 경관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자연과 가깝게 아름답고, 쾌적한 고품질의 경관으로 창출합니다.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단조로운 베란다, 쓸모없는 옥상이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유럽풍 키친정원으로, 내 아이의 생태 놀이터로 재탄생됩니다.
피곤한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정원의 품격

잘 가꾼 정원은 주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정원의 주제와 식물소재는 적당한지,
내 정원환경은 어떤지, 정원 소품 디스플레이 등 현재 정원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꽃의 식물들은 정원의 품격을 차별화 시킵니다.

시공사례



까칠하고 도도한 花

절굿대(에키놉스, Echinops)



까칠하고 도도함, 그러나 그 속내는 부드러운 꽃. 절굿대 에키놉스(Echinops)는 다년생의 국화과 식물로 전 세계에 약 120여종이 있고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등지에 분포해 있다. 불형이 고슴도치와 같은 형태로 꽃을 피우는데 두상의 정수리부터 꽃이 피며 점차 아래쪽으로 전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7~8월에 개화하는데 은백색의 봉우리가 파랑색으로 피어내는 모습에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가끔 심겨진다. 그러나 잎

과 꽃에 강한 가시가 있어 정원 작업에는 매우 성가신 놀이다. 약간의 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토양의 물 빠짐이 좋은 양지를 선호한다. 특히 물 빠짐이 나쁜 곳에서 뿌리가 썩어 장마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적당히 퇴비를 주어 대를 튼튼히 하면 더욱 아름다운 큰 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에키놉스는 절화하여 말린꽃 장식용으로도 훌륭한 식물이다. 그러나 쉽게 보지 말길. 그 까칠함이 당신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수도 있으니까.

Echinops



1. 고품을 치듯한 강렬한 자태가 눈과 귀를 열게 한다. 마치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듯 유아독존, 그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2. 정수리에서부터 피어나는 갈고리 모양의 꽃은 하늘에서 날아와 꽃힌 듯하다.



3. 여러 송이가 모여 핀 꽃차례는 금방이라도 벌과 나비를 불러올 기세다.



4. 많은 경우 벌이 많은 꽃들은 탐스럽고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은데 절굿대에 앉은 벌은 어쩔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너무 강한 듯 까칠해 보이는 강한 인상 때문일 것이다.



5. 벌이 다녔던 곳은 갈색으로 변한다. 다음에 오는 벌의 수고를 덜어주는 매너까지 갖추었다.



6. 모든 수분이 완료되어도 한동안 그 아름다운 자태는 유지된다. 드라이 플라워로도 인기를 끄는 이유이다.



우리꽃

031)634-0326
www.uriseed.com



Contents

August 2013



- 3 커버스토리 절굿대
- 6 이달의 야생화
8월 정원에서 볼수있는 야생화
- 8 코레우리
우리꽃이 만들어 세계시장 공략
- 14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색 없는 계절에서도 2차 개화를 이루는 야생화
- 18 세계적인 3대 실내 관엽 식물
벤자민고무나무, 스킨답서스, 아글라오네마의 번식법
- 20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운 우리 식물들
잎이 아름다운 야생식물 변이종
- 24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잔인한 8월, 불품없는 정원에 생명감을 불어넣는 작업들
- 28 시즌 아이템 글라디올러스
절화용인 줄 알았던 베란다의 여름 꽃
- 30 여름철 베란다 꽃발관리
장마로 죽어가는 식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해법
- 34 공기정화식물
실내 환경에 맞는 식물은 따로 있다
- 36 여름철 끝난 정원 수생식물
장소에 따라 키워야 할 식물이 다르다
- 41 자외선이 피부를 태운다
여름철 피부 보호를 위한 방법...비타민C 함량 높은 채소를 먹자
- 42 정원 속 작은 생명체 다육 식물
오래 기간 키워야 빛을 발하는 하월시아
- 45 여름철 밤을 밝게 수 놓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을 위한 끈질긴 노력

- 48 식충식물 끈끈이 주걱
화려함 속에 감춰진 죽음의 덫
- 50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응애
차병진 교수의 응애를 알고 대처하자
- 52 8월, 과일의 왕자 '포도'
국내에서 육성한 다양한 포도 품종
- 54 여름 과채류의 대명사 '수박'
수박이 갖고 있는 수십가지 효능
- 56 이달의 텃밭 농사 길잡이
김장채소 재배, 파종 · 육묘 · 정식 시작하자
- 60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왕초보 박소영씨의 텃밭 가꾸기 II
- 62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
아이들과 해충과의 만남
- 64 이를 수 없는 사랑을 달래는 꽃 '상사화'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사랑이야기
- 66 국화 분재
대자연에 함축한 축경미의 세계
- 68 소나무 전정
소나무 고유의 멋을 지키기 위한 전정법
- 70 가드너들을 골병들게 하는 여름철 잔디
잔디관리법 & 잔디 깎는 기계
- 73 음료수 병의 화려한 변신
화병으로 리폼하기
- 74 유럽식 키친가든
넓은 냄비 화분으로 허브향 가득한 키친가든 만들어보자
- 76 가뭄장에 물매화 심기
초보가드너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외부작

- 78 재활용의 미학
폐품을 텃밭 아이템으로 활용한 창의적 발상
- 80 자연식 최고의 반찬, 식용꽃
먹을 수 있는 꽃으로 요리를 만들어 보자
- 82 바이브런트 파스타
지중해의 이국적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요리
- 84 가든 카페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정원 카페 드 노피
- 86 세계의 식물원
스코틀랜드의 숨은 보석 세인트앤드류식물원
- 88 영국 가든 디자이너의 정원
손관화 교수의 영국 가든 정원 이야기
- 90 아름다운 정원을 꾸꾸는 정원사
박갑수씨의 이끼로 만드는 가든
- 93 신금철 김순한 부부의 제주도 바다 정원
바다를 우리집 정원으로 끌어들이다
- 96 화려하고 럭셔리한 글램핑
4개의 호텔에서 즐기는 캠핑 여행
- 100 가든인만을 위한 야외활동 약초활용법
우리 몸의 진정한 치유는 '약초'가 책임진다
- 102 식물이 내는 살균 물질 피톤치드
나무가 뿜어내는 휘발성 물질이 자연을 치유한다
- 104 Ask your experts Q&A
'궁금해요' 독자, 전문가에게 답을 묻다
- 107 뉴스
정원 박람회 '전국 아마추어사진' 공모전 외

이달의 야생화



우리꽃 품종 독립선언

코레우리

우리꽃이 만들어 세계시장 공략

우리는 많은 식물들 속에서 살아간다. 식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유일한 힘은 식물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은 특산식물이 많이 있다. 별개미취가 그르고, 섬초롱, 섬백리향이 그렇다. 왕벚나무나 구상나무도 있다. 물론 세계적인 정원수가 된 미스키파일락의 북한산 탈개화나무도 우리의 특산식물이다. 그러나 이들을 불러보면 가슴 한 쪽이 아린 듯 허전하다. 미스키파일락은 1947년 미 군정청 미더 교수가 북한산 탈개화나무 씨앗을 반출한 나무이고, 구상나무 역시 1917년 미국의 월슨 박사가 한라산에서 채집한 것이다. 정밀 연구 결과 '이 나무는 다른 곳에 존재한 본비나무와 전혀 다른 종으로 지구상에 유일한 종(種)'으로 판명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나무로 판매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식물들이 해외로 반출되어 육종의 소재로 사용되고, 새로운 식물이 되어 다시 역수입되고 있다. 물론 미스키파일락도 반출을 지불한 것이다.

우리꽃연구회 현재 47개 품종 보호 출원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도 원종을 해외에서 들여와 로열티를 받는 식물이 있다. 그 중심에 우

리꽃연구회가 있다. 우리꽃은 2006년부터 코레옵시스 로제아(Coreopsis rosea)를 대상으로 육종을 시작해 버티실라타(Coreopsis verticillata), 알파나(Coreopsis alpina) 등으로 그 연구육종을 확대해 현재 47품종을 품종 보호 출원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원한 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품종명은 개발자가 명명하게 되는데 우리꽃은 코레우리라는 식물명을 보통명사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말 일본의 하쿠산과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 야생화 로열티의 실질적인 수출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첫 기록이 작성되었다. 현재 세계적인 로열티 관리회사인 네덜란드 플랜팅과 계약, 유럽과 북미, 호주까지 그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당장 그 예상 매출액은 3년 이내 최소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육종 시장 리드, 화훼 강국이 되자
로열티는 종주국에 내는 지적재산권이다.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꽃은 대한민국의 품종 독립을 위한 선구자라 평가받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로열티 수입국에서 로열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패기인

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구상에는 약 30~50만종이 넘는 식물의 원종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은 그 100배는 족히 넘을 것이다. 더군다나 화훼 육종은 '한국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화훼 육종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후진국이다. 선진 유럽이나 미국 기업에 맞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할 수 없다. 상록잔디패랭이는 다이안투리(Daianturn)라는 식물명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판되고 있다. 상록잔디패랭이의 예상 판매량은 약 5만본 정도였으나 지금의 추세라면 연내 약 9만본 정도의 판매량을 기대할 만큼 반응이 좋다. 이와 같은 인기에도 힘입어 내년에는 '백만본 이상 판매량'이 기대되고, 나아가서는 로열티 강국으로서의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우리꽃 코레우리

코레우리의 우리드림시리즈는 우리꽃의 품종 독립선언과도 같은 이름이다. 품종 개발을 위한 작전명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스페셜 선보이는 종들은 모두 각계 전투용이다. 저마다의 특징이 넘다능력을 가졌다. 텡카벨시리즈는 말 그대로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화이트



2012년 가을 우리꽃연구회에서 진행한 '2012 우리꽃 지식나눔축제' 장에 전시되어 선보인 코레우리

로 꽃의 요정이다. 작고 아름다운 꽃이 볼 형으로 유독 더 아름답다. 버티실라타의 많은 품종들은 내한성이 강해, 백두산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품종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노랑이 아닌 유색을 뽑아 낸 최초의 품종이다. 정원용으로 최고의 추천식물이 될 것이다. 월드시리즈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화색, 분화용 & 화단용 인기

코레우리 꽃은 코스모스를 닮았다. 꽃은 늦은 봄부터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연속해서 피어난다. 씨앗은 맺히지 않는다. 화색은 하양에서 빨강까지 원색에서 파스텔 색까지 다양하다. 스스로 마운드를 형성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란다. 분화용으로는 물론 화단용으로 매우 좋다. 그리고 가든파티를 위한 디스플레이 용으로 최상이다. 코스모스 향기를 닮았고 키는 20~60cm까지 다양하다. 코레우리는 꽃이 계속해서 피기 때문에 충분한 퇴비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햇볕이 좋은 장소에서 재배해야 한다. 실내로 들여놓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햇볕이 좋은 장소에서 재배하고, 실내에 들였다가 다시 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 가끔은 머리를 깎듯이 커팅을 해주어야 한다. 많은 꽃이 피어나는 만큼 지는 꽃도 많기 때문에 예쁘게 꽃대를 잘라주어야만 다시 꽃을 피운다. 자라는 높이에 따라 7일에서 약 2주간의 시간을 요한다.

우리드림 시리즈

코스모스를 닮은 코레우리는 늦은봄부터가을서리가 올때까지 피어난다. 화색이 다양하고 관리가 쉬워 분화용, 화단용으로 좋다.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꽃은 대한민국의 품종 독립을 위한 선구자라 평가할 만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로열티 수입국에서 로열티 수출국으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코레우리와 왜성강우리가 한창 개화중이다.

코레우리는 종자를 맺지 않는 꽃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색색의 꽃을 피워 낸다. 정원용, 분화용으로 세계적인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팅커벨시리즈

팅커벨시리즈는 말 그대로 꽃의 요정이다. 작고 아름다운 꽃이 불 형으로 유독 더 아름답다.



팅커벨 퍼플

“우리나라도 로열티를 받는 식물
물이 있다. 그 중심에
우리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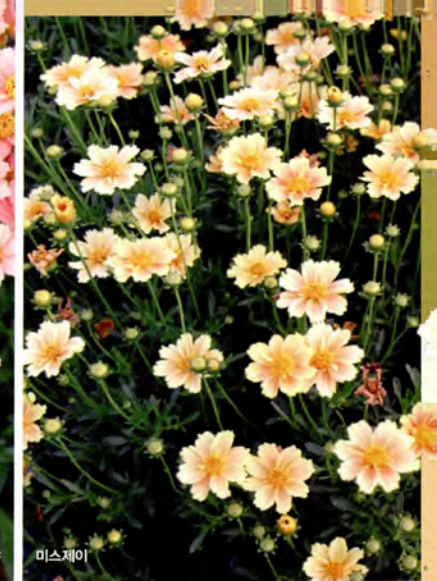
팅커벨 레드



팅커벨 퍼플



버티실라타 품종 비교



파파야

미스제이

Verticillata Series

버티실라타의 많은 품종들은 내한성이 강해, 백두산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품종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노랑이 아닌 유색을 뽑아 낸 최초의 품종이다. 정원용으로 최고의 추천식물이 될 것이다.



“우리꽃은 코레옵시스를 시작으로 현재
47개 품종 보호 출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원 했다.”

미스제이



레몬사벳

A large field of colorful flowers in various colors (yellow, white, red, pink) growing in rows, with a truck visible in the background. Two circular insets show close-ups of pink and orange flowers.

A vibrant field of colorful flowers, including yellow, orange, and red blossoms, with a small inset image showing a close-up of pink flowers.

틴티드레드

선사인 '가을색'

그린아이즈



글·사진 서준혁 우리꽃 상무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8월의 정원은 가장 색이 없는 계절이다. 장마가 끝난 계절, 초여름에 일제히 피워냈던 꽃들이 높은 온도와 강렬한 태양을 이용해 열심히 양분을 축적하고 씨앗을 길러내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종류의 꽃식물과 이제 거의 모양을 완성한 그라스가 막 저마다의 특성에 알맞게 꽃을 피우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계절이기도 하고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정원은 많은 식물이 대부분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종류들은 전면에 골고루 설계되고 식재되었는데 그중 7월에 다루었던 에키네시아, 후록스,

가우라, 코레우리 등이 8월까지 계속해서 지켜주는 대표종이다. 물론 많은 정원 관리 중 장마 후 가장 중요한 커팅에 의해 새롭게 피어나는 많은 종들의 2차 개화와 일년초들이 주를 이루어 피어나 화사하고 볼품 있는 정원을 연출한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8월이 되면 키가 거의 다 자라게 된다. 따라서 볼품함이 있고 약간의 거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가을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또 우리꽃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연구 성과물이 정원의 곳곳에서, 혹은 연구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꽃의 연구 품종인 그린 에키네시아



여름이 되면서 짙은 녹음을 선사하는 꽃 복숭아 오솔길

우리꽃 대표 식물로 군림,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는 이제 우리의 여름을 대표하는 정원식물이 되었다. 그 종류도 일반적으로 분홍과 하양, 노랑이 주를 이루고 최근에는 빨강색과 검꽃까지 다양하다. 에키네시아도 정원에 혼합 할 때는 키와 꽃색 그리고 화기를 고려한 주변식물과의 콤비네이션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수직의 형태로 자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식물들과 혼합 혼성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봄 식물과 혼합하는 것이 좋고 간혹 그라스와 잘 어울리기도 한다. 그러나 특히 주의할 점은 키가 큰 품종들은 지저부가 약하고 꽃송이가 매우 크고 무거워 장마와 태풍에는 치명적이다. 반드시 지주대 혹은 이른 봄 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이른 봄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인 꽃복숭아 오솔길은 여름이 되면서 짙은 녹음을 형성한다. 특히 키 낮은 복숭아로 이루어지는 녹색의 즐거움은 많은 안정감을 선물한다. 이런 수목에 의한 음지에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정감과 화사함을 동

시에 얻을 수 있다. 이른 봄에는 튜립과 수선이 반겨주던 자리다. 숙근초로는 꼬리풀과 휴게라, 아스틸베 그리고 장미개화형인 코레우리 미스제이로 기본을 연출하고 1년초를 임파첸스로 적용했다. 여름이 점점 짙어질수록 임파첸스의 힘은 화사함으로 보완한다.

소나무와 공생, 부직포에 비밀이 있다

참 많은 분들은 우리꽃 정원의 포인트 목인 소나무 아래 식물상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궁금해 한다. 사실 소나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식물들 못살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물질들 분비하기도 하고 토양을 산성화시켜 다른 식물의 발아와 생육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모든 식물들은 자기 방어와 종족의 번식을 위한 타감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나무는 대표적인 타감작용을 하는 수종이다. 그러면 우리꽃의 소나무는 왜 타감작용을 하지 않고 많은 식물들을 품에 안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일까. 비결은 수분과 양분 그리고 부직포다. 우리정원의 소나무 아래



소나무 아래 다양한 식물이 살아기만치 그림같은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



“식물들은 8월이 되면 키가 다 자라
볼륨감 있고 거친 듯한 정원 분위기를 연출한다”



는 부직포를 깔고 많은 식물을 적용했다. 때문에 소나무 아래 물 빠짐이 좋지만 항상 습도가 잘 유지되어 소나무가 스스로 위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량의 타감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솔잎도 이른 봄 제거된다. 물론 잎이 우거진 영향으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은 음지식물이 알맞다. 소나무 줄기 바로 아래는 사사화 삼지구엽초, 맥문동, 꽃나리, 무늬동글레, 옥잠, 원추리 등이 적용되었다. 그 주변을 여름에 꽃이 아름다운 왜성모나다와 에키네시아, 서양 쑥부쟁이, 비누풀, 부처꽃, 탐, 아스타, 아스틸베 등이 좋은 생육을 이루면서 계절을 바꾸어 가며 꽃을 피운다. 사진은 아름다운 분홍의 왜성모나다가 만개한 모습이다.

방문객의 궁금증 유발하는 식물들의 향연

잔디밭 옆 느티나무 아래는 호스타의 무대이다. 물론 철포백합이 좋은 향기를 내뿜는 곳이기도 하고, 꼬리풀과 수국, 후록스도 가세해 멋을 겨루는 경연장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활엽수 나무아래에서 이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곳이다. (사진 6)
키가 큰 모나르다와 아스타, 에키네시아, 절구대, 평의다리, 풍선초 등이 어우러져 저마다의 키를 자랑하고 있다. 적당한 식기가 되면 커팅을 하여 새로운 2차 개화를 유도하고 가을에 필 아스타 등의 키를 낮추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진 2)
에키네시아 위를 덮고 있는 스타치스의 작은 꽃망울이 아름답다. 이제 곧 보라색의 꽃이 피어나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게 될 것이다. (사진 1)

여름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꽃 정원

8월의 연꽃은 특히 장마 이후 온도와 햇빛이 강해지면서 갑자기 많은 이끼와 개구리밥 등이 번식한다.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연꽃 청소를 한 번 해주고 되도록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차광을 해 주는 방법도 좋다. (사진 5)
이제 모든 식물은 그 자람을 뽐내기보단 자신들의 기세를 펼치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을은 멀리 있는 듯 세찬 매미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모르지만 그라스로 대표되는 가을 식물들은 벌써 가을을 재촉한다. 무늬 억새를 비롯한 억새류의 당당함과 몰리니아 '무어'의 기싸움은 이제 펼쳐질 가을 하늘과 고추잠자리를 불러 모을 것이다. (사진 7)
이와 같이 에키네시아, 왕원추리, 후록스 등이 잘 어우러진 정원의 모습은 풍요롭다. 그라스의 기세가 벌써 가을을 부르는 듯 무섭다. (사진 3)
한편 우리꽃 농장의 영국포장지에서는 가을자식나눔축제를 준비하고있다. 사진은 현재 유럽화훼시장의 선진국들에게서 콜을 받고있는 코레우리, 가우라 등의 연구포장. 좋은 품종들이 주인의 선택을 바라며 한껏 뽐내고 있다. (사진4)

“에키네시아, 후록스 등이 어우러진 정원의 모습은 풍요롭다. 그라스의 기세가 벌써 가을을 부르는 듯 무섭다.”



세계적인 3대 실내 관엽식물



글·사진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실내 관엽식물 중 세계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실내 조건이 그늘이라 우선적으로 그늘에서 오래 동안 잘 견디며 살 수 있는 식물이어야 하고 보기가 아름답고 좋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식물은 대부분 원산지가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식물 기호도를 보면, 공통적으로 관상되고 있는 관엽식물들의 화훼식물 기호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 사람들은 더욱 아름다운 자연과 식물을 벗 삼아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선진국 사람들은 높은 문화생활과 의식주 해결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후불제 신용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설 틈 없이 일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여유가 없어지고, 동시에 긴장과 초조,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로 꽉 찬 삶을 연속하다 보니 보는 것만이라도 자극적인 것보다는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후진국 사람들은 빛이 없고, 바쁘거나 할 일이 많지 않다. 덕분에 생각의 여유가 많고 단순한 삶이 연속된다. 이러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가 식물의 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인간이 가장 눈에 빨리 인식되는 것은 첫째가 색채라고 한다. 이어 형태, 세 번째로 재질이라고 한다. 첫째가 색채인데 색채는 인공적인 색채보다는 자연적인 색채이며 자연적인 색채 중에서도 인간이 경험한 자연색 중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색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극적인 색은 햇빛에서 강렬하게 나오는 삼원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담이 없는 색은 숲에서 보는 색이나 땅에서 볼 수 있는 갈색이다. 갈색이 가장 편안하고 무난한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사람들이 좋

아하는 관엽식물들의 공통점은 선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또 촉 늘어지고 신선해 보이는 식물들이다. 잎이 큰 것 보다는 작거나 좁고 긴 잎을 가진 것. 밝은 무늬가 있는 것. 꽃 색은 원색이 아닌 파스텔 톤을 좋아하며 관리가 쉬운 식물들을 좋아한다. 반면 후진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정도로 머리를 쓰지 않고 살기 때 문인지 생각의 여유가 있다. 자극적인 식물들을 좋아하고 부의 상징인 비싸고 귀한 식물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식물의 성향을 보면 줄기가 곧게 자라고, 잎이 크고 두꺼우며 진녹색으로 광택이 난다. 관리가 어려워도 비싼 것을 좋아한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관엽식물들은 벤자민 고무나무와 아글라오네마류, 스킨답서스류, 씹서스, 드라세나류, 옥시카르디움, 보스톤 고사리, 잎이나 줄기가 늘어지는 덩굴식물류, 기타 무늬종 등을 들 수 있다. 그 많은 식물들 중에 특히 관엽식물은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와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 아글라오네마 '실버 퀸' (*Aglaonema 'Silver Queen'*)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실내 그늘진 곳이나 밝은 곳에서도 잘 자라며 어느 정도 건조에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은 것이 장점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관리가 용이하고 혹 죽는다 해도 다시 사오는데 부담이 안 되며 보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만만한 식물들이다.



스킨답서스 '라임' (*Epipremnum aureum 'Lime'*)

벤자민고무나무 (*Ficus benjamina*)



아글라오네마 '실버 퀸' (*Aglaonema 'Silver Queen'*)

benjamina)와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 아글라오네마 '실버 퀸' (*Aglaonema 'Silver Queen'*)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실내 그늘진 곳이나 밝은 곳에서도 잘 자라며 어느 정도 건조에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은 것이 장점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관리가 용이하고 혹 죽는다 해도 다시 사오는데 부담이 안 되며 보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만만한 식물들이다.

번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벤자민고무나무는 가지를 잘 드는 칼로 잘라 밑 부분에 난 몇장의 잎을 따버리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 꽂아 두면 뿌리가 내린다. 좀더 많은 수량을 요구할 때는 2~3마디 정도 잘라 배수가 잘되는 모래나, 인공용토에 꽂아두면 뿌리가 잘 내린다. 스킨답서스는 덩굴식물로 2마

디 정도 잘라 아래 마디 잎을 따내고 용토에 꽂으면 되며 마디에 뿌리가 자란 것은 뿌리부분을 배양토나 인공용토에 심어주면 바로 뿌리처럼 활동하며 자란다.

아글라오네마는 여러 종류와 품종이 있지만 '실버 퀸'은 줄기를 2마디씩 잘라 인공 용토에 꽂으면 뿌리가 내리며 화병에 물을 담아 물속에 긴줄기를 잎과 함께 꽂아 놓아도 잘 자란다.

또한 유리용기에 물을 담아 꽂아두면 뿌리가 내리며 잎 또한 싱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뿌리가 내리는 데는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균이 없는 배양토가 좋으며 배수가 잘 되어야하고, 물이넘이 좋은 토양으로 모래나 인조용토라야하며 온도와 습도는 고온다습으로 온도는 25~30℃를 요하며 물은 많이 주는 것 보다는 토양이 바싹 마르지 않을 정도로 주면 된다. 뿌리가 내리는 기간은 30~40일정도 걸린다.



아글라오네마 '실버 베이' (*Aglaonema 'Silver Bay'*)



벤자민고무나무 '하와이' (*Ficus benjamina 'Hawaii'*)

1



1. 얼룩무늬 동백나무 : 전남 완도의 해안가에서 종자가 발아될 때에 무늬가 들어있어 채집하여 기른 것으로 새빨간 꽃은 정상적으로 핀다. 우리나라의 남부는 물론 전북, 충남의 해안지역의 정원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

국내 산과 들에는 4,158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외래종 436종까지 합치다면 대략 4,600여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국내 자생식물 중에서 화훼 및 정원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대략 600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에서 약 63%는 나무종류이고 나머지 37%는 풀꽃식물들이다. 그리고 이들 600여종 중에서 약 62%는 꽃을 감상할 목적으로 심고 있으나 15%는 잎, 약 10%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다.

최근 국내 산야에서 자라는 야생화뿐만 아니라 산나물, 약초 등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관상식물은 꽃의 아름다움이 최고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꽃은 필 때가 아름답지, 지고 나면 허망할 따름이다. 누군가는 지는 꽃이 아름답다고 말했다지만 이는 감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꽃은 피어 나서 질 때까지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잎이 아름다운 것은 한 계절 또는 1년 내 지속될 수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그렇지 최근 세계적 트렌드는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색상이 아름다운 원변이 식물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꽃 대신 아름다운 잎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정원에 색상을 맞추어 식물을 심는다가나 정원 디자인을 할 경우에도 원변이 식물의 색상 도입은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야생식물 중에서 잎이 아름다운 몇몇 원변이종들을 고르다면 다음과 같다.

글·사진 이종석 서울여대 명예교수, 국립수목원 초빙연구원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운 우리 식물들

2. 돌기시나무 : 남부지방의 해안에 자생하는데 찔레꽃처럼 하얀꽃을 피우고 향기가 좋다. 해안가의 땀밭에서 자라는 양지성 식물로 잎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특징이며 지표면을 덮을 수 있는 지피식물로 활용한다. 잎에 서(嚙)무늬가 있는 것이 특색이다.

3. 무늬잎 월굴나무 :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나무로 태풍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없는 질긴 식물이다. 자주색의 작은 꽃이 피고 나면 염주 같은 열매가 달리는데 잎이 지고 나면 겨우내 삭풍이 불어도 열매만 달랑거리며 남는다.



4



5



7. 황금알고광나무 : 고광나무의 변이체로 삼목 번식을 하면 지속적으로 노란 잎을 가진 훌륭한 정원수로 증식할 수 있다. 새봄에 색깔이 가장 아름답고 또렷한데, 여름철이 되면 색깔이 다소 연록색으로 탁해진다. 서울 지방에서도 월동이 잘되고 지나치게 햇볕이 강하게 쬘거나 건조하면 잎이 타는 경향이 나타난다.

8. 무늬억새 : 잎 기운때문에 줄무늬가 세로로 들어가는 중투(中透)이다. 제주도의 억새밭에서 발견한 잎무늬종으로서 이름있는 원예종에 비하면 무늬의 양상이 고정되지 못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관상가치와 희귀성이 있는 변이종이며 포기나누기로 번식을 해야만 무늬가 유지된다.



4. 얼룩무늬 산수국 : 물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수국을 찾으려면 깊은 산 계곡 또는 물이 흐르는 냇가의 가장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잎에 노랑색이 짙게 들어가 있어서 아름다운데 햇볕을 잘 받아야 아름다운 무늬가 잘 나타난다. 제주도 한라산 계곡에서 발견한 원변이 종이다.

5. 서(嚙)무늬 잎을 가진 신갈나무 : 강화도 전등사 부근의 야산에서 종자가 발아될 때에 무늬가 보여서 채집한 것이다. 새잎이 나와서 전개될 무렵에 무늬가 잘 나타나고 성엽이 되면 다소 흐릿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잎에서는 무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6. 반엽무궁화 : 종자를 파종한 것 중에서 변이체가 발견되어 선발한 것이다. 잎 가장자리에 백색의 테가 둘러져 있다. 꽃은 평범한 무궁화 꽃이며 잎 무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운 우리 식물들

10



10. 벌개미취 : 잎에 노란색의 얼룩무늬가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다.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된 것들 중에서 무늬가 들어있는 것을 선발한 것이며 생육은 정상적으로 잘된다. 무늬의 정도가 균일하지 않은 것이 다소의 흠이라고 할 수 있다.

14



14. 물단풍 잎무늬종 : 산반중투호무늬인데 종자를 파종한 개체들 중에서 선발한 것이다. 무늬의 형태가 일정하지는 못하지만 무늬종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새잎이 나올 때는 무늬가 뚜렷하지만 성엽이 되면 다소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다.



11



12



11. 쑥 : 흔한 식물이지만 잎에 노랑 무늬가 들어있는 것은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상가치보다는 무늬가 들어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12. 섬기린초 : 울릉도와 독도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추위와 건조, 햇볕에 강한 특징이 있다. 종자를 파종한 것 중에서 가끔씩 발견되는 변이종이며 새로 자라나는 부분이 노란빛 또는 흰빛을 띠는 변이종이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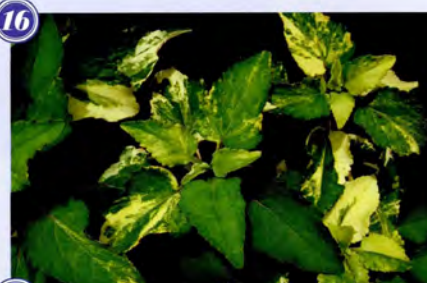
15. 털머위 : 제주도와 남부해안가에서 자생하는 상록성의 국화와 식물이다. 10~11월에 노랑꽃이 피며 달콤한 향기가 난다. 보통종은 잎에 무늬가 없으나 변이종은 노란색의 둥근 반점이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종자 파종시에 무늬종을 선발하여 기른 것이다.

13



13. 두루미꽃 : 울릉도의 숲속에서 군락을 형성하여 자란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숲속의 음지에 심으면 잘 자라는데 잎 가장자리에 흰 테가 들어있는 백록류으로 관상가치가 높다.

16



17



16. 참취(산반) : 새잎이 나오는 시기에 얼룩 반점이 산반무늬로 아름답게 들어가며 관상가치가 매우 높다.

17. 참취(연두색) : 황록색의 잎을 가진 변이개체로 매우 아름답다. 종자 파종시에 나타난 변이체를 선발한 것이다.

가든 플래너 박공영의 이달의 관리

잔인한 8월, 정원이 싫어진다?

7월의 긴 장마는 정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모든 식물의 키는 쑥 자랐고 어떤 곳은 잡초로 뒤덮였다. 또 어떤 친구는 쓰러져 고개만 하늘로 쳐들고 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 만하다. 어떤 친구는 전열이다. 갈색으로 썩어 내린 것은 물론 냄새까지 심하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강한 그라스의 위용과 쑥 자란 아스타의 생기가 다가 올 가을 가든파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장마, 모든 식물의 기를 앗아갔다

식물들이 장마와 사활을 걸고 싸우느라 기진맥진하다. 많은 비와 약한 광선, 그리고 경쟁은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길러내 오히려 뿌리가 약해져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잘라서 비율을 맞추고 새로운 순을 받아야 한다. 커팅의 방법은 꽃이 피기 전에 행하는 것과 꽃이 지고 난 후 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키를 낮추고 줄기를 많이 밀도를 높여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우게 하는 방법과 식물의 적절한 생육을 조절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커팅이 있다.

우선 꽃이 피기 전에 행하는 커팅이 있다. 꽃이 피기 전 행하는 커팅은 즐겁다. 사후 처방이 아니라 가드너의 의도로 사전 처방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이른 봄이나 장마 이전에 행하는 커팅을 말하는 데 많은 식물들은 장마 우세 현상을 보인다. 때문에 많은 식물들은 초기에 줄기의 끝 순을 잘라주게 되면 아래에 있던 마디의 눈에서 새롭게 싹이 나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즉 키를 낮추고 가지를 많이 하는 방식이다.

닥치는 대로 잘라라

또 하나는 꽃이 진 후 자르는 방법인데 이는 또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열매를 없애는 방법과 다시 꽃을 피게 하는 방식이다. 예



를 들어 로제트형의 식물이나 재발생을 하지 않는 식물의 경우 지고 난 꽃대를 제거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 어미의 포기를 길러주는 방법인데 튼튼, 수선 등 구근이 이에 속하고 저면 아이리스, 우리의 붓꽃, 휴케라, 옥잠류 중 무늬종, 두메부추 등 알리움속, 아스틸베, 원추리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해식물은 종자 생산용이 아니라면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식물들은 꽃이 지고난 후 커팅을 하면 새로운 꽃가지를 내어 꽃을 피우려는 습성이 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 때문이다. 따라서 꽃피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각 식물에 맞는 커팅방법이 있지만 대체로 이미 지고 난 꽃대 아래를 잘라 주는 것이 표준이다. 물론 이번 기회에 커를 더 낮추기를 원한다면 좀더 아래를 잘라도 된다. 그러나 어떤 것 들은 강하게 잘라버리면 잎만 무성해 지고 꽃을 피우지 않거나 새로운 꽃을 피우는데까지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많은 꽃을 피우는 식물은 꽃대 바로 아래를 닦는 대로 자르면 되는데 이때 식물체 모양을 잡아 주는 식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물은 바로 새로운 꽃을 피우는 데 약 10~15일 가량이면 다시 만개한다.

가을꽃은 장마 이후에도 커팅 필요하다

꽃송이가 많지 않고 굵은 줄기를 가진 절굿대, 평의다리, 예키네시아 등의 식물의 경우 커팅의 효과는 좀 반감되는데 이런 식물은 사전 커팅이 유리하다. 그리고 많은 식물의 경우 장마기 이전에 사전 커팅이 종료되는데 몇몇 종은 장마 이후에도 커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가을꽃이다. 너

무 키가 큰 억새는 8월초까지 자를 수 있다. 꽃은 좋지만 잘 쓰러지는 아스타 디바 종류도 장마 이후 마지막 커팅이 가능하고 여름 이후에 꽃피는 관목은 언제나 필요할 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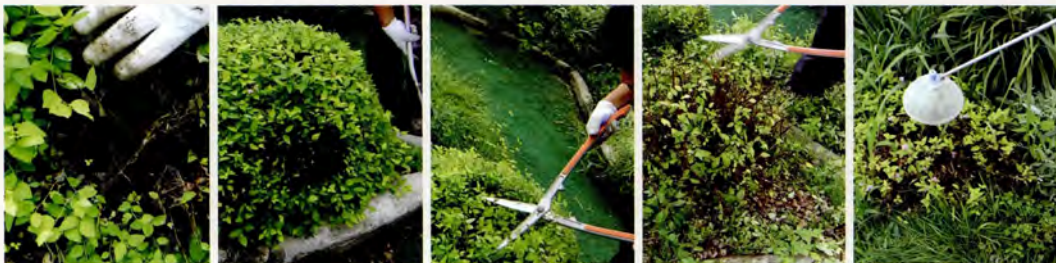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관목의 경우 이른 봄 꽃을 피우는 철쭉류, 개나리, 조팝나무류, 라일락 등은 너무 늦게 자르면 다음해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대부분 6월 첫 장마 이전에 커팅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장마에 길게 자란 잔디밭은 깨끗하게 깎고 복합비료를 주어 활력을 되찾는다. 물론 장마기 이후에 건조가 심하지 않더라도 주 1회 정도는 물을 주는 것이 좋다. 15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잔디 깎기를 하여 가을에 가든파티를 준비하는 즐거움도 있다.

병충해 방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마 이후의 관건은 병충해 방제이다. 정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기를 잘못 관리하면 전멸이다. 그래서 커팅과 함께 반드시 약제 살포는 필요하다. 만약 약제를 사용하기 싫다면 정원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커팅을 하고 살균과 살충을 위한 약제 살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골치거리인 잡초다. 장마를 거치면서 이미 정원은 초토화 되었을 것이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장마 이후의 잡초 상태다. 최대한 몸집을 불린 녀석들이 가진 줄기와 잎으로 손과 팔뚝에 생체기를 내며 저항할 것이다. 힘도 왜 그렇게 센지, 정원이 싫어질 만도 하다. 때문에 8월의 정원은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일하는 정원이다.

Step By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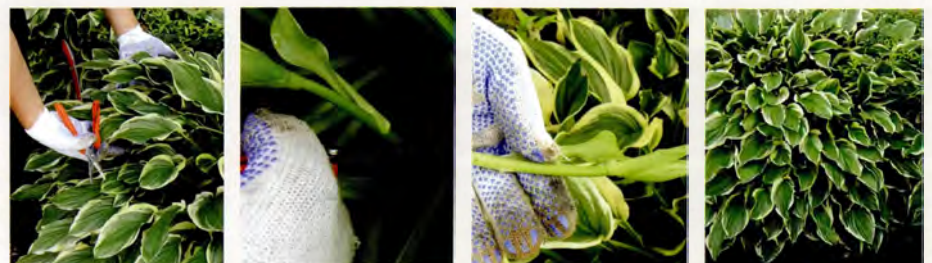
많은 식물이 장마이후에 병충해의 피해를 보인다. 지난 달 잘 다듬어준 황금조팝의 가지가 일생 녹아내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고 자르고 살균제를 살포하게되면 2~3주 후에는 다시 아름다운 모양을 뽐내게 된다.



1. 세균성 병징 확인 2. 흐트러진 모양 3. 전체적인 커팅 4. 과감한 모양잡기 5. 살균제 살포

Step By Step

많은 무늬종은 꽃을 피우고 나면 잎의 무늬가 약해지거나 볼품이 없어진다. 이는 식물들은 꽃이 피기 전 미리 꽃대를 잘라주어 잎의 모양을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관리한다.



1. 무늬종의 꽃대가 형성 2. 잎줄기 속에서 올라오는 꽃대 3. 과감한 꽃대자르기 시도 4. 커팅 후 훨씬 잎이 선명해진 호스트



8월 정원은 꽃보다 채소

병충해로 초토화된 텃밭, 차라리 갈아엎어라

텃밭의 8월은 이제 시작이다. 정원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텃밭 식물은 과일 채소를 제외하면 모두 8월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곳은 일반 꽃으로 가꾸어진 정원에 비해 많은 잡초와 병충해로 거의 초토화 되어 간질 게 하나도 없다. 이때는 주저하지 말자. 모두 갈아엎는 것이 상책이다. 토마토, 고추, 가지 등의 열매채소는 탄저병이나 역병이 걸려 거의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들도 내년을 기약하고 모두 없애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제는 김장을 위해 다시금 설계를 해야 한다.

배추, 잎채소 등 어떤 것을 심어도 좋다
가장 중요한 배추는 중부지방에서는 8월 중순까지 남부지방에서는 8월 말까지는 파종을 완료해야 한다. 물론 묘종을 구해다 이용할 경우에는 좀더 늦출 수 있다. 그러나 무와 당근 등은 육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밭에 직접

파종을 해야 뿌리가 이상 없이 좋아진다. 무는 배추보다 약 10일 늦게 파종해도 무방하다. 배추, 무, 갓 등의 육묘기에는 망사 터널을 설치하여 진딧물과 바이러스 병을 예방토록 한다. 실패도 김장용 채소로 빠질 수 없고 기르기가 쉬워 텃밭정원에 좋은데, 꼭지를 너무 약하게 자르면 줄기가 많아지지 않으므로 최소 1/3분 이상을 자르고 심어야 한다. 서리가 내릴 때 먹는 옥수수 맛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조생종을 지금 종묘상에 주문해 심어 보라. 물론 상추, 쑥갓, 갓, 근대 등도 이제 앞줄기를 이용하는 어떤 식물을 심어도 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8월의 정원은 꽃보다 채소다.

지주 및 배수로 마지막 재정비할 때
그러나 아직 행길 것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일손이 남았다.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의 지주를 정비하여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고

■ 잔디밭에 생기는 잡초, 이렇게 방지하자



정원의 침략자 잡초는 다른 식물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보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많은 포기들을 이루는 잡초들은 보통 가장 아랫 잎 밑에는 색인이 없는 종류가 많다. 이들 잡초는 줄기가 땅에 닿는 지저부 아래를 갈아나 가위 등으로 잘라주면 된다. 하지만 쑥이나 메꽃 등은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뽑은 잡초는 토양을 덮어주는 피복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온 다습한 시기에는 탄저병 발생이 많아지고 담배나방 발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예방 위주로 방제한다. 늦장마와 태풍을 대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엽면시비를 하여 생육을 촉진시키는 등 후기관리를 잘 하여 수확량을 높이도록 한다. 붉은 고추와 토마토는 제때 수확하여 다음에 달리는 고추의 자람을 좋게 해 주고, 적온에서 건조하여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 콩 참깨 등 살충제 혼용 가능 여부 체크

참깨는 수확 20~25일 전에 순지르기를 해주어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준다. 콩은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구를 다시 정비하고 너무 무성한 포장은 고랑을 헤쳐주거나 윗잎을 따주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쏘이도록 해준다. 콩, 참깨, 땅콩의 병해충을 방제할 때는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섞어

뿌려 주되 농약을 2종류 이상 섞어 사용할 때는 혼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 응애, 다른 약재로 교체 사용해야 효과

과일의 경우는 병충해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고온기에 발생이 많은 응애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한 잎에 2~3마리가 보이면 응애전용 살비제 살포하는데 응애는 약재에 대한 내성이 강하므로 똑같은 약만 계속 살포하지 말고 계통이 다른 약재로 바꾸어 뿌리도록 한다. 약제를 살포할 때에는 충분한 양을 앞뒷면에 살포한다. 포도는 송이를 적당히 남겨 당도를 높이고 색이 잘 들도록 관리하고 포도 수확기에 강우에 대비하여 나무 밑에 비닐을 덮어 토양 과습으로 포도알이 타지는 것을 예방한다.



친환경 병해충 관리제

내 가족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누구나 원하는 생활이고,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화학농약 사용은 자제하지만 병충해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시민들 사이에 인기 있는 친환경 병해충 관리제를 소개한다.

■ 가든조아 유기농 텃밭 지킴이 '벌레비커'



인터넷 쇼핑몰 가든조아(www.gardenjoa.com)에서는 천연 종합 살충제 벌레비커를 판매하고 있다.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식물 추출액과 살충성 미생물이 들어 있어 해충 기피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작물 생장에 필요한 미생물을 공급한다. 가든조아에서는 벌레비커 제품을 포함한 유기농 텃밭 지킴이 5종 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곰팡이 잡는 '균비커', 유기농 영양제 '더잘커', 천연토양살충제 '충고', 토양미생물제 '토심이' 가 하나의 세트로 판매되고 있다. 문의 : 031-712-7001

■ 고려바이오 친환경 종합해충관리제 '전원생활'



국내 친환경 농자재의 선두기업 고려바이오(주)(www.koreabio.net)에서는 친환경 종합 해충 관리제 '전원생활'을 시판하고 있다. 전원생활은 천연 식물추출물 100%로 인체에 무해하며, 각종 해충 발생시기에 작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강점. 수확 직전에도 사용 가능하며, 뿌리 내림과 양수분 흡수에도 도움을 준다. 식물을 튼튼하게 자라는 데에도 도와준다. 주말 농장이나 가정 원에서 발생하는 응애나 진딧물, 잎굴파리, 온실가루이, 애가리박지벌레, 벼룩잎벌레 등의 피해에 효과적이다. 사용방법은 400배 희석하여 식물의 줄기와 잎에 직접 살포하면 된다. 고려바이오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 및 영양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의 : 02-6408-5246

절화용인 줄만 알았더니 베란다의 여름 꽃

글라디올러스

글·사진 류제 (파워블로그 류제의 정원 <http://blog.naver.com/bomyunny3>)

글라디올러스는 절화용으로는 유명하나 툴립이나 수선화에 비해서는 화초용으로는 아직 생소한 구근식물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글라디올러스는 키가 크고 다른 구근식물에 비해 웅장하고 색조가 매우 화려한 구근식물이다.

글라디올러스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아름다운 꽃

글라디올러스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붓꽃과의 구근식물로 키가 1m이상으로 크다. 화색은 적색, 핑크, 보라, 주황, 백색 등을 비롯해 심플중으로 녹색, 황색꽃이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글라디올러스는 이런 다양한 색의 꽃이 꽃이삭에 줄지어 피는 자태가 대단히 불만한 식물이다. 꽃이삭이 나오면 한 꽃이삭에서 꽃이 1개씩 순차적으로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개화기도 나뉘는 편이다. 더욱 매력적인 요소는 '키우기 쉽다'라는 점인데 이런 요소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키우기 좋은 식물이다. 특이한 품종으로 키가 30~40cm로 작은 드워프 글라디올러스, 봄 개화 글라디올러스가 있다. 드워프 글라디올러스는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기에 손이 덜 가고, 봄 개화 글라디올러스는 생김새와 재배법이 마치 프리지어와 흡사하며 역시 덩치가 작은 것이 장점이다.

구근은 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

글라디올러스는 툴립 같은 구근식물에 비해 화분 재배용으로는 생소하여 구근을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잘 볼 수 없다. 글라디올러스 구근을 구하려면 봄 3~4월에 인터넷에서 구근 전문 판매 사이트를 찾아 구근을 구입해야 한다. 글라디올러스의 구근은 모든 구근식물 중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은 구근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햇볕은 잘 들고, 바람은 차단되는 곳에 식재

글라디올러스는 키가 큰 식물이고 빛이 부족하면 웃자람이 심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바람이 덜 부는 장소에 심으면 더 좋는데, 이것은 글라디올러스가 키가 크고 뽀뽀한 바람에 꺾이기 쉽기 때문이다. 즉 햇볕이 잘 들고, 구조물에 의해 강한 바람이 차단되는 장소가 가장 이상적이다. 아파트 베란다도 햇볕이 잘 드는 편이라면 글라디올러스를 키울 수 있다.

많은 양의 물과 비료는 오히려 독

글라디올러스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따라서 글라디올러스를 심을 토양에는 미리 몇 달 전에 퇴비를 충분히 주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봄에 구근을 심어야 한다. 구근을 심는 시기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가 좋고, 구근은 10~12cm 깊이로 땅을 파고 심어준다. 너무 얇게 심게 되면 다 크고 나서 쓰러지거나 뽑히는 일이 잦다.

생육 중에는 비료를 많이 줄 필요는 없다. 글라디올러스는 비료분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툴립, 수선화 등 다른 구근 식물보다 개화구를 잘 생산하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웃자라기 쉬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바닥에 누워버리기 십상이다. 글라디올러스를 심은 땅이 원래 척박하다면 생육 중 추가적인 중합 비료를 권장하는 양으로 물에 희석하여 2~4주에 한 번씩 흘려준다. 물은 정원에 심었을 경우에는 어지간한 가뭄이 아니면 줄 필요가 없다. 화분에 심은 포기도 4~6월에 한 번씩 주면 된다.



글라디올러스

지주를 세워주고, 연작에 약한 편

글라디올러스는 꽃대가 자라는 중 쓰러지거나 기울어지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꽃이 나오기 직전 지주를 세워 포기를 지지해 주면 예쁜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쓰러지면 꽃대가 S자로 꺾여서 자라, 보기에도 안 좋고 비바람에 꺾이기도 쉬워진다. 글라디올러스를 포함한 붓꽃과 식물들은 연작(같은 땅에 한 종류의 식물을 매년 심는 것)에 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구근은 매년 가을에 캐어 보관한 후 봄에 다른 땅에 심어준다.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구근도 저렴

글라디올러스는 번식력이 매우 왕성한 식물로 이 번식력 때문에 예라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딱히 구근에 손을 덜 필요가 없이 가을에 잎이 마르고 난 후 구근을 캐면 성냥개비 머리만한 작은 구근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새끼 구근이다. 적게는 5개, 많게는 100개가 넘게 생기므로 번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붓꽃과의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백합과나 수선화과의 식물보다 비교적 작은 크기의 구근에서도 생장이 매우 빠르고 개화가 잘 된다. 성냥개비 머리만한 구근이 개화구가 되는데 2~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듯 번식이 매우 쉬운 식물이다.

연작 및 고온다습 환경에서 애벌레 주의

병충해는 그리 많진 않으나 애벌레가 글라디올러스의 꽃과 잎을 뜯어 먹을 때가 있다. 이런 애벌레는 밤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찾아 제거한다. 그리고 연작하거나 고온다습한 경우 병에 걸릴 때가 있다. 애초에 연작을 하지 말고, 장마철에 살균제를 살포하여 병을 예방한다. 곰나방과 바이러스도 주의해야 한다.

추위에 약한 글라디올러스, 구근 캐서 보관

글라디올러스의 얼마 안 되는 단점 중에는 노지 월동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제주도에서는 잘 하면 노지 월동이 되기도 하나 애초에 연작을 싫어하는 식물이므로 월동이 되는 지역에 심었다라도 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구근은 가을에 잎이 갈색으로 말라버리면 자구와 함께 수습하여 영상 1~10도 정도의 차고에 불까지 보관하였다가 심으면 된다.

베란다에서는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화분에 심은 채로 월동이 가능하다. 단, 봄에는 다른 곳에 심어주면 좋다.

Gladiolus



TIP

재배 테크닉 - 구근을 순차적으로 심는다.

글라디올러스는 여름 고온에 약하지 않다. 때문에 다른 구근 식물과는 다른 번식적인 재배법을 이용하면 원래 개화기보다 오래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근을 순차적으로 3~4월에 심고, 5월에, 6월에 심으면 3~4월에 심은 것이 7월쯤에 개화하고, 5~6월에 심은 것이 8~9월에 개화한다. 글라디올러스의 구근은 매우 싸고 건조에 강하므로, 구근을 많이 사서 몇몇은 바로 심고 몇몇은 1~4개월 이후에 심는다면 여름 동안 꾸준히 글라디올러스를 감상할 수 있다.

Woori Flowers

우리와 함께 꽃의 세계로!



백합, 툴립, 칼라,
글라디올러스, 초화 종자,
화훼플러그 묘

우리화훼종묘(주) 02-503-9094

경기도 과천시 길현동 584-1 Fax, 02-503-9097 www.wooriseed.co.kr



장마 후유증, 식물들이 죽어간다

8월의 베란다 꽃밭관리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긴 장마는 사람도 식물도 피폐하게 만든다. 사람은 긴 장마에 우울증 환자의 수가 늘고, 전염병이나 피부염 환자의 수도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습도는 불쾌지수도 높여 소소한 사비도 잦다고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 긴 장마는 많은 식물들을 병들고 스트레스로 인해 고사시킨다.

[장마 뒤 관리]

상한 식물 정리가 최우선

장마가 지나간 뒤 베란다 꽃밭은 처참하기까지 하다. 과한 습도에 녹아 내린 것들이 많고, 햇빛의 양 부족으로 웃자란 것들도 많다. 일차적으로 상한 식물의 정리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식물의 상한 부위가 원인인지 가지인지 뿌리인지 먼저 살핀다. 잎과 가지만 상한 것이면 상한 잎과 가지 부위만 제거해 주면 되지만, 뿌리가 상한 것은 대부분 포기해야 할 경우가 많다. 보기 싫을 정도로 웃자란 것들은 여러 개로 잘라 삼목하여 개체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병충해 관리이다. 장마 뒤에는 병충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친환경 농약

을 정기적으로 살포해 미리 예방한다. 만약 병충해가 생겼다면 다른 식물과 분리하고 식물의 증상에 맞는 친환경 농약이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저독성 농약을 물에 희석하여 2~3번 정도 살포해 준다. 저독성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뒷면의 사용방법을 숙지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바람을 등지고 살포해야 한다.

뜨거운 태양과의 전쟁 시작, 차광막 준비
장마가 지난 여름은 뜨거운 태양과의 한 판을 준비해야 한다. 과도한 빛은 식물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베란대에 차광막이 없다면 설치해야 한다. 대나무막이나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한낮의 뜨거운 빛은 가려 주어야 하고, 베란대의 공기

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자주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뜨거운 식물을 식혀준다고 한 낮에 물을 주는 이들이 종종 있다. 식물의 잎에 물방울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 잎을 타게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뜨기 전에 주거나 해가 지고 난 후에 주는 것이 좋다.

[식물별 관리]

선인장 상한 뿌리 제거 후 말려서 심는다
다육식물과 선인장은 유난히 장마시기에 피해를 많이 입는 식물이다. 다육식물과 선인장은 빛의 부족으로 웃자라거나 물렁하게 썩어 내린다. 웃자란 다육식물은 맨 위의 부분을 잘라 그늘에서 말린 후 가지꽃이를 하고, 밑에 부분은 잎을 따서 그늘에 말린 후 잎꽂이를 한다. 선인장은 보통 뿌



리부터 썩기 때문에 상한 뿌리만 제거하고 말려서 다시 심으면 된다. 이때 잘라내는 도구는 불에 소독하여 무균상태여야 2차 감염을 피할 수 있다.

다육식물 최소한의 물만 준다

다육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뜨거운 햇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색이 화려하고 선명한 것은 대체로 빛을 좋아하지만,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곰, 개구리, 뱀 등이 겨울잠을 자듯 휴면하는 종류도 있다. 구분을 하여 휴면하는 종류는 생장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만을 주고 비료분은 전혀 주지 않아야 한다.

난 환기를 자주 시켜준다

난 종류는 이 시기에 꽃눈이 생기거나 꽃을 피운다. 신비디움의 경우 꽃눈과 잎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잎눈을 2~3개 정도 남기고 제거해 주면 꽃눈의 성장이 좋아져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또 풍난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강한 빛과 강한 바람을 피하고 환기를 자주시켜 주어야 한다.

관엽식물 직사광선 들지 않는 곳으로 이동

관엽식물은 대부분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 관리한다. 오전에 빛이 들어오는 밝은 그늘이 좋고, 공중의 습도는 높은 것이 좋다.

초화류 누런잎 즉시 제거, 병충해 방제

초화류는 장마 뒤에 잎이 떨어져 흙의 호흡을 방해하고 병충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떨어지는 즉시 제거하거나 누런 잎은 미리 제거해 준다. 초여름 꽃의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이므로 씨앗을 채취·보관하고, 겨울에 꽃이 피는 시네라리아, 프리올러 등은 씨앗을 파종하여 밝은 그늘에서 관리한다.





병충해 방제를 위한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집안에서의 병충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환기가 중요하다. 환경이 건조하거나 습하면 병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물주기도 병충해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잦은 물주기로 흙이 항상 젖어 있거나, 흙이 너무 말라 있어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맥주캔 파묻어두면 민달팽이 닢

실내 정원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충은 민달팽이다. 야행성으로 밤에 주로 활동하며 피해를 준다. 무, 오이, 당근 등 물이 많은 채소의 겹질을 저녁에 흙 위에 올려놓고, 해 뜨기 전에 불을 켜 보면 채소 위에 민달팽이가 모여 있다. 또 마시고 남은 맥주 캔의 손잡이를 제거하고 땅과 같은 높이로 파묻어 놓으면 민달팽이의 닢이 된다.

진딧물 난황유를 활용하면 효과

진딧물과 깍지벌레도 잘 발생하는 충이다. 목초액을 1000배 희석해 정기적으로 분무하거나 난황유로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난황유는 물(100ml)과 계란 노른자(1개), 식용유(60ml)를 잘 혼합한 후 다시 물(20L)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황유는 거의 모든 작물에 병해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온이 낮은 겨울보다는 봄이나 초여름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가든인 6월호 난황유의 효능 참고)

초간단, 방제 효과는 탁월한 은행나무

목초액이나 난황유 외에도 친환경 농자재로 은행나무 잎도 인기가 있다. 은행나무 잎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살균, 살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해충을 막아주고 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고 한다.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의 박멸에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나무 잎은 두서너 개 갈아서 식물의 잎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나무를 활용한 친환경 농자재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은행 껍질로도 친환경 농자재 완성

먼저 은행나무 잎을 갈아서 만드는 초 간단 방법이다. 은행잎을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 채에 거른다. 그 액을 식물의 잎 앞면과 뒷면에 1~2주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된다. 은행나무 잎을 효소로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은행잎을 채취해 은행잎과 설탕을 3:2로 넣고, 3배의 물을 넣어 3개월간 숙성시킨다. 액체만을 걸러서 100~200배 희석하여 사용하면 벌레 퇴치와 함께 식물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은행나무 잎이 아니라 은행 껍질을 활용해 농자재를 만들 수도 있다. 은행 껍질 500g과 소주 1L를 혼합해 밀봉하면, 이틀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가 완성된다. 사용할 때는 100~200배 희석하여 뿌리기하면 된다.

병해충 방제보다는 예방이 최선

이와 같이 가드너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식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민간 요법으로, 그 효능이 검증된 것도,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혹자는 효능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한다.

결론적으로 병해충은 발생하면 방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발생하면 초기에 빠른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병해충은 상태가 좋지 않은 식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식물들의 영양 상태를 항상 체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1. 은행나무 잎을 깨끗이 씻는다.



2. 은행나무 잎을 믹서기에 넣고 나뭇잎의 5~6배 정도의 물을 넣고 갈아 놓는다.



3. 망이 촘촘한 채를 준비해 2를 넣고 거른다.



4. 스프레이로 7~14일 간격으로 방제를 위해 살포한다. 잎의 앞면과 뒷면에 고루 살포해 준다.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친환경 효소 만들기



1. 은행나무 잎을 깨끗이 씻는다.



2. 통을 준비하고 통 안에 은행잎과 설탕을 3:2 비율로 넣는다.



3. 은행잎과 설탕의 3배의 물을 붓는다.



4. 완전히 밀봉해 3개월간 숙성시킨다.



5. 숙성된 원액에 물을 500~600배 희석하여 7~14일 간격으로 살포한다.





화초와 공합이 맞는 실내 공간은 따로 있다

실내 환경에 맞는 공기 정화 식물

글 소순복 기자 / 자료 농촌진흥청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수험생 자녀의 방에 로즈마리 화분 하나 들여놓아보자. 음이온을 발생시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머리로 맑게 한다. 실내에 있는 화분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

6평 규모 실내에는 작은 식물 10개 필요

실내에 많은 화초를 키우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화분은 실내 공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 인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대한민국 중산층 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평형대는 30평형대. 이중에서 거실이 차지하는 공간은 약 6평 정도라고 할 때 적합한 식물의 개수는 10개 내외라고 한다. 농촌진흥청의 김광진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만한 크기의 거실에 놓을 화초는 키가 30cm이하인 작은 식물을 기준으로 10.8개가 좋다. 1m 이상의 큰 식물을 놓을 경우는 3.6개, 중간 크기의 식물은 7.2개가 적합하다. 김 박사는 식물을 배치하는 자리도 각각 다르다고 설명한다. “거실, 주방, 침실 등의 생활공간은 각각 사용목적이 다르고, 또한 식물을 기르기 위한 빛 등의 환경조건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화초를 놓을 자리를 정해준다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공기정화 효과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어 사람에게 더 이롭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밤에 산소 배출하는 다육식물은 침실에

김 박사는 거실에는 남천, 정란,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디펜바키아 등과 같이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식물을 키우라고 권한다. 거실은 온 가족이 사용하는 주요 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보다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거실은 다른 공간에 비해 넓어 식물의 크기도 1m 정도의 키가 큰 식물이 적합하다고. 통풍과 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는 휘발성유해물질(VOC)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이 유용하다. 특히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 중에서 꽃이 피는 식물이나, 허브류, 자생식물 등을 배치하면 보기에도 풍요로운 베란다가 가꿀 수 있다. 팔손이나무, 분화 국화, 시글라멘, 꽃베고니아, 허브류 등을 추천한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수면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밤에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배치해야 하는데,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등이 좋다. 이들 식물은 밤에 탄소동화 작용을 해서 거주자가 잠잘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맑게 한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 주는 로즈마리는 공부방에

공부방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음이온 발생량이 많고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다. 팔손이나무, 개운죽, 로즈마리 등이 대표



실내에 두면 독이 되는 화초

- 옥정향(玉丁香)은 잠자는 방에서 길러서는 안 된다. 이 식물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해물질(VOC)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이 유용하다. 특히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 중에서 꽃이 피는 식물이나, 허브류, 자생식물 등을 배치하면 보기에도 풍요로운 베란다가 가꿀 수 있다. 팔손이나무, 분화 국화, 시글라멘, 꽃베고니아, 허브류 등을 추천한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수면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밤에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배치해야 하는데,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등이 좋다. 이들 식물은 밤에 탄소동화 작용을 해서 거주자가 잠잘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맑게 한다.
- 옥정향(玉丁香)은 잠자는 방에서 길러서는 안 된다. 이 식물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해물질(VOC)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이 유용하다. 특히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 중에서 꽃이 피는 식물이나, 허브류, 자생식물 등을 배치하면 보기에도 풍요로운 베란다가 가꿀 수 있다. 팔손이나무, 분화 국화, 시글라멘, 꽃베고니아, 허브류 등을 추천한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수면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밤에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배치해야 하는데,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등이 좋다. 이들 식물은 밤에 탄소동화 작용을 해서 거주자가 잠잘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맑게 한다.
- 향기가 짙은 톨립은 꽃이 필 때 발생하는 알카로이드가 사람의 신경기관을 흥분케 해 어지럽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 환자의 방에서 꽃을 기르면 안 된다. 화분의 상토에서 생성된 진균의 포자가 실내 공기 중에 확산될 수 있고, 사람의 피부 또는 호흡기 등에 감염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김광진 박사 추천 ‘실내환경에 맞는 공기정화식물’



베란다

휘발성 유해물질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로 빛이 있어야 잘 자라는 식물
꽃베고니아, 시글라멘, 팔손이나무



공부방

음이온 방출과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식물
개운죽, 로즈마리



주방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거실

휘발성 유해물질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로 빛이 적어도 잘 자라는 식물
남천, 디펜바키아,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침실

밤에 공기정화 능력이 우수한 식물
다육식물, 선인장, 호접란



화장실

냄새와 암모니아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
관음죽, 테이불야자



물위의 정원 **수생식물**

여름의 절정인 8월이다. 바다, 계곡 등으로 피서를 떠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가드너들은 무엇으로 위안을 삼을지 고민일 것이다. 집에서 물과 굵은 마사토만 있으면 식재하기 쉬운 수생식물을 키워 보는 것이 어떨까. 지난 호에 이어 수생식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겨울철에 수생식물의 잎과 줄기가 시들고 뿌리만 남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식물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갈아엎거나 뽑아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생식물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이다. 수생식물 전문재배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박범중씨는 “뿌리만 남아있을 경우 물을 채운 상태로 놔둬야 하고, 수련 같은 품종은 실내로 들여놓은 후 기온이 따뜻해지면 다시 베란다 또는 외부로 옮기면 다시 꽃대가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서리 내리기 전까지만 집안으로 들여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수생식물은 수면위로 잎이 거의 없어서 광합성만 안할뿐이다. 일반적으로 수련이 열대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 이때만 조심하면 된다.

수생식물을 키우고 싶다면...장소 고려

수생식물을 키우려면 우선 장소부터 고려하는 것이 좋다. 어디서 키우느냐에 따라 키우는 종류도 달라진다.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장소에 따라 수생식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집 밖의 연못이 있는 정원에 꾸미고 싶다면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연, 수련 등이 적당하다. 온도의 유지와 일조량이 좋은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다면 열대수련, 물간나, 타일리아 등이 좋다. 햇빛이 적은 실내에서 키우고 싶다면 속새류(양치식물)로 속새, 생이가래, 물상추 등이 키

우기 쉽다고 한다.

특히 물상추는 햇빛이 많으면 안 되는 식물로 일조량이 많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박씨는 당부했다. 수생식물 배치가 다소 어렵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물의 배치와 별반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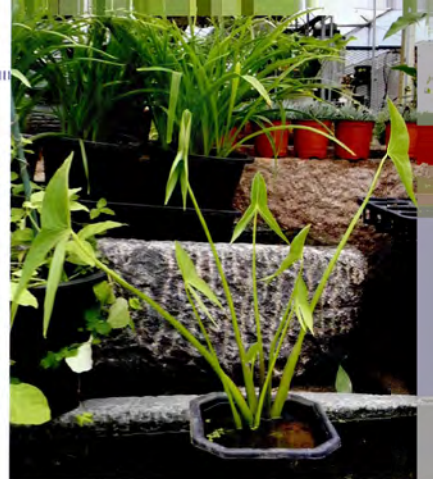
거실이나 베란다에 놓고 감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식재법도 있다. 박범중씨는 보통 키가 큰 식물은 뒤에, 작은 식물은 앞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또 좋아하는 식물은 앞에, 그렇지 않은 것은 뒤에 심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 수생식물 전문점 '물의요정' 앞에 전시된 다양한 식물들



▲ 물위에 뜨는 잎이 수련과 비슷한 '노랑여러민'



▲ 빗물, 연못이나 도랑에서 야생하지만 화분에 심으니 멋지다.

분갈이는 3년에 한 번이 적당

수생식물의 번식은 분주 나누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 하나를 심어 놓고, 관리만 잘하면 4~5개 정도로 번식을 하는 것이 수생식물의 특성이 다. 처음 심을 때는 식물 하나가 넉넉하게 지랄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점점 번식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고 흙의 영양분이 제한되어 꽃을 못 피우게 된다. 잔뿌리가 많아지게 되면 식물은 자체적으로 생육이 제일 약한 것을 공략해 양분으로 쓰여 생육을 유지한다. 보통 올해 식물을 심었다면 번식력을 고려해 다음해에는 무조건 분주하는 것이 좋다. 분갈이는 3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연과 수련... 특성을 알고 키우자

노지에서는 월동하지만 분화용으로 화분에 들어있는 연은 월동이 힘들다.

연을 화분에 심을 때에는 분의 물과 화분이 맞닿는 면에 붙어서 심어야 한다. 연에 붙이는 이유는 연의 뿌리가 밖으로만 도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을 심어 좋은 분의 가운데에 손을 넣으면 잡히는 것이 없고, 벽쪽에 뿌리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물은 바깥쪽부터 어는 특성 때문에 연이 얼어버려 월동하기 힘든 조건을 만들게 된다. 연못에 심었다면 수면은 얼어도 수면아래는 얼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비닐을 이용한 간이 보온재배도 기온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반면 수련은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방사형 형태로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화분의 가운데 심는 것이 좋다. 찬 기온의 물이 화분의 중심으로 올라가려는 시간이 걸리므로 냉해 피해가 적다. 즉 월동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수련은 온대수련과 열대



연이 발아하는 과정에서 물이 탁해지고 약간의 냄새가 나므로, 이틀에 한번은 물갈이를 해줘야 한다. 연은 shoot, 즉 뿌리보다 줄기부분이 먼저 나온다. 이때 바로 흙에 심으면 부패되기 쉽다. 뿌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심어야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 시흥시도시농업촉진에서 전시한 연. 연은 자가수정 회피시스템을 갖고 있다.

수련으로 나눌 수 있다. 열대수련은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고 수온이 18℃, 대기온도 26℃가 되어야 키울 수 있다. 박씨는 14℃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휴면기로 접어들고, 더 내려가면 바로 냉해를 입기 때문에 밖에서 키우기에는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잘만 키우면 열대수련은 3배 이상 크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열대수련은 '사계수련'이라 할 만큼 온도만 잘 맞추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수분시스템이 다른 연과 수련

연은 한꽃에 암술과 수술이 있지만 생식가능한 시기가 서로 달라 수정하기 힘든 자가수정 회피시스템을 가진 식물이다. 박씨는 "수술이 꽃가루를 내보내는 시기와 암술이 꽃가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수정이 안되는 이유라고 한다.

자가수정율이 높지는 않지만 수술이 먼저 영드고, 암술의 발달이 늦은 만큼 늦게 핀 꽃의 화분 암술에 묻히는 인위적 수분이 연꽃의 수정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연의 육종은 쉽다. 반면 자가수분이 되는 수련은 육종하기가 어렵다.



수생식물에 대한 오해

■ 부레옥잠과 물상추는 다년생이다.

물 위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 중 다년생은 없다. 항상 온도가 일정한 열대지방은 생육상태가 고르지만 한국의 기후상 온도가 민감한 수생식물에게는 힘들다. 그래서 집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 연은 집에서 쉽게 발아시킬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집에서 씨앗을 발아시키는 건 쉽지 않다. 씨앗을 받지도 못하고 발아시키지 못한다. 물배추의 꽃은 지름이 5mm 정도 밖에 안 된다. 어떻게 월동을 시키는지 궁금해 한다. 성장이 멈춘 상태가 없기 때문에 못해도 온도가 18°C 이상은 수온과 상온을 유지되어야 한다. 외출하더라도 보일러를 끄면 안 된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은 대기온도가 18°C면 물의 온도가 18°C가 된다는 것이다. 항온기를 담가놓는 경우가 있다.

■ 연을 키우려면 부레옥잠을 키워야 한다.

연이 있는 곳은 웬지 더러운 물들이 가득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정화능력이 좋은 부레옥잠을 같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연은 수생식물 중 가장 정화능력이 좋다. KIST 보고에 따르면 연꽃은 수질정화 능력이 부레옥잠에 비해 약 4배의 질소제거 효과가 있고, 물상추나 마름에 비교해도 약 2배 이상의 질소제거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한다.

How to 연을 발아시키기



1. 연 씨앗(연방)을 보면 왼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튀어나와 있다.



2. 연의 오목한 부분의 껍질을 벗겨주거나 자른다. 사포로 갈거나, 전정가위 또는 뿔찌를 사용한다.



3. 적당한 크기의 물이 담긴 그릇에 담가놓으면 된다. 단 뿌리보다 줄기가 먼저 나오므로 이때 먼저 심지 않는다.



4. 연씨앗을 발아하기 위해서는 약 15°C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빛이 필요하다.

도움말 박범중



박범중 물의요정 연꽃과 수련 대표

(www.watergardens.kr)

경기도 의왕시에서 수생식물 전문 재배 및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조경용 수생식물의 도매와 소매를 하고 있는 경력 10년의 수생식물 베테랑이다. 또 직접 농장에서 모종을 키워 판매하고 있다.

문의 : watergardens@daum.net 031)426-1259

<바로잡습니다>

지난 7월호 수생식물 기사에서 '유박을 물속에 넣어두면 역삼투압을 초래해 양분을 내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양분이 아닌 뿌리안의 물이 빠져나가므로 뿌리 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해야 맞습니다.

Step By Step

간단한 수생식물 DIY



1. 먼저 집에서 집에서 지름 20~25cm 되는 못 쓰는 그릇 있으면 준비한다. 사 용한 장독대 뚜껑은 소금기가 있으므로 사용금지품목이다.



2. 방동사나리를 용기 면에 붙이고 굵은 마사토를 깔고 그릇에 물을 붓는다. 시페루스도 좋은 소재이다.



3. 앞쪽에 식재할 애기마름, 번식력이 매우 좋은 식물이다. 또는 워터고인, 물양귀비, 어린연도 배치하기 좋은 소재다.



4. 황토흙을 사용해 애기마름이 물에 뜨지 않게 눌러주면서 흙을 뿌리고 그 위에 마사토를 사용해 고정시킨다.



5. 한곳에 집중적으로 적당한 압력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 깨끗하게 물채우는 방법이다.



6. 완성된 수생식물 DIY. 물과 초록색 식물의 균형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Special Item

물양귀비

Hydrocleys nymphoides [아외정원]
초록색 둥근잎의 노란꽃잎이 3장 피는 수생식물로 물에 떠서 산다.

수련

Nymphaea tetragona [아외정원]
잎자루와 꽃자루는 깨끗하고 꽃잎은 낮에 피고 밤에 접힌다.

노랑머리연

Nymphoides peltata [아외정원]
오이꽃과 비슷한 밝은 황색이며, 잎은 수 잎과 비슷하다.

물양귀비

Ranunculus flammula [아외 및 배란다정원]
작은 노란색의 꽃으로 꽃잎이 광택을 갖고 있어 반짝거리는 것이 특징이다.

정원별 심기 적당한 수생식물

워터로인

Hydrocotyle umbellata [실내정원]
잎이 500원 크기의 동전 모양이고, 꽃은 흰색으로 꽃대에 여러개가 핀다. 번식력이 좋다.

가리나박

Hydrocharis dubia [실내정원]
꽃은 자웅이화인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부유성 수초. 백색꽃이 큰 잎부분에 노란빛이 돈다.

매기수련

Nymphaea minima [아외 및 배란다정원]
지름 3~5cm의 흰색 꽃으로 꽃받침은 4개의 긴 타원형이다. 잎은 뿌리에서 나고 물위에 뜬다.

물아카시아

Aeschynomene thwaitesii [실내정원]
꽃은 노랑색으로 아카시아꽃을 닮았고 7월경부터 피기 시작한다.

연

Nelumbo nucifera Gaertn. [아외정원]
수련과 달리 물위로 잎이 솟는다. 7~8월에 꽃이 피고 1송이씩 핀다.

시퍼루스 질레리

Cyperus hollieri Max [실내정원]
난초를 연상케 하는 수초로 곧고 가는 수초잎이 매력적인 것이 특징이다.

워터로인

Lysimachia nummularia [아외 및 배란다정원]
진한 노란색 꽃 크기는 100원 동전 정도이다. 아래로 늘어지는 특성으로 천장이나 벽에 걸어도 좋다.

흰머리연

Nymphoides indica [아외 및 배란다정원]
잎은 물 위에 뜨고 심장모양이다. 꽃은 흰색바탕에 가운데는 황색이다.

Gardenin August 2013

자외선이 피부를 태운다



바캉스 기간이다.

하지(夏至)가 지난 태양고도는 가장 높다. 여름의 강렬한 태양은 뒷발을 가꾸는 가드너에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노화와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피부를 예방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김 씨 (45세, 여)는 주말마다 서울 세곡동에 있는 주말농장에 간다. 최근 비가 자주 오고 햇빛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에 농작

업 시 모자와 선크림을 하지 않은 채 장시간 일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얼굴 피부에 기미와 주근깨가 일어나 피부과를 찾았다. 원인은 자외선에 따른 피부질환. 장마로 인해 햇빛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의 태양은 강한 자외선을 갖고 있다. 이달에 피부나 눈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외선은 피부노화의 주범

자외선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수분부족으로 인한 피부의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피부 노화는 햇빛과 바람, 기타 환경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시에 발생한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의 75%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주름과 건조를 유발한다.

자외선은 5월부터 9월까지가 높은 시기이다. 날씨가 흐리다고 방심하면 금을,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자외선이 약할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 구름이 낀 날은 자외선이 구름에 산란되어 날씨가 맑은 날보다 오히려 증폭되기 때문이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막자

우선 자외선을 피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 보통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다.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철이라도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자외선이 약하다.

Vitamine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과일 순위



1위 파프리카 (280 mg)



2위 고추 (200 mg)



3위 딸기 (52 mg)



4위 오렌지 (50 mg)



5위 레몬 (40 mg)



6위 포도 (10 mg)



7위 사과 (6 mg)



8위 수박 (5 mg)

(단위 : 100g 당)

Wow!



비타민C가 높은 채소 '감자'

생채소를 먹으면 100%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지만 쟁채류를 제외하고 그 종류는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감자는 예외이다. 감자의 비타민C는 100g 당 3mg으로 단감의 3배, 사과의 6배나 된다. 특히 다른 채소들은 가열하게 되면 비타민C의 파괴가 크지만 감자는 파괴되는 양이 적다. 감자의 성분은 녹말, 즉 전분이지만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하기 때문에 가열에 의한 손실이 적다. 이 외에도 감자는 칼륨(K)이 풍부해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 비타민C 성분이 철분을 흡수해 빈혈예방에도 좋다.

정원 속 작은 생명체 다육식물

하월시아 Haworthia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 대선농원(www.suncactus.com)

장마가 끝났다. 고온의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아무리 다육식물이라 해도 이 열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집에 있는 다육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경기도 일산의 어느 다육식물 시설재배하우스. 두 겹의 차광망과 바쁘게 돌아가는 환풍기의 소리가 하우스 안을 가득 메운다. 이런 시설의 장단에 맞춰 재배되는 다육식물은 생육을 위해 바쁘게 광합성을 위한 푸르스름한 색깔을 뽐내고 있다. 부자(父子)가 운영하는 이곳 농장에서는 다양한 다육을 키우고 있지만 하우스 한 칸에 모여 있는 다육식물인 '하월시아'가 눈의 띈다. 하월시아는 일반적으로 알로에과라고 알고 있지만 분류학으

로 따지면 백합과이다.

다육질이 두꺼운 진정한 다육

하월시아속은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이다. 대부분 로제트(Rosette, 줄기에 잎들이 달려 땅에 넓게 퍼지는 형태)형의 모습으로 두껍고, 물을 많이 머금어는 모습이다. 농장대표 이현석(37)씨의 아버지인 성구(71)씨는 "보통 에케베리아속 등의 크라슐라과보다 하월시아가 다육질이 두껍다"고 말했다. 이 속은 여름에는 휴면을 갖는 동형다육식물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즉 9월~5월까지가 성장기이다. 그래서 여름에 휴면이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개화기는 봄부터 여름초까지 지속된다. 보통 하얀색 꽃이 로제트 중앙에서 올라온

다. 전문가들은 생육을 위해서 꽃을 감상한 후 꽃대를 잘라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생장 속도가 느리므로, 오래 두고 키우는 재미가 있는 품종”

하월시아...생장속도 느린만큼 비싸다

하월시아는 다른 다육과는 달리 재배기간이 매우 긴 품종 중에 하나다. 일반적인 다육식물의 생육속도의 1/10정도 된다. 종류에 따라 성체의 아를 다음을 느끼려면 최소 7년 이상을 키워야 한다.



▲ 초록색의 줄이 있는 것만 광합성을 한다. 이 때문에 광합성 속도가 느린 이유이기도 하다.

크기가 7~8cm 정도 될 때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하월시아 품종의 단점이자 장점인 부분이다. 이현석씨는 만상, 옥선 등은 10cm가 되려면 10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월시아는 우선 뛰어난 자태를 보이는 품종을 선발해 모친의 역할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모친을 결정하는지가 뛰어난 하월시아를 탄생케 하는 이유가 된다. 여러 선발을 거치고 교배를 하게 되면 결국 원종과는 다른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게 된다. 새로 탄생한 명품의 자구원하는 품종의 삼구(三句)를 얻기 위해서 하월시아 매니아들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하월시아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씨는 "하월시아는 이렇게 생육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다육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격이 높은 이유를 이야기 한다. 그래서 자구가 형성될 즈음 구입하기 위해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독특한 무늬를 보는 것이 관상 포인트

같은 만상이라도 독특하고 뛰어난 문양에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일본문화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높은 가격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월시아는 파종해서 처음 발아된 모양은 형태가 별 볼일 없다. 하지만 신엽이 나오면서 잎 위의 전혀 다른 잎 텍스처가 형성된다. 이런 무늬가 형성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 하월시아를 키우는 재미가 된다. 특히 무늬가 희한할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한다. 하월시아 재배의 메카인 일본의 애호가들은 40년 이상을 키운 명품 하월시아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비록 하월시아 속이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보초, 수, 심지어 권, 옴투사 등의 저렴한 보급형 하월시아도 있다.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하다

전문적인 재배농가에서는 직사광선 노출을 막기 위해 차광시설이 되어 있다. 특히 하월시아 속은 다육식물 중 유일하게 반그늘에서 자라는 품종으로 차광막이 필요하다. 이씨에 따르면 약 60%의 차광이 필요할 정도로 빛을 직접 쬌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빛에 자주 노출시켜야 하는 부담이 적어 집에서 키우기 쉽다는 얘기이다. 하월시아 속은 에케베리아 속과 달리 분무기로 물을 뿌려줘도 잎 자체가 단단하고 두터워 잎이 썩지 않는다. 물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햇빛이 잘 드는 실내 창가, 거실의 창가 주변에 키우는 것이 적합하다. 또 하월시아는 다른 다육보다 잘 발달되어 있다.

엽상보다는 근심이 잘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흙은 보통 마사토와 배양토를 혼합해 사용하지만 적옥토, 녹토 등도 가격이 5~10kg에 2만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모래와 자갈, 펄라이트, 부엽토, 훈탄 등을 혼합해 쓰기도 한다.

다양한 무늬를 보고, 오랜 기간 동안 키워 무늬를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하월시아를 추천한다.



발아까지는 3~6개월, 어느 정도 얼굴을 알아보기까지는 2~3년 정도이다.



하월시아의 관상포인트는 위에서 본 무늬(상)와 옆에서 보는 무늬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TIP

하월시아 저면 관수법

대부분의 식물을 키우면 관수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평소 물주기는 잎이 푸글푸글해진 느낌이 들면 저면관수를 하는 방법이 좋다. 저면관수는 큰 그릇에 물을 담은 후 화분을 그릇에 화분의 1/2 또는 1/3 정도가 잠기도록 하여 화분의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관수하는 방법이다.



도움말 이현석

대선농원 대표, 부친 이선구씨가 시작한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선농원은 1988년부터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판매 및 수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등 세계 20여개국과 거래하고 있다.

문의 : 031-913-8522
sklee@suncactus.com
www.suncactus.com

하월시아 Haworthia

콤포토니아



Haworthia Comptoniana
삼각형 모양으로 잎이 자라는 종으로 흰 줄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모여 있다. 마치 별 모양의 장미를 연상케 한다. 노지에서 자랄때는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분설(피그마에아)



Haworthia Pygmaea
작은 돌기가 잎의 표면을 덮고 있어 마치 설랑을 뿌린 듯한 모습이 일품이다. 하월시아 품종 중 자구 생산을 잘하는 편이다. 다양한 변이종들이 있다.

베누스타



Haworthia cooperi var. Venusta
하월시아 품종 중 잔털이 가득한 특이한 품종이다. 다양한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투명한 잎에 부드러운 털이 살짝 보이는 것이 매력이다.



Haworthia maughani
5~8개의 잎을 수평으로 절단한 듯 평편하다. 절단되어 보이는 붉은 흰 무늬가 있다. 이 무늬는 어미의 개체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계보를 들 수 있다고 한다. 엽색은 진초록이며,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Haworthia truncata
x *Haworthia retusa*
육선과 비슷해 보이지만 잎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잎이 단단한 플라스틱 질감을 갖고 있다. 백색바탕에 회색줄 무늬가 있고, 꽃대는 높이 자라며 백색의 작은 꽃을 피운다.



Haworthia truncata
백색바탕의 회색줄무늬가 있는 육선은 잎의 정렬이 일자인지 잎 끝의 창에 어떤 무늬가 있는지에 따라 이름과 가격이 다르다. 잎 중간에 칼로 자른 듯 납작한 표면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백색의 작은 꽃을 피운다.



Haworthia cymbiformis var.
올투사의 변이종이다. '미니보초'라고도 부르는 올투사 원종은 소형종으로 작다. 잎 끝의 창이 속이 보일 듯 투명하고 꽃대가 높이 올라 백색의 작은 꽃을 피운다.



Haworthia bolusii var.
볼루시의 변이종이다. 반투명한 잎 안에 마치 불빛을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약간의 가시가 있지만 따가울 정도는 아니다.



Haworthia picta
무늬가 거칠어 보이는 매력 있는 품종으로 돔 형태를 띠고 있다. 잎의 두께가 꽤 있고, 분홍빛이 감도는 것이 매력이다.



Haworthia fasciata
잎의 뒷면에 백색선이 입체적으로 있다. 4~6월에 개화기로 꽃대를 높이 올리고 백색의 작은 꽃을 피운다. 줄기가 없고 지름 8~10cm의 로제트를 이룬다.



Haworthia Antoinette var.
올투사와 만상의 조합으로 탄생한 명품. 바탕색은 일반 만상보다 약간 밝고, 얼룩 투영감은 만상 금보다 훨씬 높다. 만상 금보다 인기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5일간 열린 무주군 반딧불이 축제에 발광하는 애반딧불이

여름철 밤을 밝게 수 놓는 곤충 반딧불이

여름철 논이나 계곡에서 밤이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반딧불이를 언제부터인가 보기가 힘들어졌다. 양초도 없는 예전에는 반딧불이를 병에 담아 등불로도 사용했다는 일화가 있다. 여름을 수놓던 반딧불이를 찾아 떠나보자.



과거에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반딧불이. 이제는 도시를 커녕 농촌에서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반딧불이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딧불이는 딱정벌레목이다. 딱정벌레라 하면 키틴(chitin)질의 딱딱한 껍질로 구성된 갑충이다. 이 목(目)에 속하는 반딧불이는 세계적으로 약 2000여종의 반딧불이가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똥벌레'라고도 부르는 반딧불이는 약 2년의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유충으로 보낸다. 매미처럼 여름에 약 15~30일 정도만 성충으로 산다.

반딧불이는 성충이 되었을 때 수컷과 암컷 모두 두 쌍의 날개를 갖지만, 어떤 종의 암컷은 날개 없이 유충으로만 사는 것도 있다. 몸의 형태는 납작하고, 색깔은 어두운 갈색 또는 검정색이다. 복부는 노랑색, 주황색, 연두색 등의 색깔의 빛을 내는 구조가 있어 다른 곤충들과 구별된다. 보통 유충일때 빛을 내지만 국내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성충일때 빛을 낸다.

반딧불이의 빛...생존을 위한 표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반딧불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자신을 위협하는 천적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반딧불이의 몸에는 고약한 맛이 나는 물질이 있다. 이것은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중요한 것은 암컷과 수컷의 짝짓기를 위한 신호로 사용한다. 반딧불이를 관찰하면 다른 종 간에는 색깔이 다르고, 모르스(Morse) 신호처럼 불빛의 횟수와 간격이 종마다 모두 다르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효율적 전구라도 100% 빛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반딧불이는 열로의 손실이 없는 완벽한 에너지 손실 없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 곤충이다.

"지속적으로 광을 발산하는 늦반딧불이는 9월 말까지 확인가능"

국내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꽃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큰살색반딧불이, 복방반딧불이, 왕꽃반딧불이 등 3과 6속 8종의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등의 4종만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중길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남극을 제외하고 전세계에 분포되고 있다. 반딧불이 연구역사가 깊은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약 40여종 종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은 겨울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기에는 좋은 조건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출현시기는 각각 다르다. 가장 먼저 출현하는 운문산반딧불이는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나타난다. 애반딧불이는 6월 초순부터 7월 하순까지, 늦반딧불이는 이듬해 가장 늦은 7월 하순부터 9월 말까지 관찰되고 있다. 발광 형태도 종마다 조금씩 다르다. 늦반딧불이는 지속적으로 강한 광을 내는 발광양상을 타나낸다. 애반딧불이와 운문산반딧불이는 깜빡거리는 점멸성 발광양상을 띠는 특성을 갖는다. 빛을 내지 않는 꽃반딧불이는 낮에 많이 활동한다.

청정지표곤충...반딧불이 품종에 따른 서식지 변화

반딧불이의 서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생물종이 이루어진 곳으로 생물 상호간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특히 반딧불이는 먹이사슬에서 위에 있는 편이다. 밑에 하부구조가 약하면 생태계 구조가 무너지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김박사의 설명이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복원도 힘들고, 환경적으로



남산공원의 반딧불이 서식지



로 환경지표곤충으로 지정되고 있다.

특히 애반딧불이는 토양과 수질이 청정한 곳을 선호한다. 애반딧불이 유충의 대부분은 논, 용수로와 습지, 저수지 등의 하천 계단식 논에서 서식한다. 이곳에서는 성충의 휴식 및 비상(飛上)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농약 등의 오염이 없는 수질이 여야 하고 여름에는 약 20℃전후, 겨울에는 약 10℃ 전후의 수온이 적당하고 최고 25℃ 이상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유충이 완만하거나 흐름이 정지된 상태가 좋고 수심은 50cm이내가 적당하다. 또 진흙층 또는 모래나 자갈, 작은 돌과 낙엽이 다소 쌓인 바닥이 좋다. 수변환경으로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생식물과 낙엽활엽수 및 이끼가 자라는 환경이 적당하다. 이런 환경이 반딧불이의 산란 및 부화장소로 사용된다.

반딧불이 보존을 위한 인천의 노력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인 무주는 약 130,838㎡의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2002년에는 설천면, 무풍면, 무주읍의 마을 세 곳이 반딧불이와 그 먹이(다슬기)서식지로 명칭을 변경해 확장 지정됐다. 이런 서식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딧불의 먹이인 다슬기, 고등류, 달팽이류 등의 서식지까지 함께 지정해 관리보호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는 애반딧불이를 남산, 노들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고덕수생태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5곳에 4천7백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반딧불의 보존과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전국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열고 있다. 특히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인천 계양산에서 확인된 반딧불이 서식지

등 3종의 서식지를 형성하고 보호하고 있는 무주는 매년 6월경에 애반딧불이를 출현 시기에 맞춰 무주반딧불축제를 열고 있다.

무주에 이어 반딧불이 보전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곳이 인천이다. 인천은 2008년부터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작해 왔다. 인천시 환경정책과 이상희씨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 인천 계양산 북사면 근처와 만월산 인근 하천변에서 3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인천 서식지에서 454개체가 발견됐다고 한다. 2010년부터 반딧불 보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인천은 반딧불이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봉사자를 양성하고, 계양산반딧불이축제 사업비를 늘리고 있다. 이런 인천시의 노력의 결과 지난해 인천대공원 습지원과 옥상동 나비농장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했다.

여름밤을 빛내는 반딧불이 BEST 3



늦반딧불이

국내에서 가장 큰 종으로 출현시기가 일반적으로 8월~9월이며 일몰 후 출현을 시작해 약 1시간 정도 빛을 발광한다. 크기는 암컷이 20mm, 수컷이 15mm내외이며 암컷은 날개가 퇴화되어 흔적만 남아 있어 날지 못한다. 성충 수명은 약 15일 정도이고 발광 형태는 지속적으로 광을 내는데 분당 15~20회 정도이다.



애반딧불이

애반딧불이는 수서종으로 성충은 6월부터 7월까지 활동한다. 암컷은 출현 후 1~3일만에 교미를 하면서 사난을 몇 회에 걸쳐 이끼나 풀의 틈에 알을 낳는다. 알은 약 29~25일 정도이면 부화를 하고 부화된 1령 유충은 물 속으로 들어가 약 10개월동안 생활을 한다. 물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물달팽이, 다슬기 등을 먹으며 자라게 된다.



운문산반딧불이

국내에서 가장 빨리 출현하는 종으로 주로 5월 하순경부터 출현하며 지역에 따라 7월 중순에 출현하기도 한다. 주로 계곡류나 하천 주변 산기슭에서 나무 군락이 형성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서식한다. 크기는 10~14mm로 애반딧불이보다 약간 크고 암컷은 국내의 서식하는 다른 반딧불이와는 달리 크기가 수컷보다 작다.

Information



8월의 반딧불이 Festival

제 6회 인천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2013. 8. 31>

인천시는 인천 계양산에 서식하고 있는 늦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6년전 부터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식 오후 3시부터 계양역 광장에서 반딧불이 체험부스와 인공증식 중인 살아있는 애반딧불이를 전시한다. 또 매일 밤 계양산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 탐사도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인터넷 (<http://cafe.naver.com/gyeyangsan>)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딧불이 구조

반딧불이는 머리, 배, 등 3마디의 몸체로 나뉘며, 한쌍의 더듬이, 눈, 3쌍의 다리, 2쌍의 날개를 갖고 있다. 날개의 경우 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암컷의 경우 완전히 퇴화되어 흔적만 남거나 속 날개만 퇴화되어 한쌍의 날개만이 존재한다. 파파리반딧불이는 다른 곤충들과 다르게 고유한 몸체의 특징을 발광 부위로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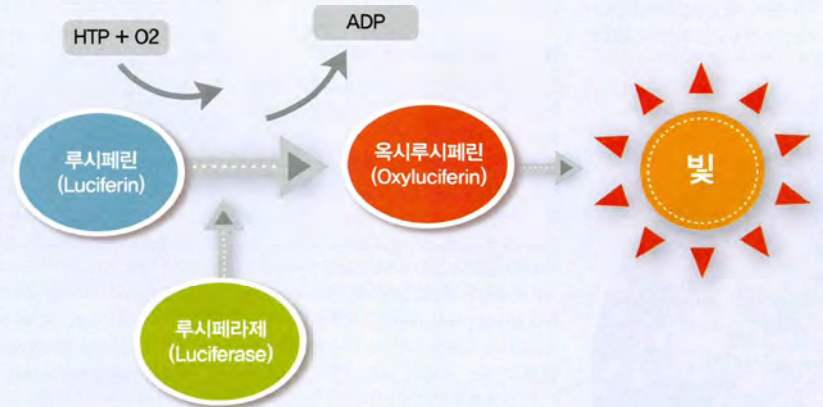
발광 부위는 반딧불이의 암컷은 일반적으로 배 부분 6번째 마디에서 발광하며, 수컷의 경우 배의 6번째와 7번째마디, 2마디가 발광한다.



빛을 내는 방법

반딧불이의 빛을 반딧불이 배 부위에 있는 발광세포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루시페린이라는 화합물질이 생체에너지인 ATP와 루세페라제라는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옥시루시페린과 빛을 발한하게 된다.

* 수컷은 배의 6, 7번째마디에서, 암컷은 6번째 마디에서 빛을 낸다.





글·사진 장기원 농학박사 (한국식충식물연구소 소장)

화려함 속에 감춰진 죽음의 덫 끈끈이주걱

이슬처럼 반짝이는 촉촉한 유혹, 그 유혹은 바로 죽음의 손짓이다. 끈끈이주걱은 햇빛을 받으면 이슬처럼 반짝거리며 벌레를 유인한다. 덫에 걸린 곤충을 움푹달랴 못하게 감싸고, 소화액으로는 곤충을 녹여 버린다. 벌레잡이식물, 육식식물이라고도 불리는 식충식물의 대표 종 끈끈이주걱을 소개한다.

식충식물은 전 세계에 약 600여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120여종이 끈끈이주걱 속(*Drosera*)에 속하며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식충식물 11종이 있다. 끈끈이주걱은 여러 식충식물 가운데 대표적인 종이며 매우 아름다운 종이다. 대부분의 종은 다년생 초본식물이지만 몇몇의 종(*D. burmannii* 등)은 일년생이다. 대부분의 열대 종은 일년 내내 자라지만 몇몇 종은 특히 고경 끈끈이주걱과 피그미 끈끈이주걱은 휴면기를 갖는다. 그들은 열대에서 한대까지 혹은 습윤한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까지의 모든 기후에서 잘 자란다.

주걱모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

국내에 자생하는 끈끈이주걱은 잎이 주걱 모양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잎의 표면 위와 가장자리는 많은 선세포로 덮여 있다. 선세포 끝에 있는 머리털 같은 가는 실이 선모이다. 선모 끝에는 선세포가 분비하는 매우 끈적끈적하고 점착성이 있는 투명한 끈끈이액이 이슬처럼 맺혀 있다. 이러한 이슬 같은 끈끈이액은 끈끈이주걱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며 햇빛을 받으면 이슬처럼 반짝거리며 벌레를 유인하여 잡는다.

꽃 화려한 길러온 곤충 유인

꽃은 하나씩 피거나 송



이로 핀다. 꽃잎의 색깔은 흰색, 연분홍색, 빨간색, 노랑색 등으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종은 자가수분을 하여 많은 종자를 생산하지만 어떤 종(*D. scorpioides*, *D. prolifera* 등)들은 타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인공수분을 시키지 않으면 결구 종자를 생산할 수 없다.

덫 선모 끝 달콤한 이슬이 독

끈끈이주걱의 선모는 잎의 가장자리에 나있는 것이 가장 길고 중심에 있는 것일수록 짧다.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은 선모 끝에 맺혀 있는 작은 물방울인 끈끈이 액을 꽃의 달콤한 꿀로 착각하여 이것을 먹기 위해 잎 위로 내려앉는다. 이때 곤충이 당황하여 도망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곤충의 다리와 날개에는 더 많은 끈끈이액이 묻게 된다. 잎 가장자리에 있는 선모는 곤충의 탈출을 막기 위해 안쪽으로 구부러져 도망가지 못하게 더욱 단단히 곤충을 감싸버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잎도 곤충을 감싸는 운동을 일으켜 수많은 선모가 효율적으로 곤충을 감싸버린다.

영양 곤충의 양분을 체내에 공급

끈끈이액속에 들어있는 소화액이 곤충의 부드러운 부분을 녹여버린다. 이러한 소화액은 선세포로부터 분비되며 강한 산성 상태(pH 2~3)로 단백질을 분해한다. 사람의 위의 기능과 매우 비슷하다. 소화액에 의해 녹은 곤충의 양분은 선모나 잎의 표면에 있는 선세포에 의해 식물체내로 흡수되어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양분을 체내에 공급한다. 호흡이나 성장을 왕성하게 하고 개화 후 종자의 결실을 잘 맺도록 한다. 먹이의 소화가 끝나면 선모는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소화 후 남아있는 벌레의 찌꺼기는 비나 바람에 의해 없어지고 혹은 남아있는 것은 다음의 먹이에 무서운 경고임에 틀림없다. 끈끈이액은 다시 형성되고 잎은 다시 먹잇감을 잡기위해 준비를 한다.

곤충 죽음

끈끈이액이 호흡구멍을 막아 질식사

끈끈이주걱에 잡힌 먹잇감은 보통 그들이 복부를 따라 있는 호흡구멍이 끈끈이액에 의해 막혀질 때 질식사하게 된다. 그리고 꾸짖모기와 같은 보다 큰 곤충은 때때로 그들의 길고 가는 다리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몸은 어찌할 도리 없이 잎 아래로 매달리게 된다. 이러한 희생자는 굶주림과 극도의 피로로 죽게 된다. 때때로 보다 큰 곤충들은 몇 개의 다리만 잃고 탈출하지만 결국 죽는다.

토양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혼합

끈끈이주걱은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3으로 혼합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창문을 거쳐 들어오는 햇빛이 좋으며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아야 한다. 여러 해 동안 한 화분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화분에 두꺼운 이끼가 끼면 걸러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 주면 좋다.

건강 끈끈이액으로 상태 체크

끈끈이주걱의 선모에 끈끈이액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건조한 장소에서 재배했거나 식물이 쇠약했을 경우이다. 대체로 오전과 밤에 끈끈이액의 형성이 잘 되며 낮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혀 끈끈이액이 안 만들어지고 잎이 마르면 이때는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 투명한 플라스틱 컵으로 덮어주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병을 적당히 잘라 덮어주면 좋다. 생육이 회복되면 서서히 뚜껑을 열어준다. 식물의 건강 상태는 끈끈이액의 형성 정도에 따라 알 수 있다.

TIP

식충식물이 벌레를 잡는 이유

식충식물은 벌레를 잡지 못해서 벌레로부터 양분을 얻지 못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식충식물의 잎은 일반식물의 잎처럼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여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광합성을 하여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벌레를 잡는 이유는 대부분의 식충식물의 자생지 토양은 질소성분이 적은 척박한 산성토양이다. 이러한 척박한 토양에서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 구성 성분인 질소 성분 등 충분한 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벌레를 잡아 부족한 질소 등 양분을 흡수함으로써 보충해야하기 때문이다. 식충식물은 뿌리를 통한 양분 흡수 능력은 거의 퇴화되었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 일지라도 식충을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다.

물주기 위에서 주면 죽을 수도 있다

물을 줄 때는 위에서 주면 안 되며 화분의 흙에 조심스럽게 주어야 한다. 화분의 흙이 물에 튀어 잎에 붙으면 벌레만줄 알고 선모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심하면 성장이 억제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에 화분 받침을 놓고 여기에 물을 넣어 화분의 배수구로부터 물이 흡수되게 하는 방법(底面灌水)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번식방법

종자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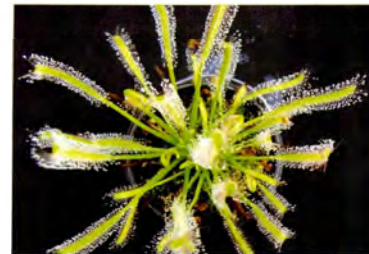
대부분의 종은 자가수분을 하여 많은 종자를 생산하지만 어떤 종들은 타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인공수분 없이는 결구 종자를 생산 할 수 없다. 종자는 수분 후 3~5주안에 성숙한다.

잎꽃이(葉挿)

끈끈이주걱을 번식시키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거의 모든 종에서 가능하다. 잎 꽃이는 생육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잎에 연병을 붙여 꺾꽂이를 하면 성공률이 높다.

뿌리 꽃이(根挿)

D. adalae, *D. prolifera*, *D. hamiltonii* 그리고 *D. binata* 등은 뿌리 꽃이에 의해 번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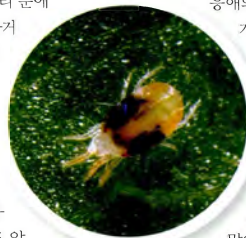
Season Theme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응애

충북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 차병진



거미와 한 집안인 응애는 제 사촌인 진드기보다도 매우 작아서 맨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응애를 보려면 적어도 돋보기 정도는 준비하여야 한다. 자세한 모양을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런 응애 중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식물을 먹고 산다. 즉,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도 식물에는 엄청난 응애들이 꼬물거리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응애는 사람에게서는 해를 끼치지 않으니 일단은 안심해도 된다. 식물에게는 해를 끼치면서 사람에게서는 해를 주지 않는 것은 비단 응애뿐만은 아니다. 어떤 병원균이나 곤충이든 식물에 기생 또는 섭식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을 일은 아니다. 응애가 작다고 우습게 볼 일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놈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놈들 때문에 식물체 전체가 말라죽기도 한다. 작은 거인, 그래, 그거다. 응애는 작은 거인이다.



점박이 응애

어른이 되면 엽록소를 가해하는 해충

응애는 대부분 잎 뒷면에 알을 낳고 서식하며 거미줄 같은 가느다란 실을 뽑아내어 잎 앞면 또는 가장자리를 뒀는다.

응애의 한살이는 매우 짧아서, 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 짧게는 닷새, 길게는 20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응애가 대발생하기 쉽다. 응애는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흡즙성' 해충인데, 식물의 엽록소까지 모두 빨아 먹으므로 응애가 즙을 빨아 먹은 자라는 아주 작은 노란색 점으로 남는다. 잎 한 장에도 무수히 많은 응애들이 꼬물거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란 점의 수도 잎 전체에 걸쳐서 매우 많이 존재한다. 심하면 갈색으로 마르고 결국 떨어진다. 응애는 종류가 매우 많으며, 거의 모든 식물을 가해한다. 원예식물을 가해하는 응애도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응애들을 여기 소개한다.

따뜻함을 좋아하는 점박이응애 (Two spotted spider mite, 학명 : *Tetranychus urticae*)

성충의 경우 암컷의 몸길이는 0.5 mm, 수컷은 0.4 mm 내외이며, 몸은 옅은 누런색 내지 누런 녹색이며, 좌우에 1쌍의 검은 무늬가 있어서 '점박이응애'라고 한다. 이것은 무늬라기보다는 위 속에 있는 내용

물이 비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먹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월동성충은 검은 무늬가 없이 모두 붉은 누런색이다. 알은 둥글고 옅은 누런색이며, 알에서 부화한 약충의 몸은 옅은 색이다. 점박이응애는 가정에서 많이 재배하는 장미를 비롯하여 화훼류, 채소, 잡초 등 수 많은 식물을 가해한다. 주로 잎의 뒷면에 번식이 나타나며, 앞면에는 피해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피해가 심해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해부위에는 흰색의 작은 반점이 남으며, 피해가 심해지면 잎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일찍 떨어진다. 잎 뒷면에는 응애가 살

아 움직이고 있으며, 자세히 보면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응애의 탈피각이다. 상온에서는 알부터 성충까지 10일 정도 걸리므로 조건이 좋을 때는 밀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한 해에 열 번 이상 발생할 때도 많다. 자연에서는 수정한 암컷성충이 나무껍질의 틈이나 지면의 잡초, 낙엽 등에서 월동한다. 주로 잡초에서 증식하며, 잡초가 말라죽으면 장미로 이동한다. 온도가 낮아지고 해가 짧아지면 휴면하며, 성충으로 무리지어 겨울을 난다. 실내 등 따뜻한 곳에서는 연중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점박이로 인한 피해

작고 가버워 전파 잘하는 차응애 (Tea red spider mite, 학명 : *Tetranychus kanzawai*)

몸 전체가 적갈색을 띠기 때문에 점박이응애와는 쉽게 구분된다. 여름형 성충은 암컷이 0.4 mm, 수컷 성충은 0.3 mm 정도이다. 몸 옆면에는 불규칙한 검은 무늬가 있으며, 휴면 중인 암컷은 붉은 색을 띤다. 차응애는 간자와 응애라고도 하는데, 화훼류나 관엽식물은 물론 채소류와 약초까지 가해하는 주요 해충이다. 전국 각지의 딸기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딸기 재배지 부근의 화훼류 농장들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피해를 받은 잎은 표면에 흰색의 굵한 듯한 증상이 나타나며 잎에 생기가 없어지고 다갈색으로 된다. 심하면 잎 전체가 오그라들며 결국에는 말라죽는다. 야외에서는 주로 한여름에 많이 발생하지만, 온실이나 실내에서는 연중 발생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실내나 온실 등 따뜻한 지역의 시설 내에서는 휴면하지 않고 계속하여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노지에서는 휴면 상태의 암컷 성충으로 월동한다. 월동 성충은 3월 상순 이후 몸이 적갈색으로 변하여 산란을 시작하는데, 환경이 좋으면 한 해에 여러 번 발생한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한 세대를 경과하는데 약 10일 정도 경과하므로 한창 많이 발생할 때는 세대가 다른 개체들이 한꺼번에 존재하기도 한다. 차응애는 매우 작고 가버워서 성충과 약충 모두 바람에 날려 주변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배란도 또는 실내의 식물들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 하여도 차응애가 끼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차응애 잎과 성충

응애로 응애를 잡는다

최근에는 포식성 천적을 이용하여 응애를 방제하기도 한다. 응애류는 종류가 많은 만큼 먹이습성도 다양하여, 같은 응애류를 잡아먹고 사는 응애도 있다. 이러한 응애들을 이용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응애의 밀도를 낮출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칠레이리응애'인데, 이들은 식물은 가해하지 않고 식물에 붙어있는 응애들을 먹고 산다. 현재 '칠레이리응애'를 온실이나 하우스 등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응애류 방제...살비제를 사용하지

응애류는 가해하는 식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응애들은 작물은 물론 잡초를 가해하여 먹고 사는 것도 많으므로 주변에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도록 제초를 잘하고 주위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또한 응애는 번식력이 강하여 피해가 급격히 진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응애 방제용 농약(살비제)을 1~2회 살포하여야 한다.

살비제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시중에 살비제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데, 응애류는 알, 약충, 성충이 약제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들이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충은 잘 죽이지만 알은 잘 죽이지 못하는 약제들이 많다. 따라서 약제를 살포하여도 알이 살아남거나 아래쪽 잎에 있던 응애들이 증식하여 밀도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살비제 중에서도 알과 성충에 모두 효과적인 아크라마이트 액상수화제나 밀베노크 유제, 솔백신 유제, 탐택틴 수화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약제는 응애 발생 초기에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서식부위를 고려해 잎 뒷면을 포함하여 식물체 전체에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둘째, 응애류는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잘 나타나므로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통이 다른 약제를 바꾸어 가며 사용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살비제 중 사용 지역 또는 장소에 따라서 성충의 살충률이 두 배 정도 차이이며, 알의 살충률은 네 배 가까이 차이는 경우가 있었다. 위 살비제 중 밀베노크와 솔백신, 탐택틴 등은 모두 같은 계열의 약제이므로 이들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저항성 응애의 출현을 억제하는 일이 아니다.



여름열매의 왕자 포도

글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정호 박사, 정성민 박사

검붉고, 단단한 포도의 계절이다. 가장 당도가 물이 오른 지금 시기가 수확하기 좋은 계절이다. 전문농가에서 재배되는 핵과류인 포도는 정원에서 키우기 쉽지 않지만, 만약 재배한다면 키우기 쉬운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포도에 대해 소개해본다.

8000여품종 중 국내 최대재배는 캠벨얼리

포도 품종은 학계에만 1만 5000여 품종이 보고되고 있다. 같은 종의 다른 이름을 제외하고는 약 8천여 품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약 95%가 유럽종이고 약 90%가 양조용 또는 가공용이다. 국내 포도품종은 2007년 통계로 국내 포도품종 74%가 캠벨얼리다. 거봉이 12%, MBA가 8% 정도 된다. 국립원예과학원 과수와 포도육종담당인 노정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포도는 경부고속도 부근으로 포도 추신지가 모여 있다. 전체적인 규모는 대체적으로 1만 7,000ha이다. 거봉은 입장 천안 안성 등에서, MBA는 영천 경산 등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설명했다.

포도는 껍질째 먹어야 건강에 좋다

포도가 갖고 있는 효능은 암세포 발생을 차단한 레스베라톨 성분이 있는 것으로 1997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존 페루토 박사가 과학전문지 Science지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베라톨은 포도 껍질에 90%가 결합되어 있고 5~6월의 작은 포도송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연구됐다.

서울대 서영준 교수팀이 레스베라톨 성분과 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난소암 종양을 주입한 쥐에게 레스베라톨 성분을 투여해 봤다고 한다. 그 결과 레스베라톨 성분을 투여한 쥐에게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고, 용혈이 망가진 대장조직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것은 껍질을 먹어도 되는 분명한 이유다.

포도재배, 유인이 반이다



포도는 전문농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키우고 싶다면 캠벨얼리를 추천한다. 키우기 쉬운 품종이 캠벨얼리라면, 재배하는데 중요한 점은 유인을 통한 수형관리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와 포도재배생리 담당인 정성민 박사는 포도는 덩굴성이라 유인을 안 하면 줄기

가 무너져버려 못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품종마다 유인해야 할 수형이 있는데, 텃밭에서 캠벨얼리를 키우려면 일반적으로 VSP(Vertical Shoot position trellis system)가 많이 쓰인다고 한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미시간주 등에서 양조용 포도를 키울 때 많이 사용되는 수형으로, 포도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있다. VSP는 자주대를 양쪽에 세우고 가지가 나오는데로 유인선에 묶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수형은 포도나무의 반영구적인 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성민 박사는 “빨래줄, 와이어 등으로 두 개의 지주에 연결시켜 가지는 유인선에 수평으로 나란히 배열하게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싹조가 나온다. 이 싹조를 줄에 붙잡아 매면 된다”며 이것이 가장 초보자들도 쉽게 수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모지를 키워 꽃 피기 전에 유인선 끝을 넘어 자란 줄기는 꼭 잘라주는 전정 작업을 하며 된다. 그래야 포도 결실이 잘되고, 웃자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박사의 설명이다.

유럽은 생과보다는 와인 선호

전 세계적으로 포도와 관련한 다양한 축제가 있다. 유럽은 생과보다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때문에 와인축제가 유명하다. 와인을 좋아하는 프랑스에 유명한 축제가 많다. 와인산지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는 보르도, 브루고뉴, 상파뉴, 몽마르프 등에서 열린다. 특히 보르도에서 메독 포도축제가 열린다. 이 지역에는 사토라 불리는 포도주 창고가 500여개나 된다. 축제 때는 민속의상을 입은 각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고전 음악대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무도회와 음악회가 열린다. 이외에도 스페인의 하로와인축제가 알려져 있다. 매년 6월 말경에 열리는 와인축제는 스페인 북부라로자(La Rioja)라는 지역의 하로(Haro)라는 도시에서 열린다. 와인보다는 생과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포도축제가 열린다. 가장 유명한 지역축제로는 영동포도축제(8월 30일~9월 1일, 영동군 영동체육관 일원)가 있다. 이외에도 안산대부포도축제(9월 중 예정), 웅양포도축제(9월 1일~30일, 거창군 웅양면 동호읍) 등 16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맛있는 포도 고르는 법



포도를 재배하는 곳에서 수확 측정은 디지털 당도계를 사용해 판단한다. 당도는 위, 중간, 아래 세 부분을 균일하게 측정한다. 보통 당도는 위부분이 가장 높다. 그래서 소비자가 포도 구입 시 맛있는 포도를 고르려면 아래 부분을 맛보는 것이 좋다. 농가에서 재배되어 유통할 수 있는 캠벨얼리의 기준 당도는 15 브릭스 이상이 라고 한다.

포도 과분에 대한 진실

포도과분은 농약이 아니다

포도의 표면을 보면 불투명한 하얀 가루로 덮혀 있다. 이것은 ‘과분(果粉)’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농약이라고 오인한다. 농약이 묻은 포도과분은 농약자극으로 얼룩무늬가 나타난다.

포도과분은 포도껍질의 일부분이다

과분은 포도껍질의 일부분으로 어린 포도알에서부터 발생해 수확기까지 유지. 매우 미세한 돌기구조를 갖고 있다.

포도과분은 당분이다

과분은 지방축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포도주를 만들때 발효를 도와주는 효모의 서식처이다.

한국이 육성한 포도품종

국내에서 재배되는 포도 중 가장 오랜 재배역사를 가진 품종으로 캠벨얼리, 거봉, 머스캣베일에 등이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청수, 탐나라, 홍이슬, 흑구슬 등을 재배 육종해 보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소개해 본다.



청수



홍단



탐나라



홍이슬



흑구슬



흑보석



수옥



진옥



두누리



탄금추



홍아람



나르샤



홍소담



새마루



새마루



여름 과일의 대명사 수박

대청마루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이라도 쏘이며 찬 우물물에 식힌 잘 익은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 통 터트리면 무더위 한여름이 지나가기 마련이다.

원산지가 남아프리카로 알려져 있는 수박은 예전에는 한자로 서역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서과(西瓜)라고도 부르고, 물이 많다는 뜻으로 수과(水瓜)라고도 불렀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발견되어 4,000여 년 전부터 재배하여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심어왔다. 조선시대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수박 그림이 그려져 있다.

수박은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수박의 형태는 축구공처럼 둥근 모양, 럭비공처럼 타원형인 것 또 장타원형 등 크기도 다양하다. 과육의 색도 잘 익은 경우 붉은 것과 드물게는 연한 노란색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은 파피에 줄무늬가 있고 속이 붉은 품종들이 주종을 이룬다.

수박속의 당질은 과당과 포도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온일수록 감미가 증가하며 무더운 계절에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수박씨는 당질을 비롯해서 단백질, 지방, 비타민 B군이 다량 들어 있다. 한편 수박에는 요소사이클의 중간 대사물질인 시트룰린(citrulline)이라는 특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 체내 요소

합성을 돕기 때문에 이뇨효과가 크다. 수박의 붉은 색은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로 이것의 70% 이상이 리코펜(lycopene)이다. 이 리코펜은 최근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재배 과정에서 일교차가 클수록 붉은색이 짙어진다고 하며 과육이 노란 수박은 리코펜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노란 수박보다는 붉은 수박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수박은 신장염, 인후염, 편도선염, 방광염, 고혈압, 부종 및 구내염 등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수박의 모양은 축구공처럼 둥근 것, 럭비공처럼 타원형인 것 또 장타원형에 크기도 다양하다. 과육의 색도 잘 익은 경우 붉은 것과 드물게는 연한 노랑색도 있다.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가 크다는 수박 속껍질

최근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과일-채소 개량센터 소장인 비무 파틸(Bhimu Patil) 박사팀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식물성 영양소(phyto-nutrients)가 수박 속에 다량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틸 박사팀은 "수박에는 리코펜, 베타카로틴과 그 기능성이 떠오르는 시트룰린을 함유하고 있다"면서 시트룰린(citrulline)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아르기닌(arginine)으로 바뀌며, 아르기닌은 산화질소(nitric oxide)를 증가시켜 혈관을 이완시켜서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즉,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르기닌은 순환계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과 고혈압치료 및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등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파틸 박사는 '수박이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아니지만 혈관을 확장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과일' 이라면서 수박의 속보다는 껍질 부분에 대략 60%의 시트룰린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파틸 박사의 동료인 스티브 킹과 방해진 박사는 수박의 먹는 부분인 붉은색의 수박 속 쪽에 흰색의 속껍질보다 시트룰린의 함량이 높은 수박 품종을 개량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미국의사협회에 현재 ED(발기부전)에 수박요법을 사용하는 곳이 존재한다고 하며 1주일에 15통 하루에 4번 이상을 먹으면 놀라운 효과를 본다고 한다. "잘 익은 수박은 실온에서 자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좋고 일단 자른 후에는 냉장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하고 있다.



▲ 무등산수박: 무등산수박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이조 선조때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이조시대에 궁중에 보내는 진상품으로 유명했다. 일명 '무행이' 또는 '무행이' 라고 부르는 무등산수박은 요충 수박처럼 진초록색의 줄무늬가 없고 연초록색으로 크기가 20~30kg이나 나가는 대형이며 2~3cm로 껍질이 두꺼워 운반하기에 좋고 오래 저장할 수 있다.

수박의 효능

이뇨작용

과육중의 시트룰린(citrulline)과 아르기닌(arginine)에는 간장중의 뇨소 형성을 촉진하여 이뇨작용을 유인하는 효능이 있다. 수박을 먹으면 소변량이 많고 찾아져서 체내의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뇨 효과는 껍질 쪽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므로 수박은 신장기능이 좋지 않아 부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임산, 고혈압 등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이어트효과와 미용개선작용

수박효능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박은 또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박껍질에는 수분공급, 자외선차단, 미백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 휴가철 자외선에 노출된 직후,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 피부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항암성이 높은 속 빨간 수박

수박, 딸기, 붉은 포도 등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하는 사람보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박은 수확한 후에도 실온에서는 영양분을 계속 만들므로 방동이나 냉장을 하는 것 보다는 실온에 보관하였다가 먹기 직전에 냉장하는 것이 좋다.

수박 껍질째 하기



1. 먹고 남은 수박껍질의 하얀 부분을 2mm정도로 얇게 자른다.
2. 냉장고에 20~30분정도 넣었다가 시원한 상태의 수박껍질을 피부에 문질러주거나, 강판을 이용하여 잘 갈아서 밀가루와 꿀을 조금 넣어 묽게 반죽한다.
3. 얼굴위에 거즈를 깔고 완성된 수박 껍질 팩을 펴서 바른다.
4.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다.

수박의 민간요법

신장병 : 수박탕을 만들어 복용하면 신장병에 특효약이라고 한다. 신장병으로 부기가 있는 환자는 수박탕을 매회 한 술갈 정도로 하루 3~4회

복용하면 부기가 신기할만큼 빠진다. 극히 중한 신장병 환자나 혹은 급성 신장병 환자라면 그 두 배 이상의 분량을 먹으면 좋다.

부종 : 수박덩굴에 물을 붓고 달여 맥주컵 반 정도의 분량만큼씩 마신다. 여기에 이뇨작용이 강하며 체내에 쌓인 독까지 배설하는 작용을 하는 침미래 당굴을 배합해도 좋다.

비염 : 수박은 성질이 차서 해열작용이 있으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으므로 비염으로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가 있을 경우 수박당굴 30g이나 수박꼭지 1개를 볶아 가루를 낸 다음 하루 세 번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신다.

여름을 탈 때 : 수박은 여름을 타는 증세에 좋은데 목이 마를 때마다 물 대신 먹는다. 그러나 냉증이 있거나 위장이 차가워지기 쉬운 체질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임신중독증 : 수박 성분은 대부분 물로서 배뇨에 필요한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임신중독증에 의한 부기에는 수박껍질 달인 물이 좋다. 수박달인 물은 수박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닦은 다음 반으로 잘라 껍질을 벗기고 벗긴 껍질을 2cm정도로 잘라 냄비에 물을 넣고 20분 정도 달인 후 식혀 마신다.

가슴앓이 : 수박 씨 8~10g을 1회분 기준으로 달여서 3~4회 복용하면서 수박을 평상시보다 많이 먹는다.

당뇨병 : 수박 씨 8~10g을 1회분 기준으로 달여서 1일 2~3회씩 15일 이상 복용한다.

말꼭질 : 수박 씨 8~10g을 1회분 기준으로 달여서 2~3회 복용한다.



김장채소, 파종·육묘·정식 이제 시작이다

8월은 맛있는 김장을 준비하는 달

글·사진 정성훈 기자 / 자료 DAUM 카페 '농사길잡이'

텃밭가드너 또는 주말농장의 농부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김장용 채소부터 파종해야 한다. 파종이 모든 작물재배의 기본이지만 잘 파종한 종자가 가을 김장을 결정하는 것이라 느긋하게 해볼 작업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년까지 밥상의 김치는 마트에서 사서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김장채소...직파, 육묘, 모종구입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장채소로 심어야 할 작물은 배추, 무, 알타리무, 쪽파, 갓 등이 있다. 우선 종자 및 모종은 종묘 또는 농약상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때 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심을 장소 준비가 늦어지면 생육 기간이 짧은 품종을 선택해배해야 된다.

그렇다면 맛있는 김장을 담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성훈씨는 좋은 종자나 모종을 선택해 적기에 파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자를 구입했다면 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찍 심고, 거름을 많이 주면 배추의 통이 커지고 잎줄기가 두꺼워져서 맛이 없어질 수 있다.

김장배추는 육묘상자에 모종을 키워 정식하는 육묘이식재배로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무는 주로 노지에 직파재배를 하기 때문에 배추보다는 작업이 편하지만 속음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그래도 속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다.

8월에는 김장배추의 파종부터 정식까지 끝나쳐야 하는 시기다. 파종시기에 관한 팁은, 배추종자 파종의 가장 알맞은 시기는 8월 중순. 배추의 생육 기간은 품종에 따라 65~90일 배추가 있고, 보통 70~75일 배추를 심는다는

고 그는 설명했다.

길잡이 파종법...배추 육묘 파종은 105구 사용

종자를 구입했다면 육묘상자에 파종한다. 지난 5월호에 트레이상자 파종법에서 채소별 알맞은 구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배추육묘의 알맞은 트레이는 105구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농사 초보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대충 50~72구의 육묘상자에 파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뿌리의 매트(엉킴) 형성이 잘 안되고, 뿌리가 형성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육묘기간이 한달 이상 길어진다. 또 제때 심으면 부서져 정식 후 물살을 오래 한다. 그래서 자가육묘시 김장용 배추의 적정한 육묘상자는 105구~128구가 적당하다. 물론 이유는 육묘상자가 크면 정식 시 뿌리 엉킴이 덜 되어 정식 시 물살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살이라는 의미는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져 활착이 늦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 지나치게 촘촘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알맞은 육묘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육묘재배는 정식 후 물살을 7일 정도 하는데, 보통 집에서 배추모종 육묘시 잎이 직립으로 자라고 연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모종은 잎이 낮게 깔리는 것이 특징이다.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 모종을 심으면 더디게 자랄 수 있다. 이것들은 8월 하순에 심어야 결구가 안정적으로 된다. 그는 집에서 육묘한 모종은 조금 일찍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간단한 배추 정식법



포기간 60~40cm정도로 심는다. 손가락을 이용해 살짝만 뚫어준다. 너무 깊이 심지 않기를 당부한다. 호미를 이용해 때는 호미의 뒤를 이용해 조금 찢어서 모종을 넣고, 흙을 넣고 살짝 눌러준다.



육묘시 바닥에 보온덮개 깔면 관리가 편리하다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길잡이 파종방법'을 알면 육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 육묘장에서 육묘할 때 원칙은 육묘상자의 바닥을 지면에서 뜨게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해야 뿌리가 육묘상자 밖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집에서 파종을 하는 가드너들에게는 보온덮개를 권장한다. 파종 후 비닐이나 스티로폼 위에 보온덮개를 놓고, 육묘상자를 올려놓으면 이들에 한번 물을 줘도 건전한 육묘를 할 수 있고, 단열효과도 있어 재배가 용이하다. 보온덮개를 깔지 않고 흙 위에 육묘상자를 놓게 되면 활착된 뿌리가 흙으로 뻗게 된다. 이것을 정식하면 뿌리가 끊어지고 모종이 잘 안 뻗으며, 활착이 늦어져 생육이 불량해진다.

김장채소는 물빠짐 좋은 '외줄재배'가 효과 크다

파종이 끝나면 20~25일 정도 키워서 정식을 한다. 배추는 직파, 육묘, 모종 구입으로 하고, 무, 알타리무, 갓, 쪽파는 직파하여야 한다. 정식하기 전 준비해야 할일은 석회, 유박, 부산물 비료를 정식 전 15일전에는 주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농사길잡이 정성훈씨가 강조하는 점이 있다. 밑거름 줄때 부산물비료와 유박을 주고 바로 비닐을 덮으면, 특히 발효가 덜 된 유박은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배추모종에게 피해를 주므로, 15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작장해지에는 외줄재배로 정식하는 것이 좋다. 배추는 두둑을 만들고 두줄로 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한 줄로 심는 것이 배수가 잘되어 병에 걸릴 위험이 적다고 한다. 특히 땅의 물빠짐이 좋지 않고, 산성일때 잘 걸리는 병인 배추 뿌리혹병(무사미귀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외줄재배를 하고,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뿌리혹병에 강한 품종재배(CR계) 재배를 권한다. 소규모 재배하는 주말농장이나 텃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다. 이들은 같은 땅에 2년에 한 번씩 같은 작물을 심는 것이다. 이것은 연작장해(매년 같은 작물을 심으면 땅의 영양상태가 불균형을 이뤄 작물에 피해가 오게 하는 것)의 원인이 되어 제대로 된 배추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한다. 무와 알타리무, 쪽파, 갓 등의 파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달의 핵심 체크에 요약해 본다. 파종 자체는 쉽지만 육묘에서 정식하는 단계까지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내년까지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풍만한 상상으로 파종을 시작해 보자.

길잡이네 텃밭의 '뉴패밀리'



길잡이네 하우스 농막 안 진열장에 매년 새가 동지를 틀고 있다. 매해 두 번씩 동지를 틀고 있는 딱새, 사람이 있어도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날아 들어온 이런 동물들은 맘껏려 농사를 짓다가도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휴식을 가져다 준다. 딱새는 참새목의 딱새과의 한 종으로 한국의 텃새이기도 하다. 수컷은 얼굴과 몸이 검은색이고, 암컷은 전체가 옅은 갈색이다. 날개에 흰 부분이 있다.



정성훈 지도관네 텃밭의 옥수수(사진 좌)는 사람을 흠뻑 넘은지 오래다. 또 하우스 내 방울토마토(사진 우)는 수확시기를 기다리고있다.



Step By Step



1. 배추모종을 키우기 위한 육묘상자는 105~128구가 적당하다. 정성훈 지도관은, 105구를 선택했다.



2. 상토를 육묘상자 가운데에 모아 뿌리고 주변으로 펼치면서 모든 구멍에 가득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



3. 육묘상자의 모든 구멍에 흙을 채웠다면 물을 흥벅 주어 상토입자 자체가 덩어리가 되도록 한다.



4. 육묘상자를 올려놓고 꼭 눌러준다. 그러면 맨 위의 판을 제외하고 모든 판의 흙이 담긴 구멍에 흙이 생겨 파종할 수 있다.



5. 배추 씨앗은 보통 한 구에 한 림만 넣어도 발아하는데 문제가 없다. 육묘상자 사이에 신문지로 덮고 썰아 그늘에 둔다.



6. 3일 정도 지나고 보면 위에서 2~3판 정도가 발아된 상태이다. 바닥에 보온덮개 등을 깔면 수분관리에 유리하다.

8월은 맛있는 김장을 시작하는 달

8월의 텃밭 Check List

김장배추

파종시기 : 8월 중순이 적기. 배추의 생육기간은 품종에 따라 65~90일, 70~75일 배추를 심는다.

육묘재배 : 정식시 7일정도 몸살을 하므로 8월 5일~10일경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육묘기간은 20~25일) 또한 육묘상자 선택은 자가육묘시 105~128구가 적당하다.

배추정식 : 8월 하순에 심어야 결구가 안정적으로 된다.

정식거리 : 60cm~45cm로 심는다.

정식 포장조성 : 비닐 멀칭 재배하는 것이 좋다. 비닐 멀칭 전 밑거름을 미리 주어야 하는데 석회, 유박, 부산물 비료 등은 15일 전에 준다.

정식요령 : 정식 전 모종에 물을 주어 모종이 잘 뽕히고 뿌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김장무

무 파종 시기는 8월 하순이 적기이다.

무 재식거리는 이랑 넓이 60cm, 줄 간격 30cm, 포기사이 25~30cm

알타리무

파종시기는 9월 5일 전후가 적당하다. 일찍 심으면 너무 커진다.(파종 후 60일이 수확 적기)

파종가격은 포기사이 15~20cm에 줄뿌림 재배한다.

쪽파

쪽파는 일찍 심으면 잎의 노화로 잎끝이 말라 상품성이 떨어지고,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8월 30일 전후에 심는 것이 좋다.

심는 요령은 20cm x 5~7cm 간격으로 2~3쪽씩 심는다.

갯

갯의 수확적기는 파종 후 60후로써 파종적기는 9월 10일 전후가 알맞다. 일찍 심으면 줄기가 경화되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심는 거리는 25cm로 줄뿌림 한다.



쪽파는 20cm x 5~7cm 간격으로 2~3쪽씩 심는다.

차파식을 종자와 묘종의 모든 것

땅끝야생화

문의전화

061-535-0045 / 010-4284-2655

Fax 061-535-0048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740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왕초보 박소영씨의 텃밭 가꾸기 II

한 평 땅이 주는 수확의 기쁨은 컸다. 소위 말하는 손바닥 만한 그 조그만 텃밭이지만, 그곳에서 다양한 작물을 많이 수확한 박소영씨. 왕초보에게도 자연은 큰 기쁨을 선사했다. 상추, 고추, 호박, 오이, 그리고 토마토까지 그 작은 땅은 그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확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는 그. 그러나 나눔의 기쁨도 컸지만, 4인 가족이 먹기에 적합한 재배 방법도 궁금하다고 한다. "소장님,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상추를 재배하려면 어느 정도의 씨를 뿌려야 하나요." 지난 호에 이어 유봉수(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으로부터 텃밭 수확량 및 8월 심기에 적합한 식물, 텃밭 규모에 알맞은 작물 등에 대해 배워보기로 하자.

텃밭 채소의 평당 수확량

4인 가족이 먹기에 상추의 경우 3~4포기면 충분하다. 전문 농가에 비해 기술적인 수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만 상추를 비롯한 대파, 쪽파, 당근, 잎들깨, 오이, 토마토, 호박, 참외, 가지 등의 평당 수확량은 5~10kg이나 된다. 옥수수, 마늘, 콩, 완두 등은 2kg 정도, 시금치, 생강, 열무, 고구마, 갓 등은 3~5kg을 생산할 수 있다. 무, 배추, 양배추, 부추 등은 10~20kg을 수확할 수 있다.

텃밭 규모는

박소영씨의 경우처럼, 땅 한 평에서도 작물의 수확량은 예상외로 풍성하다. 주말을 이용하여 가꾸기를 원하는 주말 농장 텃밭이라면 클 필요는 없다. 텃밭 규모는 한 평에서 크게는 스무 평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가족의 노동력, 접근성 등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규모에 따른 알맞은 채소

5㎡ 크기 즉 한 평 반 크기의 소규모 텃밭에는 박소영씨처럼 상추, 쪽파, 아욱, 근대 등 크기는 작고 생산량이 많은 채소, 그리고 여러 회 수확할 수 있는 재배기간이 짧은 작물이 좋다. 3~5평 규모의 텃밭에서는 돌려짓기하며 가꿀 수 있는 채소로, 크기가 좀더 큰 것도 괜찮다.



가족이 좋아하는 채소를 재배할 것을 권한다. 위에서 언급한 채소 외에 배추, 고추, 당근, 완두콩, 생강, 파, 옥수수 등이 추천할 만하다. 6~10평 규모에서는 6개 이상으로 구획 재배가 가능하다. 김치재료가 되는 채소와 대량소비 가능한 채소, 지력회복이 가능한 콩과 채소 등이 좋다. 호박, 감자, 토란, 강낭콩, 마늘, 부추, 도라지 등 상대적으로 재배기간이 길고 식물크기가 큰 채소가 가능하다.

8월 텃밭에 심으면 좋은 채소

김장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1평 남짓한 텃밭이라면 열무(0.5평)와 김장배추(0.5평)를 나눠 심는다. 2평 규모에서는 김장무까지 심으면 좋겠다. 평수가 더 여유 있다면 김장 재료로 필요한 당근을 심는 것도 방법이다. 돌아오는 9월, 갓까지 심는다면 올 김장준비는 끝. 웬만한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다. 배추 심기와 관련, 한가지 팁을 주자면 다음과 같다. 심을 텃밭에 미리 석회비료 분사퇴비를 넣고 갈아라. 모종은 모종상에 가서 좋은 품종으로 예약을 해둔다. 토양은 물 빠짐이 좋은지를 확인한 후 물빠짐이 좋다면 두줄 재배를, 좋지 않으면 두둑을 높여 한줄 재배를 한다. 무와 달리 엽갈이배추는 직파재배를 하는 것이 좋다.

Q&A

소장님 도와주세요



Q : 고추 끝부분이 썩어가고 있어요.

A : 식물을 키우는 것은 원리만 알면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무슨 병에 무슨 약 밖에는 모른다. 마치 '감기에는 판피린'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치유에 앞서 병의 발병 원인과 원리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올 봄 기후가 춥거나 더운 날이 많았다. 봄부터 이상기온으로 밤에 열대야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양분을 축적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열매로 가야할 양분을 잎이 다 소모

시켜버린 것이다. 작물이 양분을 축적시키지 못해 과실의 당도가 없어진다. 양분 흡수량이 떨어지면 다음 작물도 수확기가 늦어진다. 보통 3~4일 정도, 일주일까지 늦어진다. 밤에 온도가 높아지면 기형 열매가 많아지고, 벌레도 많아진다. 변이가 일어나서 번식력이 활발해져, 벌레가 많아지는 것이다.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 이유이다.

쉽게 말해 척박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의 열매가 많다. 그러나 이 열매는 정상적이지 않다. 많기는 한데 좋은 열매는 없다. 농업은 많지도 적어도 안 된다. 농사를 망치는 원인은 욕심이다. 퇴비가 과하면 병이 생긴다.

흑미병, 짙을 갈아 온도를 낮추고 수분을 공급해준다.

고추 끝부분이 썩는 증상은 고추에 많이 발생하는 흑미병이다. 흑미병은 병원균이 아니라 토양 수분이 적거나 토양 온도가 높을 때 일시적으로 석회비료 흡수가 안되어 나타나는 생리 장애 현상이다. 심을 때 아무리 많은 석회비료를 주어도 배수가 잘 안되는 밭에 비닐 멀칭을 하고 고추를 심으면 나타나는 증상이다. 토양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석회비료 흡수가 안 되어 나타난다. 토마토에서는 배꼽

이 검게 썩어 배꼽썩음병이라고도 한다. 예방법은 알맞은 토양 수분을 유지시키거나 토양 온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짙을 갈아서 온도를 낮추거나 수분을 공급해주면 된다. 고추에서는 처음 달린 1~2개 정도만 병징이 나타나고 이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농사 지식이 조금 있다고 석회비료 옆면시비를 권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용 약값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니 유념하길 바란다.



텃밭 규모에 따른 알맞은 작물 채소

소규모(1~2평) 가꿀 수 있는 채소

- 식물의 크기가 작은 채소
- 생산량이 많은 채소
- 여러 회 수확할 수 있는 채소
- 이어짓기 장애가 없는 채소

채소 종류

상추, 시금치, 들깨, 발미나리, 열무, 알타리무 등

중규모(3~5평) 가꿀 수 있는 채소

- 3~5개로 구획하여 돌려짓기하며 가꿀 수 있는 채소
- 식물의 크기가 큰 작물

채소 종류

소규모 채소 이외에 배추, 고추, 당근, 완두콩, 생강, 파, 옥수수 등

대규모(6~10평) 가꿀 수 있는 채소

- 6개 이상으로 구획 재배
- 김치재료가 되는 채소
- 대량소비가 가능한 채소
- 지력회복이 가능한 콩과 채소

채소 재배

중규모 채소재배 이외에 호박, 토란, 감자, 강낭콩, 마늘, 부추, 도라지 등





류지민(초등학교)은 손으로 자유롭게 벌레를 만질 수 있는 곤충(애)가 강한 소이다.



김선호군도 수확한 손가락보다 큰 고추를 자랑스럽게 보인다.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농부프로젝트

병충해 관리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중무면 하반천리의 텃밭에는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 한 칸에서는 비로 인해 쓰러진 지주대를 다시 세워 토마토 줄기를 유인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익은 토마토, 오이, 가지를 수확하고 있다. 청소년농부프로젝트의 여름의 첫 테마는 병해충과의 교감이다.

중간고사 시즌이 끝난 아이들에게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됐다. 이제 학생들은 여유로운 맘으로 청소년농부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농부프로젝트 일정도 반이 지났다. 오늘은 청소년농부프로젝트의 2학기의 첫날인 셈이다.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 심은숙 회장은 지금부터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도 아이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서툴렀어요. 하지만 계속 진행이 되니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농업을 통해 양질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반의 특성상 매번 참여할 수 있어서 서로의 얼굴에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것은 프로젝트 참여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농부프로젝트 동아리반의 장점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농업이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렵다.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는 이날의 프로그램 주제를 ‘병해충 방제 및 대화’로 잡았다. 아이들에게 농업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쉽게 전달하기 위한 도시농업연구회의 프로그램 다변화가 눈여겨 보인다.

친환경 제재...난황유, 칼슘제 만들기

밭에 나가기 전 심화장이 여러 병해충에 대한 소개와 난황유 및 칼슘제 제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됐다. 난황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요네즈를 병에 넣는다. 1cm가 1g이라고 하면 10cm정도면 된다. 여기에 물을 2리터 정도 넣어 희석을 시키면 끝이다. 원래 난황유는 계란과 식용유 등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만드는 것(본지 6월호 ‘난과 유의 만남 난황유’)이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제거한 것이 마요네즈를 활용한 것이다. 칼슘제 제법도 설명한다. 칼슘제제는 계란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식초를 붓고, 기포가 발



부천에서 온 김은경(부천고2)은 동생이 갖고 온 무당벌레 유충을 반박 신기해 한다.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체험반’ 모집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배우며, 즐거운 텃밭 자원봉사 경험을 한다.

■ 모집기간

2013년 8월20일(화)까지

■ 모집대상

관내 초등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 45명(선착순)

■ 신청방법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회원 가입 후, 신청

■ 활동기간

2013년 8월 24일(토) 13시~17시

■ 봉사활동처

광주시 곤지암읍 오항리 59-1번지, 지정장소(추후 문자발송) 집결 후 차량이동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중학생이지만 활발한 성격의 정유희(탄방중2)군이 칼슘제를 뿌리고 있다.



밭에서 관찰한 해충과 작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잘 담아줬다가 필요할 때 뿌려주면 된다. 칼슘은 식물의 잎에 많이 존재하지만 체내에서 이동율이 낮으므로 필요시 뿌려주는 것이 작물 생육에 좋다.

아이들은 해충과의 전쟁 중

비가 오리라 내리락 하는 장마기간이지만 하늘의 뜻인지 밭에서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날씨가 맑다 못해 뜨겁다. 이론 강의가 끝나고 야외로 나와 아이들은 작물의 병해충을 확인하고 벌레를 잡느라 한창이다. 해충 방제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작물에 기생하는 곤충이라는 또 다른 생명의 존재를 탐닉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는 큰 이슈인 듯하다. 이날의 가장 큰 화제가 된 해충은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여러 작물에 피해를 주는 작물이라 토마토, 콩 등의 잎을 살짝만 들여도 유충과 알이 속속 보인다. 여기 저기 학생들이 애벌레를 찾아서 확인하고, 강의시간에 만들었던 난황유로 또 다른 병충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작물 곳곳에 뿌려준다. 물론 칼슘제도 함께 말이다.

청소년농부의 그림을 통한 정서 순화

야외학습이 끝나고 벌레와의 관찰을 그림을 표현하는 시간. 고등학생, 중학생 등 열심히 자신만의 감각과 상상, 눈으로 본 여러 해충들과 모습들을 종이에 그림으로 기록해본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농업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인데 오늘의 일정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듯하다. 스스로의 그림들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감하는 이날의 프로그램은 방학으로 학생들의 여유로운 참여와 도시농업연구회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됨을 느끼게 한다.

“수확할 때 가지가 따가우니 조심하렴”

“까맣게 된 알이 벌레로 나오는 건가요?”

“벌레를 구경하지 말고 잡으렴.”

How to 초간단 난황유 만들기



1. 페트병에 마요네즈를 적당히 넣는다. 10cm가 10g 정도 된다.



2. 물 2리터를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섞으면서 넣는다.



3. 마지막으로 잘 혼합되도록 완벽히 섞어 준다.



4. 페트병에 분무기를 꽂으면 친환경제제 난황유 완성이다.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하는 상사화

상사화를 닮은 식물들

수선화과(科)의 식물들 중에서 상사화(*Lycoris*)를 닮은 것으로는 노랑상사화를 비롯해서 붉노랑상사화, 진노랑상사화, 흰상사화, 위도상사화, 백양꽃, 석산(꽃무릇) 등의 8종류가 있다. 잎은 모두 밑동에서 뭉쳐나고 편평하며 띠 모양을 이룬다. 꽃은 6월에 붉은빛이 강한 연한 자주색의 상사화가 제일 먼저 피기 시작하여, 7월에 노랑상사화, 붉노랑상사화, 진노랑상사화가 피면서 절정을 이룬다. 8월에 위도에서는 흰색과 노랑색이 적절히 비율로 조화를 이룬 위도상사화가 피고, 9월에 짙은 붉은색으로 석산이 피면서 이들의 꽃잔치는 끝을 맺는다. 상사화 종류들은 모두 산형꽃차례로 피고, 꽃은 모두 깔때기 모양이다.



상사화에서 상사병도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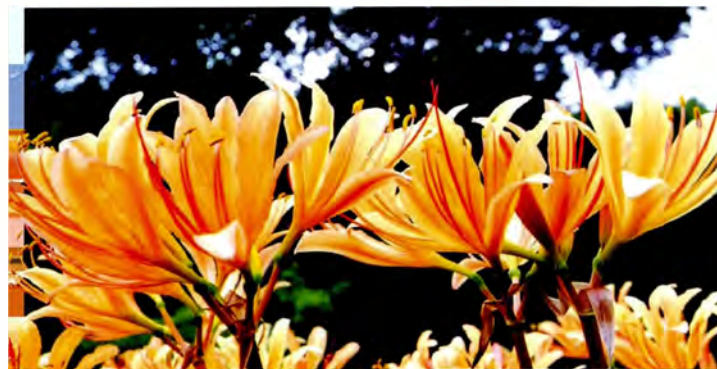
상사화는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해살이 독성식물이다. 4월에 연 땅이 녹으면서 그 속에서 노란 새싹이 솟아오른다. 새싹은 무럭무럭 자라다가 6월에 되면 힘없이 사르르 녹아 버린다. 초여름 기운이 감도는 6월 중순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싹이 죽었던 자리에서 긴 꽃대가 뻗어 솟아오른다. 그리고 붉은빛이 강한 연한 자주색의 꽃이 요염하게 피어난다. 그래서 잎과 꽃이 서로 보지 못한 채 서로를 그리워 한다는 뜻으로 상사화(相思花)라고 불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상사병(相思病)이란 말도 탄생되었다고 한다.

세속의 여인을 사랑한 스님

옛날 아주 먼 옛날 불심이 매우 높은 스님 한 분이 계셨다. 그런데 이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죄를 짓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속의 여인을 사랑한 죄였다. 스님은 자신의 이러한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님 역시 한 인간이자라 날마다 여인을 그리워하였다. 그리움에 사무칠 정도였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여인을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자신의 안타까운 사랑을 달리 표현하거나 해결할 길이 없어 꽃씨에 자신의 심정을 담아 절 앞마당에 심었다. 시간이 흘러 씨가 싹이 되었고, 이상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싹이 죽은 후 꽃이 피었다. 그리고 꽃이 지면 다시 잎이 피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꽃과 잎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사화! 스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이 꽃을 상사화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꽃말, 이를 수 없는 사랑

상사화는 마치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는 연인 마냥 잎이 나오면 꽃이 지고, 꽃대가 나오면 잎이 말라버리는,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슬픈 연인을 보는 듯한 꽃이다. 그래서 이름도 상사화이며, 꽃말도 '이를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 세속의 한 여인을 사랑하여 스님이 절 마당에 심어 그리운 마음을 달랬다는 꽃, 그 꽃이 바로 상사화인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7월호에 소개된 제비꽃꽃은 난쟁이꽃임을 바로잡습니다.

상사화(*Lycoris*)의 이해

중국이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심는 식물이다. 비늘줄기는 넓은 달걀 모양이고, 지름이 4~5cm이며 같이 검은빛이 도는 짙은 갈색이다. 꽃줄기는 곧게 서고 높이가 50~70cm이며 약간 굽다. 잎은 봄에 비늘줄기 끝에서 뭉쳐나고 길이 20~30cm, 폭 16~25mm의 줄 모양이며 6월에 마른다. 꽃은 6~7월에 피고 꽃줄기 끝에 산형꽃차례를 이루며 4~8개가 달린다. 총포는 여러 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은 피침형이며 길이가 2~4cm이고 막질(膜質)인 종이지러짐 반투명한 것이다. 꽃의 길이는 9~10cm이며 붉은

빛이 강한 연한 자주색이다. 화피는 밑 부분이 통 모양이고 6개로 갈라져서 비스듬히 퍼지며, 갈라진 조각은 길이 5~7cm의 거꾸로 세운 피침형이고 뒤로 약간 젖혀진다. 수술은 6개이고 꽃잎보다 짧으며, 꽃밥은 연한 붉은색이다. 암술은 1개이고 씨방은 하위(下位)이며, 3실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방에서는 비늘줄기를 약재로 쓰는데, 소아마비에 진통 효과가 있다.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으므로,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생각한다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방에 따라서 개란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자연을 함축한 축경미의 세계 국화 분재

글·사진 소순복 기자

‘심산유곡(深山幽谷)’의 대자연을 병풍삼아 고고한 자태로 우뚝 서있는 나무 ‘한그루’. 분재에서는 이러한 대자연의 품취가 떠오른다. 작은 화분에 동지를 틀고 있지만 곧게 뻗은 듯 굽은 가지에서는 강인함과 귀품이 묻어나고, 세월의 흔적까지 묻어내는 축경미의 세계가 신비하다. 그럼에도 공통 발톱처럼 대지를 움켜잡은 뿌리의 생명력에서는 가슴이 뭉클하고 애처롭다. 아마 그 나무가 분재라는 특수목이기에 때문일 것이다.

국화 분재 수업이 지난 6월 말부터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순영 발행인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국화 분재 수업 중 가지치기에 대해 밀착 취재했다.

분재는 수 백년 혹은 수 천년이 지난 늙고 큰 나무처럼, 외관은 작지만 그 모습에서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소목이다. 대자연을 모방 축소하여 작은 화분에다 옮겨 놓는 분재 세계를 이상적으로 재현하려면 우선 평소에 대자연의 풍경을 면밀히 관찰하여 심미안을 길러야 한다. 자연 그대로를 분재 수형으로 옮겨 놓는 것이야말로 분재 가꾸기의 기교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국화분재의 수형 형성에서 중요 기술은 적심을 통해 정아우세성을 분산하고, 주간 철사걸이를 통해 정아우세성을 키우며, 가지 철사걸이를 통해 정아우세성을 억제시키는 등 식물 생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이다.

전정은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이 발행인은 국화 품종의 성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목표로 하는 수형을 정한 후에 적심과 전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재는 특히 잔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물은 위로 크려는 성질이 있다. 전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로 크는 것을 억제해주고 세력을 고루 분배해 주기 위한 것이다. 황순원의 소설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전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식물은 열매를 빨리 맺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면 위에만 꽃이 피고 아래에는 그늘이 저서 꽃이 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가 전하는 전정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가지를 일찍 도태시킴으로써 양분의 손실을 막고, 고른 햇빛 공급과 환기로 병해충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또한 건실묘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줄기와 가지의 세력을 조절하기 위함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개화를 유도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그는 아울러 “전정 시기는 화목류(동백, 개나리, 철쭉)의 경우 꽃이 지고 나서 바로 해야 한다. 6월에 하면 새로 난 가지는 꽃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수는 봄에 물이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위로 난 가지는 바짝 자르고, 아래 잎은 제거

국화 전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지가 위로 향했거나 아래로 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수평이 되게 전정을 한 다음, 위로 난 가지를 바짝 자르고, 아래로 향한 잎은 제거한다. 제 1가지가 2가지보다 길 경우에는 다시 잘라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제1과 2가지가 이등변 삼각형의 수형을 이루며 각 가지는 옆에서 보았을 때에도 삼각형이 그려져야 제대로 된 전정이다. 3가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전정한다. 4가지도 아래로 오래 난 잎을 제거해주어 병충해를 방지한다. 모든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는 줄기를 감았던 철사를 풀어준다. 철사 자국이 남게 되므로 풀었다가 다시 감아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사는 줄기에 붙어서 감아야 하며, 느슨하게 감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움직이게 되니 조인 듯 감는다. 전정은 가끔적 위에서부터 해야 가지런해진다.



1. 똑바로 위를 향해 뻗은 가지는 전체 모양의 균형을 망가뜨린다.



2. 직립된 가지는 양분의 흡수력이 빨라 다른 가지를 약화시킨다.



3. 가위로 제거해 주어 세력을 분산시킨다.



4. 완성된 모습. 보기에도 단정하다.



이순영 강사는... 전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이자 현 가든인의 공동 발행인이다. 이 발행인은 국내 나비축제의 대명사격인 함평나비축제를 기획, 성공리에 개최한 그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구수한 입담 속에 춘철살인의 무기를 갖고 있는 명강사이고 국화분재에 대해서는 국내를 대표할 만한 전문가로 꼽힌다.



분재시 가위가 중요

분재를 처음 시작하는 재배자에게 도구를 한 개만 권장한다면 날이 날카로운 잔가지 다듬는 가위이다. 가지 깊숙이 넣어 잘라야 하므로, 끝이 뾰족하고 뭉툭해야 한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위는 불편하다.





한국 정원수
고유의 맛을 지키려면..

소나무 전정

글·사진 소순복 기자

소나무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은 각별하다. 소나무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 바로 전정에 그 해법이 있다. 전문 정원사를 이용해 인위적인 미를 추구해도 좋겠지만, 조금은 서툴러도 주인의 손길이 닿는 이발이 좀더 친숙하지 않겠는가. 소나무도 주인의 손길을 더 반길 듯 하다. 잘못된 가위질에 생채기가 나도, 구멍이 뚫려 영구 머리가 되어도 그것이 주인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안다. 그는 한국 정원수의 으뜸, 절개의 표상 소나무가 아니던가.



김광두 교수, 국내 조경
수목 학계의 대부

지난달 말 우리꽃 도시원에 아카데미의 소나무 전정법 지도를 위해 지휘봉을 잡은 강사는 울초까지 상명대학교 산업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김광두 교수이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다양한 강의와 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 교수의 수업은 따위가 넘친다. 우리꽃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로 꼽힐 만큼 그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진정한 매력이 있다. 특히 조경 수목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로 꼽힌다.

춘철살인의 입담,
계으른 수목 관리에도 일침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김 교수의 수업은 이날도 활기찼다. 거침이 없고, 정확하다. 이날 수업은 소나무 전정. 그는 전정을 통해 소나무 분얼의 참 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다고 강의의 묘미를 열었다. 주위의 잘못된 가로수 관리나 관계자들의 계몽을

등도 비판하면서 김 교수는 본격적인 소나무의 전정에 대해 소개했다. 9월에서 11월에 걸쳐 실시하는 전정은 강전정보다는 여름철에 자라난 도장지나 혼잡한 가지 등을 가볍게 쳐주는 정도로 실시해야 한다. 김 교수가 설명하는 소나무 전정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긴 가지는 분지점에서 자른다

소나무 전정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르는 위치이다. 만 2년이 지난 가지는 중간 부위를 자르면 맨아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말라 죽게 된다. 따라서 가지가 너무 길어서 자를 때는 분지점에서 잘라야 한다. 조형소나무는 특히 하나하나마다 발생한 가지를 속아내고 신초의 순을 자를 때는 잎이 나온 부분을 2cm정도 남기고 잘라준다. 이때 잎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자르면 말라죽는다. 전체 외형이 둥근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키가 솟아 오른 것들은 키를 맞추며 전정한다. 가지를 전정한 후의 외형은 가지가 마치 손바닥을 펼치는 모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밑으로 처진 가지나 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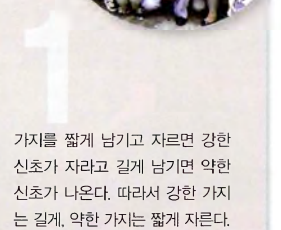
로 나간 가지를 잘라준다. 너무 길게 늘어진 가지는 2/3부위에서 연장지를 남긴 상태로 분지점에서 잘라주어야 겨울철 폭설로 인해 가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장이 왕성한 수목은 강전정 한다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작업의 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해서 분량을 결정한다. 강 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동화작용 등이 감소하여 양분의 축적이 쇠퇴해서 생육이 나빠게 된다. 반면 약전정을 할 경우 전정의 목적이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보통 성장이 왕성한 소나무는 강 전정을, 약해진 노목은 약 전정을 한다.

송진이 적게 나오는 10~3월이 전정 적기 금강소나무 같은 장송은 거의 전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할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10m 내외의 정원수로 심겨진 소나무는 먼저 소나무 수관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경쟁지, 역항지, 상수지, 하수지, 교차지, 고사지, 이병지 등을 파악하여 가지를 속아내고, 그 다음에 남은 가지의 하나하나를 손바닥 퍼듯이 속아서 전정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진전정, 정기전정, 전체전정의 대상 소나무는 반송, 다형송, 조형소나무(둥근소나무) 등이다. 소나무 전정 시기는 일년 내내 전정이 가능하나 가능한 송진이 적게 나오는 10월부터 3월까지가 좋다.

전정의 Key point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강한 신초가 자라고 길게 남기면 약한 신초가 나온다. 따라서 강한 가지는 길게, 약한 가지는 짧게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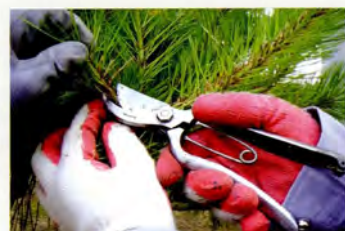


전정한 후의 외형은 가지가 마치 손바닥을 펼치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



거의 고사 상태 또는 살아 있어도 쓸모없는 것은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자른다.

전정가위의 올바른 사용법



가위는 자르는 칼날이 남겨 놓은 쪽으로 향하고 잡아주는 날이 바깥, 즉 잘려지는 가지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눈 보호와 빠른 유효 형성을 위함이다.





가드너들을 골병 들게 한다 정원의 잔디

글 소순복 기자

美 미시간 주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경을 잘한 주택의 가치는 일반 주택보다 5~11% 오른다고 한다. 주택 조경중에서도 핵심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잔디밭. 아름다운 잔디밭은 정원의 중심이며 삶의 여유로움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가드너들은 괴롭다. 잔디 관리에 골병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잔디를 심느니 꽃을 더 심어라?

"정원의 잔디. 보기는 좋는데 관리를 하다 골병이 들겠어요." 정원에 100평 규모의 잔디를 가꾸고 있는 윤기남씨. 그는 누군가 정원에 잔디를 심는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다고 한다. 아니면 잔디밭을 줄이고 그 공간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는 방법을 권한다. 그만큼 정원의 잔디관리는 가드너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과제이다. 그렇다고 그의 말처럼 잔디를 없앤다면 '양과 없는 찌뽕' 이요, '검초 없는 약방' 이 아니던가.

그 골치 덩어리 잔디 관리, 특히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이 되면 잡초까지 제거하느라 가드너들은 땀별 아래에서 땀을 비오듯 쏟아내야만 한다. 그럼에도 잔디밭은 풀밭으로 전락해버리기 십상이고, 그 주인은 게으름뱅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감수해야 할 시기이다.

8월 관수는 2~3일에 한 번 '흙뻑' 정원의 잔디는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는 식물이다. 계절에 따라 꽃도 핀다. 그러나 종자로 번식되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 지하 또는 지표면을 덮듯이 자라며 번식한다. 장마가 끝난 8월, 잔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수와 예초이다. 전문가들은 잔디 잎이 살짝 말라 건조할 때 관수를 해주고 권한다. 보통 2~3일에 한번 관수하는 것이 좋는데, 1회 관수시 흙뻑 젖을 만큼 충분량을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과유불급. 과습하면 병 발생이 촉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을 주는 시간도 가능한 오전 일찍이 좋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 관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잔디는 월 1회 깎고, 높이는 3cm 정도 유지 관수 못지않게 중요한 관리가 바로 예초이다. 잔디 관리의 필수 요소가 관수, 통풍, 예초인 만큼 잔디를 깎는 작업은 아름다운 잔디를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잔디를 제때에 깎지 않으면 잔디가 너무 웃자라 관리가 어려워진다. 잔디

를 깎으면 잔디의 잎수가 증가해 밀도가 높아지고, 잔디의 생장을 조절할 수 있어 잡초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잔디를 깎는 시기는 잔디가 4~5cm 정도 자라면 깎아주어야 한다. 한국잔디는 보통 5~6월과 9~10월에는 월 1~2회, 7~8월에는 월 2~4회가 적당하다. 하지만 캔터키블루그래스는 3~11월에 월 4~5회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잔디를 깎는 높이는 한국잔디는 2.5~3cm, 캔터키블루그래스는 3cm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 깎는 높이를 너무 낮게 하면 잔디의 생육이 나빠져서 잡초의 발생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깎지 않도록 주의한다.

깎은 잔디 그대로 두면 통풍 안 돼 '병'의 원인 잔디를 깎은 후에는 갈퀴로 긁어서 다른 곳에 버려야 한다. 깎은 잔디를 그대로 두면 잔디가 병이 나거나 멀칭한 잔디도 시들해진다. 잔디 관리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통풍이 불량하면 잔디가 연약하게 자라 병의 발생이 많아진다. 또한 깎은 잔디를 그대로 잔디위에 방치하면 잡초씨가 잔디밭에 떨어져 다시 싹을 틔우게 된다. 잔디를 깎는 이유 중 하나가 잔디 사이에 있는 잡초가 씨를 땅에 떨어뜨리기 전에 제거해주기 위함도 있다. 예초기나 수동 잔디깎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대가 장착된 자동 잔디 깎는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잡초씨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깎은 잔디는 밭이나 나무 아래 빈 공간에 두면 멀칭 효과가 있고, 추후 속성시켜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잔디 깎는 기계

잔디밭 규모 & 제품의 성능 꼼꼼히 따져 구입



국내 잔디 관리 용품시장은 골프장 잔디를 타깃으로 하는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도 도시민들의 가든 생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정원을 타깃으로 하는 용품 시장은 미성숙 단계이다. 일부 소수 업체의 독과점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스웨덴의 허스카바나(www.kjh.co.kr)나 독일의 보쉬(www.bosch-pt.co.kr)가 국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정도. 국내는 물론 세계적 대표 브랜드이기도 한 두 강자의 제품을 비교(?) 소개한다.

잔디깎기가 사회적 지위는 아니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들이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할 때는 잔디의 규모나 제품의 성능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잔디깎기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할 필요는 없다. 잔디밭이 30평 규모에 불과한데, 탑승식 기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규모에 맞는 유용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동 방법이나 가격도 다양하다. 작동법은 수동식에서부터 전동식, 나아가 로봇까지 등장해 정원생활의 편리를 돕고 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몇 만원대부터 비싸게는 1000만원까지 있다. 국내 대부분의 제품이 그렇듯이 저가에는 중국산 제품이 많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수동·엔진·로봇까지 다양한 제품 시장에서 판매

스웨덴 허스카바나의 한국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진이레의 임성훈 상무는 정원 규모가 20평 이내면 수동모터로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좀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충전식이나 전기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수동 제품의 가격대는 10만원대부터 12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다. 잔디밭 규모가 20평을 넘어설 경우에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엔진모터를 사용하면 작업이 수월하고 편리하다. 단점이 있다면 소음이 있고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격대는 20만원대부터 150만원대까지 있다.

인간의 대체 제품 로봇도 있다. 그린 아이템 로봇은 탄소의 발생을 없애고 작업에 따르는 소음과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다는 것. 설치비를 포함하여 4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그 이상의 고가 제품도 있다.

자료 협조

스웨덴 허스카바나의 한국 대리점
 ㈜경진이레 www.kjh.co.kr
 한국로버트보쉬 (www.bosch-pt.co.kr)
 한국잔디연구소(www.ktri.or.kr)
 한국잔디협회 (www.ktia.or.kr)
 농업회사법인 ㈜엘그린(www.green.co.kr)

허스카바나 54



정원용 수동모터로 사용이 간단하고 내구성이 탁월한 제품이며 작업폭이 40cm로 절단이 우수하다. 잔디를 아름답게 깎는 밀모어 제품이다.

5개 날로 구성된 원통형 밀
절단하는 폭은 16" (40cm)
절단의 높이는 12mm~38mm로 조절 가능
무게는 8.6Kg
45리터 풀받이를 별도로 판매
가격 160,000원

카스텔 CS434



푸쉬모터로 폭 43cm 크기의 강철 덤프와 180mm의 볼 베어링이 장착된 바퀴는 작업에 편리함을 준다.

Brigge & Stratton의 450Eseries 엔진장착 리코일스타팅 방식으로 스타팅
네 바퀴를 따로 높이 조절
절단 높이는 27mm~80mm 사이로 조절
무게는 26Kg
60리터 용량의 풀통이 장착
가격 460,000원

로봇모아



ASA플라스틱의 몸체로 조용하며 작업자가 없어도 스스로 잔디를 깎는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을 하고, 정원 모양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도난 방지용 경보장치도 부착되어 있다.

18V 배터리를 이용한 구동 / 시간당 37평 / 작업 경사도 35도 작업 가능 / 충전시간 45분 및 90분의 작동시간 / 절단폭 3개의 칼날을 이용한 22cm 작업높이 20mm~60mm / 무게 10.9kg
가격 6,000,000원

AHM 30



4개의 강력한 스틸 굴곡 날을 사용하는 실린더 커팅 시스템으로 정확한 절단이 가능하다. 바닥 날의 탈부착이 용이하고, 특수 기어 감속 장치를 적용해 바퀴가 유연하다.

부드러운 커팅감
높이 12~40mm,
너비 30cm 절조 가능
가격 147,200원

Rotak 32



휴대 및 운반이 용이한 6.8kg의 경량으로, 벌초가 힘든 상황에도 강력한 힘으로 해결하는 파워 드라이브 모터가 장착돼 있다. 잔디를 많이 담을 수 있고 비우기가 편리한 31리터 잔디 수거함이 있다.

모터파워 1200 W / 토크 13 Nm
벌초높이 32 cm / 벌초시스템 회전날
중량 6.8 kg, 잔디수거함 용량 31ℓ
벌초높이 세팅 20~60 mm
가격 256,000원

Rotak 40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한 Ergoflex System으로 작업시 작동감 향상과 피로를 대폭 감소시켰다. 취급과 보관이 편리한 접이식 핸들이고, 가장자리까지 정교하게 절단하는 잔디밧이 장착돼 있다.

모터파워 1700 W / 토크 22Nm
벌초높이 40cm / 벌초높이 세팅 10단계, 핸들 조정 / 핸들타입 Ergoflex-System / 대용량 잔디수거함 50ℓ
가격 436,800원

Gardening DIY

화병으로 리폼하기

음료수병의 화려한 변신

글·사진 정지는 기자



TIP

꽃을 오래도록 감상하려면



절화란 식물을 뿌리 위에서 잘라 그 상태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절화를 물에 꽂아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을 절화의 수명이라고

한다. 수명을 길게 유지시켜 꽃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준다.
2. 너무 고온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3. 꽃의 물을 자주 갈아주어서 노화방지과 미생물 번식을 막는다.
4. 줄기의 절단면을 사선으로 잘라주어 물의 흡수면적을 최대한 넓혀준다.

Step By Step



1. 빈병을 주워온다. 주워온 빈병을 깨끗이 닦아서 잘 말린다.
2. 페인트와 붓을 준비한다. 그밖에 리폼할 장식물을 준비해도 좋다.
3. 덜어놓은 하얀 페인트 혹은 아크릴물감을 빈병에 칠해준다.
4. 빈병에 틈이 안보이게 여러 번 덧칠하여 준다.
5. 페인트칠 한 빈병을 2시간 정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말려준다.
6. 남은 페인트에 원하는 색의 아크릴 물감을 넣어주고 섞는다. (농도조절을 해서 원하는 색상을 만들 수 있다.)
7. 색을 낸 페인트로 병에 원하는 글씨를 써 넣어준다.
8. 절화를 잘 다듬어서 높낮이를 맞추어가며 물꽂이를 해준다. 베이시가 되는 꽃으로 풍성하게 연출한다.
9. 그 다음 포인트가 되는 형태가 뚜렷하거나 개성 있는 색상의 꽃으로 포인트가 되게 꽂아주며 마무리한다.

낮은 냄비로 완성한 유럽식 키친 가든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유럽에서는 어느 집이나 주방 창가에 여러 개의 화분을 키운다. 요리에 쓰이는 허브류가 대부분인데 요리할 때 필요한 만큼만 따서 쓴다고 한다. 바로 채취한 잎은 맛과 향이 진하고 영양소의 파괴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라 할 수 있다. 낮은 냄비를 화분으로 활용해 허브 향 가득한 키친 가든을 만들어 보자.

재료

허브(한련화, 로즈마리, 레몬밤), 현 냄비, 아크릴물감, 스펀지, 종이 테이프, 맥반석, 펄라이트, 상토



한련화(나스터튠)

로즈마리

레몬밤

맥반석

펄라이트

상토

현냄비



관리법 관수는 표토가 완전히 마른 후에

허브는 대부분 햇빛이 잘 들고 통기성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좋아한다. 주방에 창이 있어서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반나절 정도 놓아 두었다가 들여 놓아야 한다. 관수는 표토가 완전히 마른 후 한다. 손가락을 흙에 2cm정도 넣어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때 하면 된다. 화분이 놓여질 곳이 음식물을 취급하는 주방이라 배수가 없는 디자인으로 식재했다. 맥반석으로 만든 배수층보다 많은 양을 관수하면 뿌리가 썩을 위험이 있으니 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1. 장식을 위해 종이 테이프에 글씨 모양을 파서 냄비에 붙인다.

2. 아크릴물감에 물기를 적당히 하여 스펀지에 적신 후 냄비 표면에 골고루 두드린다.

3. 완전히 마른 후에 종이 테이프를 떼어낸다.

4. 먼저 맥반석으로 3cm이상 배수층을 만들어 준다.

5. 상토와 펄라이트를 2:1 비율로 섞어서 상토 위에 조금만 넣는다

6. 먼저 한련화(나스터튠)를 포트에서 분리하여 식재한다.

7. 로즈마리를 포트에서 분리하여 한련화 뒤에 한 개, 옆으로 한 개를 식재한다.

8. 레몬밤은 키가 작기 때문에 포트에서 분리하여 앞쪽에 식재한다.

9. 식물과 식물 사이를 흙으로 꼼꼼히 채우고, 스프레이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수한다.



우리 실속의 정원

한국 전통의 美

기왓장에 물매화 심기

글·사진 김민정 아마추어가드너

화초를 키우면서 제라늄이나 임파첸스와 같은 원예종(일 년 내내 꽃을 보여 주는 화초)은 대체로 토분에 심어왔다. 그런데 야생화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옹기나 투박한 화분에 눈이 간다. 특히 기왓장의 매력에 푹 빠졌다. 화초란 화초는 모조리 기왓장에 심고 싶어졌다.

7년 전 기왓장에 난을 심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난다. 시냇에서 기왓장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왓장에 난을 심어 창원에서 서울 친구 집까지 가져가 선물할 정도로 기왓장은 내게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기왓장은 양쪽이 막혀있지 않아 흙을 고정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끼도 울려 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외부작, 즉 기왓장에 화초나 난을 심고 싶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들 역시 흙이 흘러내려 어려움을 토로한다. 어떤 이

들은 돌로 막는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흐르는 흙을 그냥 방지한다고 한다.

꽃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외부작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쪼개 한걸음에 달려갔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렘이었는지 모른다. 나와 같이 외부작 만들기애 관심 있는 가드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준비했다. 물론 그날 강의를 해 주신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진도 촬영했다.

물을 좋아하는 물매화

기왓장의 매력은 역시 외관의 고풍스러움, 한국 전통의 미에 있다. 요즘에 나오는 기왓장은 시멘트로 만들어져서 그 진면목을 감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초가 생육하기에도 어렵다. 그러나 전통의 기왓장은 특유의 무늬와 함께 진흙으로 만들어져 화초가 숨을 쉬기에도 적합하다.

그날 기왓장에 동지를 튼 주인공은 물매화(*Parnassia palustris* L.)였다. 반그늘과 물을 좋아하는 물매화는 물매화 또는 물매화풀, 매화초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와 습기 많은 산기슭에서 자란다. 꽃은 7~9월에 백색으로 피며 줄기 끝에 한개씩 달린다. 초보자들은 여름에 물관리가 어려워 화초를 말려 죽이는 경우가 많다. 물을 좋아하는 물매화는 초보 가드너도 어렵지 않게 키워볼 수 있을 것 같다.

◀ 외부작 강의를 듣고 집에서 직접 풍란을 심어봤다.



우리집 마당에 있는 정원



■ 사진 설명

1. 기왓장에 화초를 심으려면 생명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생명토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보통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이 흙은 일반 분갈이 흙보다 비싸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2. 생명토에 물을 섞는다. 수제비 반죽하듯 약간 되직하게 섞어, 기왓장 양쪽에 독을 쑤듯이 올린다.
3. 생명토를 만질 때는 생명토의 색이 검기 때문에 대야에 물을 떠두고 수시로 씻으면서 한다.
4. 양쪽에 생명토를 올린 후 화산석이나 작은 돌로 꼭꼭 눌러 돌을 고정시킨다.
5. 생명토가 마르면 갈라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생명토와 돌 사이에 이끼를 심는다. 이끼 역시 기왓장 가장자리에 꼭꼭 눌러 심는다.
6. 굵은 마사를 맨 아래에 깔고 물매화 심을 자리를 잡는다. 중간 마사로 고정시킨다.
7. 덧스러운 연흙을 더하기 위해 화산석도 올리고 굵은 마사로 마무리 하면 고풍스런 기왓장 물매화가 완성된다.
8. 완성된 물매화 외부작.

재활용의 미학 예술품으로 승화된 폐품

글·사진 소순복 기자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어 버려진 물건들이 누군가에 의해 유용한 가치를 되찾았다. 버려진 폐품들을 이용한 재활용의 미학. 그들 시선에서 세상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화분으로 승화시키는 창의적 발상. 그들의 사고의 전환이 놀랍다.

고정관념이 바로 쓸모없는 폐품

창의적 사고를 가져야 남들에게 주목받는 시대가 왔다.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경쟁력이 있다. 창의적 발상으로 만든 것들은 그것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하며 많은 이들의 호감을 갖게 한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들도 창의적 사고로 바라보면 새로운 예술품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가드너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내일을 사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바로 고정관념인 듯 하다.

안산과 시흥 박람회 빛낸 폐품 DIY

지난 7월 안산시에서 개최한 도시농업한마당(6일)과 시흥시 도시농업박람회(11~14일)는 보는 이들에게 '앗!' 하는 감탄사를 터져 나오게 했다. 이제 막 가든에 관심을 갖게 된 초보자의 시선에서 더 신선함과 흥미를 자극했을 수도 있었지만, 각 행사장에 전시된 폐품을 활용한 리폼 화분들은 매번 카메라 셔터를 정신없이 눌러 뒀 만큼 매력적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없는 생각의 전환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듯했다.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텃밭 아이템

이들 전시품들이 단순한 행사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아이들과 함께 가꾸는 주말농장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커다란 대지를 구획별로 나눠 '번호' '팻말'로 '내 땅, 네 땅'을 구분하는 주말농장. 그 단조로운 터에 우리 가족만의 아이코닉을 만들면 어떨까. 페타이어나 장화 화분에 작물을 심어 수문장처럼 입구에 세워둔다. 그곳에 '이 곳은 000 가족의 주말농장입니다' 라는 팻말 하나를 추가한다면,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텃밭이 되고 보는 이들에게도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물론 지저분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배수를 위해 밑에 구멍을 뚫는다던가,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다. 쓸모없어 버려지는 폐품들을 이용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화분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좋은 창의력과 함께 볼거리가 될 것이다.



재활용의 단골 아이템 페트병

페트병은 여전히 단골 아이템이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데 리폼 화분의 시작이 바로 페트병이나 스티로폼이었다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페트병이 없었다면 아마 리폼 화분의 시작도 늦어지지 않았겠는가. 그 원조에게 자리를 내주고,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할 터. 원조답게 페트병은 이번 박람회에서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작은 꽃이 피고,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의 텃밭이 되어서 말이다.



투박하지 않은 아름다운 조형미

드럼통이나 페타이어와 같은 산업용 폐기물이나 TV, 비디오 같은 생활 폐기전도 화분으로 등장했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사실, TV 브라운관에 구멍을 내어 화분으로 변신시킨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발상 자체에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실내나 실외 어디서든 생활 폐기물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화분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면 좀 더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페타이어의 변신은 꽤 인상적이었다. 단독 작품으로서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도 훌륭했다. 투박하지 않은 아름다운 조형미를 완성했다. 어느 곳으로 자리를 옮기든 멋진 텃밭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생활 의복이 먹거리까지 책임

생활 의복도 화분이 됐다. 청바지나 운동화, 장화 등에서도 생명이 싹을 틔웠고, 사람들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했다.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튼실해 보이는 청바지나 포딩선 앞채소를 양산했고, 누군가의 발이 되어주었던 장화에서도 결실의 풍요로움이 전해졌다.



연탄재에 다시 피어난 불 '희망'

연탄재의 등장은 관람객의 입가에 미소를 퍼지게 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구멍만 있으면 짓가락을 쑤셔 넣어보고 싶어 하는 총동처럼, 이를 만든 작가도 그런 순수함을 가진 소녀였을 거라는 생각이 괜히 든다. 화분의 유용성은 담는 데에 있다는 그 원리에 가장 충실한 아이디어. 연탄재의 작은 구멍 하나 놓치지 않고 식물을 심었고, 그 식물도 다시 빨간 불을 피내려하는 감성이 예뻐다. 그러나 지나가는 관람객 누군가는 말한다. 마치 줄업 작품 전시회 같다고. 아마 이 연탄재 작품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삶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이 작품에서는 묻어난다. 이외에도 골프백, 축구공, 포대자루 등 다양한 폐품들이 재활용됐다.

TIP

생활 속 톡톡 아이디어



1. 포트에 심겨진 트리안을 준비한다.



2. 토분의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화분을 준비해 칠사를 엮었다.



3. 완성된 인체 모형의 화분에 1번의 포트를 넣는다.



4. 어렵지 않게 예쁜 인테리어 소품 화분이 완성됐다.



五感 만족 자연식 최고의 반찬 식용꽃

글·장지은 / 자료협조 이정아 박사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외국 영화나 잡지에서 보면 음식 위에 꽃을 얹어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웰빙 영향으로 꽃을 식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서울의 유명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파스타, 샐러드 혹은 디저트 등에 꽃이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시각적인 미와 더불어 맛도 충족시켜주는 일석이조의 꽃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 허에 닿는 식감까지 일품

보기에 예쁜 음식을 향긋한 향과 함께 허에 닿는 식감까지 음미하며 먹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한련화와 같은 알록달록한 꽃을 화단에서 키워 야채샐러드에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 썰어 넣는다. 고추나 마늘 또는 후추와는 또 다른 향미를 느낄 수 있다.

■ 식물의 영양 집합소, 꽃가루

꽃은 잎이 변한 형태로 양분의 결정체이다. 꽃잎 자체에도 갖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지만 특히 꽃가루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 양이 줄기, 뿌리, 잎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뿐 아니라 효소와 호르몬, 미량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꽃가루 속에는 35%의 단백질과 22종의 필수 아미노산, 12종의 비타민과 16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 칼로리는 DOWN, 영양분은 UP

꽃은 식물의 영양분을 응축하고 있으며, 칼로리는 높지 않으면서도 아미노산,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하여 훌륭한 요리재료가 된다. 식용꽃과 일반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꽃 중에서 독성이 있거나 약취가 나는 꽃을 제외한 모든 꽃이 식용대상이다. 꽃을 식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식물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진다.

■ 무농약 자연식으로 효과적

식용꽃이라도 색깔, 향기, 맛, 영양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충족되어야 요리재료로 쓰인다. 요리법으로는 샐러드나 화전, 튀김, 수프, 술, 차, 케이크, 볶음밥, 아이스크림, 음료, 캔디 등이 있다. 식용꽃은 특히 무농약으로 재배하므로 자연식으로도 효과적이다. 식용 가능한 야생화를 개발하면 값싼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공해 재료를 꽃이 파는 동안 계속 따먹을 수 있다.



식용꽃으로 요리할 때 주의할 점

꽃 중에는 독성이 있는 것도 있기에 반드시 식용 가능한 꽃만을 먹어야 한다. 또 꽃집에서 파는 꽃들은 장식용으로 재배된 것이라 농약처럼 인체에 해가 되는 약물을 투여했을 수도 있으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What kind of you?

식용꽃의 종류

패랭이꽃

알싸하면서도 은은하게 매운맛이 특징. 석죽이라고도 불린다. 카네이션도 패랭이꽃의 한 종류다.

한련화

매콤한 맛이 나며 비타민과 철분이 많아 감기나 괴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쌀밥이나 비빔밥에 잘 어울리고,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이용되며 특별히 김치로도 만들어 먹는 꽃이기도 하다.

비올라

달콤하고 살짝 고소한 맛이 나며 은은한 향이 풍긴다. 향과 맛이 강하지 않아 요리의 종류에 상관없이 활용하기 편한 대신 열에 약하니 조심해야 한다.

팬지

단맛 가운데 은은한 신맛이 들고 향이 강한 팬지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며 샌드위치, 샐러드, 쌀, 비빔밥뿐만 아니라 음료에 띄워도 괜찮다. 식용 꽃 중 가장 흔한 종류로 노랑, 보라 색깔이 다채로운 것이 장점이다.

프리울라

약하게 씹을만 맛과 함께 달달한 맛이 나는 꽃. 팬지와 함께 식용 꽃 중 가장 흔한 종류 중 하나다.

베고니아

식용 꽃 중에서 신맛이 가장 강한 종류. 상큼하게 신맛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라 특히 샐러드에 잘 어울린다. 식초가 들어가는 요리에 식초 대신 사용하기에 좋다. 몸이 나른할 때 먹으면 효과가 있고, 상처나 부위나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데이지

상추처럼 담백한 맛이 나는 꽃. 빛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초밥이나 케이크를 만들어 꽃잎을 뿌려 장식하거나, 통째로 물과 함께 열려 아이스 큐브를 만들어도 예쁘다.

금어초

아삭아삭하고 씹쌀하기 때문에 썬이나 숙회 등과 잘 어울리는 대신 케이크 등의 단 요리와는 궁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금붕어를 닮은 데서 이름이 유래된 꽃으로 소화 기능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호박꽃

시골 들뜬에 지천으로 자라있는 호박은 원래 줄기와 잎을 씹으로 많이 이용해 먹기도 한다. 노란 꽃은 찜이나 꽃차, 술, 튀김으로 이용해서 먹는다.

고수와 바질향을 첨가한 방울토마토 파스타

VIBRANT PASTA

글·사진 윤자영 요리연구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긴 장마로 채 입맛이 돌기도 전에 무더위까지 이어져 미각을 잃기 쉽다. 그렇다고 냉면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만 들이킬 수는 없는 일.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온 가족의 입맛을 당기게 할 만한 파스타를 소개한다. 여름철 향기를 되찾아주라고 '바이브런트 파스타'라고 이름 붙였다.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 바실과 고수의 향이 첨가되어 시원한 지중해의 이국적 향취를 느낄 수 있다.



재료

1. 꽃게와 새우, 홍합, 바지락, 오징어 등 해산물. 그밖에 다른 조개류나 팔두기 등 제철에 있는 해산물을 취향껏 넣으면 된다. 지중해 이태리 지방 사람들은 제철 생선도 마구 넣어 먹기도 한다.
2. 일반토마토도 가능하지만 방울토마토를 선택했다. 탱글한 알맹이에서 육즙도 많이 나오고 더 달기도 하다. 또 손쉽게 재배할 수 있고 요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마늘은 일반 가정에서 재배하기가 쉽지 않은 재료다. 파스타에는 마늘의 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히 남해에서 공수해온 남해 햇마늘을 사용했다.
4. 고수와 바실. 이 파스타의 핵심재료다. 고수와 바질을 토마토소스에 섞으면 아삭하면서 청량한 지중해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바질은 집에서 기른 것을 사용했고, 고수는 마트에서 사 온 것을 사용했다. 다진 양파와 마늘도 함께 준비한다.
5. 그밖에 파스타면, 올리브유, 이태리 고춧가루인 페페론치노와 소금, 후추 약간.



1. 우선 해산물을 삶은 후 건져 놓는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산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 해산물보다 물의 양이 많으면 해산물의 진한 육수를 낼 수 없다.

2.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마늘을 볶는다. 올리브유는 발열점이 낮아서 금방 뜨거워지므로 우선 마늘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다진 양파를 넣는다. 잘 저어주지 않으면 금세 영겨 불으므로 부지런히 저어준다.

3. 마늘이 갈색이 될 즈음 방울토마토를 넣고 저어준다. 갈색이 될 때 재빨리 불치 않으면 금새 타서 마늘과 양파가 검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약불에서 토마토를 은근히 익히면 물러져서 토마토의 육즙이 새어나온다. 이때 토마토를 포크로 눌러서 으개주면 수월하다. 단, 으앨 때 토마토즙이 될 수 있으므로 앞치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토마토소스가 적당히 익을쯤 바실을 듬뿍 뿌려주고 향이 전체적으로 스며들도록 계속 저는다. 매운 맛을 좋아하면 이태리 고춧가루인 페페론치노를 뿌려준다.



5. 소스가 녹진해질 즈음 해물을 삶고 남은 육수를 반컵 넣어준다. 기호에 따라 화이트 와인을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뿌려준 뒤 은근한 불에서 잘 저어준다.

6. 소스의 향기가 진해지면 준비해 놓은 삶은 해산물을 넣고 두어 번 섞어준 뒤, 뚜껑을 덮어 은근한 불에 둔다.

7. 남은 육수에 파스타를 삶는다. 파스타 봉투마다 적당한 요리 시간이 적혀 있으므로 시간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 해산물 파스타에는 넓은 면으로 알려진 페투치네(Fettuccine)를 추천한다.

8. 삶아진 면을 넣고 마지막에 아삭한 향기를 더해주는 고수를 위에 얹어주면 완성. 고수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취향껏 적당히 넣는 것이 좋다. 기호에 따라 레몬 즙을 뿌려 먹어도 좋다.





이매동 드높은 곳 한가로움이 깃든 카페

cafe de nophie

글·사진 정지는 기자

길이 없을 듯 이어진 그 길 끝자락에 위치한 카페 하나. 누군가의 정원이겠지 하고 다가서니, 예쁜 철문 너머로 햇살에 눈부신 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매동 언덕위에 위치한 카페 드 노피이다.

정원이 중심이 되어 꾸며진 카페

이제 갓 오픈한지 일 년 반이된 카페 드 노피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번 출구를 나와 골목을 지나 아파트촌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오픈할 당시 편안한 정원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김준영씨는 변화가도 아닌 이곳 구석진 곳, 정원을 보고 한눈에 반해 차리게 되었다고 한다. 카페 내부 장식도 정원을 중심으로 테이블과 의자, 벽장식, 조명 등 세심하게 꾸며나갔다. 정원의 내추럴함과 실내의 모던한 느낌의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가 세련된 조화를 이룬다. 마치 유럽의 노천카페를 연상케 한다.

카페 내부는 어디나 예술적 향기가 물씬난다. 알고 보니 카페 주인이 미술을 전공했다고 한다. 카페의 인테리어는 물론 벽 한쪽을 장식한 분필로 그린 초코아트, 롱 형식의 다른 공간을 갤러리로 바꾼 것 모두 김대표의 작품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감성을 공간에 풀어 넣은 셈이다.

여유로움이 가져다주는 넉넉한 인심

이곳의 느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유로움 그 자체이다. 비단 정원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테이블간의 간격이 넓어 나만의 공간이 만들어져 아늑하다. 김대표는 대부분의 카페들이 테이블을 오밀조밀 붙여놔 독립적인 공간이 형성되지 않아 시끄러운 분위기가 싫었다고 말한다. 정원의 테이블 또한 공간을 넓혀 꽃과 나무를 최대한 즐길 수 있게끔 배려했다. 카페 드 노피에서 커피리필은 무료다. 경영상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리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돋보이는 곳이다.

핸드드립하듯 조심스럽게 물주기

정원 속에 차려진 카페이니 만큼 식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의 손길이 닿을수록 아름다운을 선물하는 식물. 여유로운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잔디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한다. 특별한 병충해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온 정성을 쏟는 것은 잡초뽑기. 뒤돌아서면 자라나는 잡초로 4~5월이 되면 전 직원이 정원에 나와 잡초 뽑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또한 테이블자리 밑에 깔린 잔디는 죽기 때문에 수시로 테이블 자리를 옮겨주고, 그래도 생겨버린 구멍은 조만간 잔디를 사다가 다시 메꿀 예정이라고 한다.

실내에 들어서면 큰 화분을 여러 개가 눈에 띈다. 흙 상태를 보고 직접 물을 준다는 김대표는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노하우라며 "식물 대부분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과습해서 죽는다"고 설명한다. 또 "물의 양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핸드드립을 하듯 천천히 흠에 물이 스며들듯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로스팅카페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커피만큼은 항상 좋은 걸 쓴다는 카페 드 노피. 직접 원두를 사다가 지인가게에서 항상 볶아왔다고 한다. 이제는 더욱 신선한 원두를 선보이기 위해 조만간 로스팅기계를 들여올 계획이다. 로스팅를 옆으로 커피바를 만들어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커피의 세계를 눈앞에서 직접 보여줄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cafe de nophie

현재 카페에선 핸드드립수업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실습위주의 수업과정은 일 반 이론에 치중한 수업에 비해 훨씬 흥미롭다.

인터넷상에서 카페 드 노피는 커피는 물론 브런치 카페로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다른 카페와는 차별화된 네 가지의 브런치메뉴가 가장 인기이다. 일반적인 토스트가 아닌 구운 감자를 커켜이 쌓아 올려 구운 '감자오믈렛', 따뜻한 치아바타에 미트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토마토 스투와 미트볼' 등의 음식이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야 맛 볼 수 있는 요리를 이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드높은 하늘만큼 아름다운 카페 드 노피

세련된 카페 드 노피라는 이름은 순수 우리말이라고 한다. 한글인 드높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식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곳 지대가 높아서 단순하게 지은 이름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이곳 풍경과 잘 어울린다.

밤에는 더욱 운치 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은은한 불빛들과 정원 속에서 맥주한잔 하노라면 휴양지가 따로 없다. 낮밤의 풍경이 이렇듯 다른 세 계절의 정원 모습도 무척이나 궁금하다. 알록달록 단풍이 든 모습,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모습을 보러 친구나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러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카페 드 노피이다.



스코틀랜드의 숨은 보석

St. Andrews Botanic Garden

▲ (위) 온실 주변 숙근초화원
(아래) 온실의 Aloe perryi

영국 에딘버러에서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보면 영화 폭풍의 언덕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주인공 히스클리프가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히스(Heath-소관목) 군락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전장에서 맞닥뜨린 세인트앤드류식물원은 스코틀랜드의 숨은 보석이라 할 만하다. 청양귀비, 만병초류, 양초류 등이 집중적으로 수집되어 있고, 온실에서는 선인장류를 비롯한 열대식물들이 장관이다. 특히 연못과 어우러진 암석원은 예술미의 정점을 찍는다.

■ 열악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극복

세인트앤드류식물원은 열악한 환경조건을 인위적으로 극복하고 7.5ha 면적에 고사리류, 초본류, 관목류, 고목류를 포함하여 8,000여 종류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식물원을 설계할 때 지형이나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식물을 배치하였다고 한다. 우선 바람이 많은 이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식물원 외곽 서쪽에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높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식물원 내부에서는 미세 기후를 조절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곳곳에 관목들을 이용한 작은 울타리나 숲을 조성하여 놓았다. 이는 온화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여러 정원들이 환경생태학적으로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 역시 이 식물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암석원이 자연스럽게 돌 자갈 언덕으로 조성되어 있고, 다시 히스원으로 연결되어 자연 상태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한다.

히스원은 식물원 내 알카리 토양에 조성되어 있는 숲과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만병초원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성인 피트모스 토양에 조성된 만병초원은 차가운 북풍을 막을 수 있도록 북서쪽

에 형성된 나무 숲 언덕에 조성되어 있다. 만병초원의 토양은 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황이나 유기물질을 첨가해 주고 있다.

■ 다양한 종류의 히스류 연중 개화

식물원에서 폭포와 연못은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새나 포유동물들을 불러 모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실 주변에는 향기원, 숙근초화원 등을 화려하게 조성한 것도 눈에 띈다. 앤드류 지방에서 보기 어려운 열대 또는 난대성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온실은 크게 세 기후대로 환경이 조절된다. 그곳은 다시 난온실, 전신온실, 고산식물원, 다육식물원, 온대지방 식물원, 지중해 식물원 등 일곱 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초화원은 한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살비아, 제라늄, 작약, 아스터, 델피늄 등이 혼식되어 연속적으로 개화하고 있다. 분류원에는 크롱퀴스트(Cronquist)의 분류 체계에 따라 식물의 진화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과별로 배치하였다. 히스원에서는 키 또는 개화기별로 다양한 종류의 히스와 침엽수, 만병초 등이 식재되어 연중 꽃핀 히스류를 감상할 수 있다.

▼ 연못정원



■ 한 폭의 그림 같은 암석원과 연못정원

암석원에는 스코틀랜드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수집한 고산식물을 중심으로 2,500여 종류 이상의 식물들이 심겨져 있다. 연중 꽃들을 감상할 수 있지만 특히 5월에서 6월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화려한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필자 일행이 그 곳을 방문한 시기도 때마침 5월 중순. 바위취(Saxifraga)류를 비롯하여 많은 고산 식물들이 개화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 많은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풍광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암석원에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여러 개의 폭포와 계류를 만들면서 아래쪽에 연못을 만들고 주변에 수생식물과 수변식물이 연못정원(water garden)을 형성하고 있는 것 또한 이곳의 백미다. 이는 새와 포유동물을 끌어 모아 식물원의 생태계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 밖에 17세기에 많이 이용했던 약초나 염료식물을 중심으로 식재한 17세기 정원, 채소원, 도시정원 등을 조성하여 성인 교육에 주로 이용하는 전시정원(demonstration garden), 스코틀랜드 국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허브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빠른 걸음으로 둘러보아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감동의 식물원이다.

※ 본 기사의 내용과 사진은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한 <꼭 가봐야 할 세계의 식물원 61>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자가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한폭의 그림같은 연못과 암석원 전경





영국 가든 디자이너의 정원

손관화 교수 (<http://sohn.yonam.ac.kr>)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영국에서 가드닝 연수를 할 때 영국 가든 디자이너 교육을 알고 싶어 Oxford college of garden design의 단기코스를 신청했다. 1년 학위(diploma) 과정을 들어가기 전 내가 가든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코스로 전체 가든 디자인 강의를 축약해서 소개하는 강의이다. 7시간씩 4일간 진행되는 이 강의는 옥스포드에 있는 대학에서 하지 않고 헨리온템즈(Henly-on-Thames)라는 작은 시에 있는 이 학교의 화장이고 가든 디자이너인 던칸 헤더(Duncan Heather)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4일 강의가 500파운드(약 100만원)였다. 던칸 헤더의 집은 시 외곽에 있어 헨리온템즈의 한 가정집에서 숙박하면서, 남의 차를 얻어 타면서 아꼈던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은 변호사, 수의사, 건축가, 주부 등 다양한 이력의 성인들로 변호사와 수의사가 가든디자이너로 직업을 바꾸겠다고 와 있었고, 불경기에 해고된 스페인 건축가가 가든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석하는 등, 한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던칸 헤더는 유명한 가든디자이너 존 브룩(John Brookes)의 제자이고 그를 무척 존경하는 것 같았다. 던칸 헤더는 조경 교육을 잘 받아 주어진 정원 디자인을 위한 접근 방식이 체계적이고 공간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정원을 디자인하는 신진 디자이너였다. 그러면서 정원을 자연과 예술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첨부사진은 던칸 헤더의 집인데 정원이 약 2에이커(약 2500평)이다. 가족은 부인과 개 2마리, 그리고 고양이 2마리였다. 정원은 주택을 중심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정원 주변의 느슨한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에는 주택에 부착된 작은 온실이 2개 있고 주택의 테라스와 연결된 작은 연못이 있으며 테라스에는 테이블과 의자, 대형 화분들을 잘 배치해 실의 거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옆 뜰은 키친가든을 만들어 채소와 꽃이 가득 차 있었고 키친 가든 한 끝에 닭장을 만들어 닭을 키우고 있었다. 키친가든에는 빗자루나 물소리, 화분 등의 정원용품을 장식물처럼 잘 배치해 두었다. 꽃으로 가득 찬 정원 곳곳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의자와 벤치, 그리고 독특한 정원 조형물을 배치하여 가든 디자이너의 정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정원을 직접 가꾸는 가드너로서 나무에는 새모이통이 걸려있고 나무 아래에는 벌통이 있으며 정원 구석에는 새끼로 연결된 퇴비상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농약과 제초제를 전혀 살포하지 않고 퇴비상자에서 썩힌 퇴비를 다시 정원에 뿌리면서 정원을 기름지게 하였다. 중심의 정원에서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면 연못이 있고 연못가엔 대형 식물인 군네라(Gunnera)가 이상한 나라에 못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직접 정원을 디자인하고 정원을 가꾸는 꿈같은 정원생활을 즐기는 가든디자이너 겸 가드너의 정원이다.



정원을 이끼로 꾸민 박갑수氏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정원이 있는 집에 사람들은 즐거워 보인다. 즐겁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마음에 들어 흐트하고 기뻐 보인다. 항상 주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고, 나누어 주는 후덕함과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움이 있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의 조화

인천 계양구 주택가에 7대째 보금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 박갑수씨 집에는 825㎡(250평)의 집과 정원, 132㎡(40여평)의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소나무, 소사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밤나무, 목련, 주목, 산수유, 병꽃나무, 조팝, 블루베리, 철쭉 등 30여종의 나무와 백합, 벌개미취, 백일홍, 개승마, 도라지, 등꽃(초롱꽃), 붓꽃, 뱀무, 여귀, 여주, 노루귀, 달맞이꽃, 아가씨, 으아리, 매발톱 등 200여종의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다. 유년시절부터 유난히 꽃을 좋아했다는 주인공은 매년 봄이 되면 설렌다고 한다. 연중 계획을 세우고 정원을 다시 디자인한다. 식물 식재 계획도 다시 세우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푸르름과 생명력이 강한 자유로운 정원

마당에 정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한 지는 23년 전부터이다. 맛있는 마당에 마운딩을 해서 언덕을 표현했고, 옛

기와의 판석을 깔고, 하나둘씩 식물을 심다 보니 오늘의 정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채소 위주의 정원이었으나 야생화의 매력에 빠져 꽃이 주가 되는 정원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집 마당 정원은 언덕을 중심으로 반구 모양의 길이 안쪽으로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집과 정원을 가로지르는 길에는 아치형 설치하여 아늑함을 더했고, 토속 여주의 덩굴진 모습이 운치를 더한다. 담벼락을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진 분경들 역시 전시장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주인공의 예술적 감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관리를 거의 하지 않은 듯한 마당 정원이 다소 산만해 보이기도 할 법했지만, 그는 인위적인 관리는 식물을 구속하는 것 같아 싫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초화류 사이의 채소도 정형적인 밭에서 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인다. 식물이 힘들어 하는 계절인 만큼 몸살을 앓는 식물들도 있었지만, 이 자유로움이 정원을 더욱 생기 있고 푸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



정원사, 인생을 배우듯 정원을 배운다.

옥상정원은 5년 전 인천시에서 추진한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옥상정원이라는 장소의 한계와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키가 작은 수종으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것이 눈에 띈다. 초화류도 건조나 추위, 더위에 강한 수종들이 대부분이다. 파고라 주위로 잔디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잔디정원 주변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화류가 자유 곡선을 그리며 식재 되어 있다. 잔디와 초화류의 경계에는 화려한 컬러의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써 구역을 구분하거나 정돈된 느낌을 더했고, 화색이 화려하고 선명한 초화류 주위로는 파스텔톤의 꽃들을 식재하여 은은한 감성의 어우러짐을 유도했다. 그는 지금의 정원의 모습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했다. 다년간의 경험도 역부족이었다고. "처음 조성할 때에는 식물들이 잘 활착하지 못하고, 우세한 종자에 밀려 죽는 식물이 많았다. 물이 금방 증발해 하루에도 여러 번 관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그는 또 옥상정원은 하중의 문제로 경량토를 식재 해야 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흙이 날아가 한 두 번 난파를 본 것이 아니었다고도 회고했다. 주위의 조언과 함께 그의 끊임없는 만학의 노력으로 그는 이제 우세 종자의 조절이 가능하다. 경량토의 문제로 해결했다. 송이 화산석을 도포해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보수력을 높였고, 번거로웠던 관수의 문제도 해결했다.

친환경 비료와 농약도 직접 제조

박씨의 하루는 정원에서 시작된다. 해가 뜨기 전에 정원을 돌며 관수를 하고 식물과 대화하고, 손질을 준다. 말이 없는 식물이지만 몸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행여 상한 흙이 있으면 자식이 아픈 것보다 더한 가슴앓이로 함께 아파한다. 번거로운 친환경 비료와 농약을 직접 제조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정성과 사랑이 엿보인다. 그는 어박과 계분을 물과 1:1로 섞어 1년 동안 숙성시켜 친환경 비료로 사용한다. 거른 액비를 500~1000배 물에 희석해 연 3회 정도 준다. 은행 껍질을 설탕 물과 섞어 숙성시킨 후 희석해 농약을 대신해 사용하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병도 없고 벌레가 붙지 않는 기피식물로 잎과 열매를 이용해 병충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원의미를 완성하는 이끼

정원 곳곳에 보이는 이끼들이 흥미롭다. 주인공은 "이끼는 보는 이에 따라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고, 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끼가 여자의 화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정원의 한쪽 둘 위에 자라는 이끼는 보잘 것 없지만, 느낌은 큰 침경물과 같고, 분경을 완성하고 이끼를 덮으면 아름다움과 함께 시간이 묻어나는 듯하다. 여자에게 화장이란 더 돋보여주는 미의 완성이라 생각되듯이 이끼는 정원과 분경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라며 이끼 예찬론을 늘어놓는다. 이끼는 자신의 무게 몇 배의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나 분경에서 습도 조절 효과가 있다. 그의 정원에서 비단이끼, 넉줄고사리이끼, 솔이끼 등 3종류의 이끼를 볼 수 있었다. 생김 모습대로, 비단처럼 곱다고 해서 붙여진 비단이끼, 넉줄고사리를 닮았다 하여 불리는 넉줄고사리이끼, 소나무를 닮은 데서 솔이끼라 불린다. 이끼가 모두 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환경에 맞는 곳에 배치해야 번식도 잘되고 색도 선명하다고 한다. 비단이끼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끼이고, 건조에도 강해 활용도가 높다. 이끼의 번식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돌이나 바위에 붙여주면 된다. 많은 양의 번식을 원할 때는 이끼를 말려 손바닥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것과 밀가루로 묽게 풀을 쑤어 버무려서 바위나 돌에 붙여주면 된다고 그는 귀띔했다.



올해의 또 다른 꿈, 이끼 작품 만들기

가까운 일본에는 많은 습도로 이끼의 군락을 쉽게 볼 수 있다. 때문에 일찍부터 이끼를 테마로 한 식물원과 정원이 많다. 마니아층도 두터워 이끼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고 해석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끼 마니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적으로 이끼를 재배하는 농원도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번식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이끼를 수집해 재배하고 번식시켜 정원과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기도 한다. 박씨도 그런 마니아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끼만으로 한반도 모양을 만들고 백두대간의 굴곡을 살리는 작품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의 호응에 힘입어 그는 올해도 이끼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정원을 가꾸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그 세 번째 주인공으로 박갑수씨를 찾은 이유이다.



이끼 붙이는 방법

1



1. 물과 생영토를 1:1로 반죽하여 이끼의 뒷면에 바른다.

2



2. 이끼를 붙일 자리에 놓고 공간이 생기지 않게 밀착시켜 준다.

3



3. 경사가 있는 곳에는 분재 와이어로 이끼를 고정시켜 준다.

4



4. 고정된 이끼 가장자리를 나무젓가락으로 눌러 주면서 볼륨을 준다.

5



5. 같은 방법으로 전체에 이끼를 붙인 후 공간이 없도록 이끼 뒷면에 생영토를 덧바르고 한번 더 젓가락으로 모양을 잡아 눌러 준다.

6



6. 이끼 예술작품이 완성됐다.



바다를 우리집 정원에 끌어 들이다 신금철 김순한 부부의 제주도 바다 정원

글·사진 정지은 기자

제주도로 가는 길목 뚝마리가 보인다. 용의 눈알자리라는 살곶이, 골목 안으로 들어 가보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서 있다. 해안가 근처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 가다보면 언덕 자락에 위치한 신금철, 김순한 부부의 제2의 보금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차로 50분, 도시와 가까운 바다를 가다

대문 옆에 조그마한 텃밭, 돼지감자, 고구마, 콩, 토란 등 소소한 작물이 무성해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부부의 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직은 손이 닿지 않는 느낌이 전해져 온다. 집이 완공된 지 일년 반,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초보 가드너 부부이다.

평촌의 아파트촌에 사는 평범한 부부는 왜 제주도 집을 짓게 되었을지 의문이 생긴다. 평소 아파트 배란 다가든을 가꾸면서 드넓은 정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해왔던 김순한씨, 그녀는 이제야 그 꿈을 실현시켜가

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전원생활은 천천히 준비중이다. 부부의 직장인 서울에 있는것도 이유지만 그들의 고명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시작될 듯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현재는 주말을 이용하거나 틈틈이 시간이 날 때 마다 내려와서 정원을 하나하나 가꾸어 간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근차근 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차로 50분,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곳 말고 있을까요?” 많고 많은 전원주택단지 중에서 왜 제주도인지 묻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말하는 그녀.



살곶이 마을 해안가 풍경



테라스 밖으로 펼쳐진 정원의 넓은 잔디밭



언덕 끝자락에 위치한 정자

정원 어디서든 바다가 눈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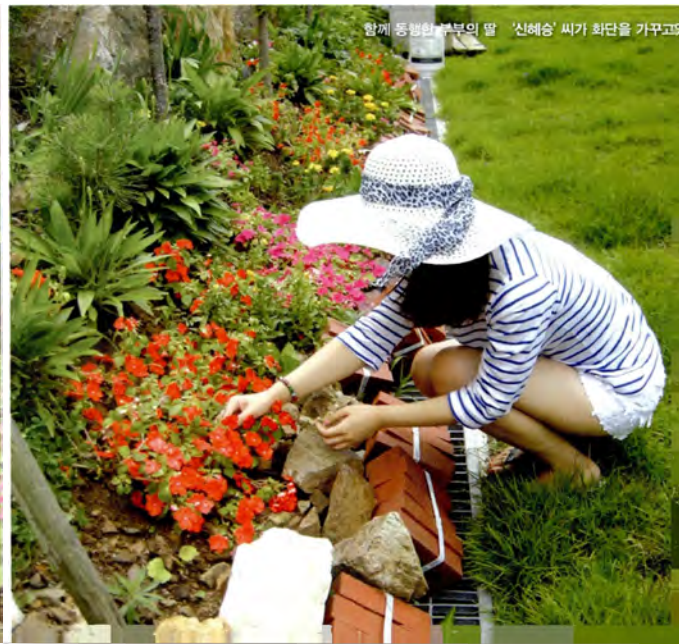
부부의 정원은 바다를 사방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그녀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바다를 보고 있는 정원의 초록잔디들이 묘한 풍경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아마 제주도 바다의 수평선도 부부의 정원인 듯 싶다. 시간마다 변하는 바다의 모습은 같은 공간이라도 늘 새로움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뷰를 선물해준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근사해진다고... 저 멀리 보이는 제주도의 불빛이 바다의 일렁임과 함께 은은한 멋을 느끼게 해준다.

초보이지만 정원을 둘러보니 곳곳에 그녀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아찔하기하다. 거실의 통창을 마주한 암석가든은 꽤나 근사하다. 또 암석 곳곳에 심겨진 작은 관목들은 자연스러움을 더한다. 암석 앞으로, 아직은 어리지만 크면 멋진 수형의 나무도 직접 사다가 하나하나 심었다. 넓은 잔디정원과 암석가든으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공간을 꽃밭으로 바꾸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정원 한 귀퉁이에는 나무에 가렸지만 장독대가 놓여 있다. 꽤나 친숙한 존재이면서 한국정서의 정원을웁으로 이만한 게 없지 싶다.

또한 탁 트인 잔디마당 끝에는 정자가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자 위에서 가든파티를 하거나 가족끼리 바다를 배경으로 담소나누기 좋은 공간으로 이용된다. 집 뒤쪽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공터는 키친가든으로 꾸며 놓았다. 집 울타리 옆에 텃밭을 가꾸긴 하지만 대문을 넘어야 하는 거리감이 있는데, 키친가든은 문 하나만 열면 토마토, 가지, 상추 등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녀는 "여기에 쉼터 공간보다는 부엌창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채소들이 심어져 있고 꽃이 보이는 공간이 요리 할 맛 나는 부엌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메리골드와 아프리카 봉선화로 예쁘게 가꾼 화단



함께 동행한 부부의 딸 '신혜승' 씨가 화단을 가꾸고있



벼락을 맞아 독특하게 꺾인 모양이 정원에 멋스러움을 더한다.



집 주인이 자랑스레 소개하는 소나무.

벼락 맞은 소나무, 집의 수호신

집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니 이집 정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 오른쪽에 커다랗게 자리 잡은 소나무 한그루. 집주인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 나무는 크기도 크지만 멋스럽게 꺾인 나무 수형에 절로 눈이 간다. 독특한 꺾임의 소나무는 바로 벼락 맞은 소나무라고 하는데, 액수로는 따질 수 없는 값어치가 나간다고 한다. 수 만분의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소나무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집의 수호신 노릇을 톡톡히 하리라 믿는다. 소나무의 형태며 의미며 이집의 심볼트리로서 손색이 없다.



화단 위의 암석가든, 물배추와 부레옥잠도 정원에 멋을 더한다.



소나무 아래서 본 정원풍경



집 뒤편의 키친가든



화려하고 럭셔리한 캠핑 여행
Glamping

Glamping 이란...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 많은 럭셔리 캠핑

글램핑은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 많은 럭셔리 캠핑이다.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귀족적 야영을 뜻한다. 장비·먹거리·연료 등을 모두 행기는 캠핑의 번거로움에 착안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식 호텔 글램핑은 야외 바비큐 디너를 즐긴 후 편안하고 아늑하며 럭셔리한 잠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숙박은 야영이 아닌 호텔 객실 이용이 많다. 이러한 글램핑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글램퍼'(Glamper)라 칭한다.

고급 호텔 같은 대형 카바나 캠핑 **제주신라호텔**

국내 최초로 호텔 캠핑을 선보인 제주신라호텔은 럭셔리 글램핑의 진수를 보여준다. 마치 자연 속에 호텔 객실을 옮겨 놓은 듯 고급스럽고, 거기에 제주의 이국적 풍경이 곁들여져 이색 풍경을 자아낸다. 대형 카바나 스타일의 텐트 역시 흥미롭다. 크기만도 약 12평 규모로 호텔 일반 객실 사이즈 안하고, 텐트 안에는 벽난로를 비롯해 4인 가족이 누워도 충분한 소파 침대가 들어져 있다. 4인~8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도 있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팬던트 조명은 물론 피로를 풀어 줄 힐링 스톤 풋스파까지 웅만한 호텔 객실 수준 그 이상이

서비스된다.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고 보드게임도 즐길 수 있으니 여행객들이 굳이 답답한 실내를 찾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로맨틱한 바비큐 디너도 준비돼 있다. 제주의 전통과 해외 글램핑의 이국적인 맛이 결합되어 독특한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재료나 장비 등의 모든 것은 호텔에서 준비해 주기 때문에 재료를 구워져 성찬을 즐기만 하면 된다. 디너 가격은 18만원. 성인 2인 이상 주문 가능하다.
문의 및 예약: 1588-1142 / 064-735-5114
www.shilla.net/jeju



Tour 신라호텔의
문라이트 트램핑 패키지
제주신라호텔에서는 올 가을 '트램핑(Tramping)'도 선보인다. 트램핑이란 원래 트레킹(Trekking)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이지만, 신라호텔은 트레킹과 캠핑을 넘어선 글램핑(Glamping)을 조합해 트램핑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제주의 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즐긴 후 호텔로 돌아와 럭셔리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신라호텔은 특히 '문라이트 트램핑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패키지(2박 이상 예약 가능)는 제주에서 G.A.O와 함께하는 문라이트 트레킹을 즐긴 뒤 글램핑 디너뿐 아니라 나이트 무비, 야외 노천 스파 문라이트 스위트 등으로 이루어진다. 야국적이고 로맨틱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패키지로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도심 속 자연에서 누리는 캠핑 여행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의 캠핑존은 평소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 그리고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캠핑인더시티 by Walkerhealing'를 제이든가든으로 옮겨와 재 오픈했다. 캠핑인더시티는 '도심 속 자연에서 누리는 캠핑 체험'을 컨셉으로 하여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인디언 텐트'도 새롭게 설치해 이색 캠핑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별도의 준비 없이 도심 속에서도 캠핑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아차산의 숲 속 경관이 도심속 자연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색 풍경을 자아낸다. 이곳 글램핑의 하이라이트는 바비큐 요리. 프리미엄 캠핑 장비를 활용하여 해산물과 육류를 비롯한 최고급 바비큐 요리가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주중에는 디너(17:30~21:30)만, 주말에는 런치(10:30~14:30)와 디너로 숙박을 제외한 그릴 체험으로 진행되는데, 가격은 9만원에서 17만원까지 코스별로 운영된다. 푸른 아차산과 도심 속이라는 입지를 살린 <캠핑 인 더 시티>는 올 여름, 바빠서 휴가계획이 미뤄진 도시민들에게 강추할 만한 글램핑 장소이다.
문의 및 예약: 02-455-5000 (사전 예약제로 운영)





Glamping

호텔 가든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캠핑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캠핑&그릴 (Camping & Grill)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시크릿 가든에서 '캠핑&그릴 (Camping & Grill)'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캠핑&그릴은 직접 캠핑의 묘미를 느끼며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뒤로는 동백섬이 앞으로는 탁 트인 해운대 바다를 내려다보며 프라이빗 한 나만의 여가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천정이 오픈되는 일명 인디언 텐트, '티피 텐트'에서는 숲속 바비큐의 맛과 재미에 빠져볼 수도 있다. 텐트 내에는 조리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스노우 피크의 IGT 테이블과 캠핑용 키친 웨어가 구비되어 있다. 캠핑&그릴은 캠핑 바비큐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통 메뉴로 제공하고 있고, 메인 재료에 따라 4가지로 선보인다. A코스는 양갈비, 소고기 꽃등심, 전복을 B코스는 소고기 꽃등심, 해산물을 C코스는 돼지 목살을 메인으로 제공한다. 코스별 가격은 6만5000원~8만5000원.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코스 메뉴를 선보이는데, 계절 코스요리는 11만 원이다. 저녁 캠핑&그릴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점심은 토, 일, 공휴일에 한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즐길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 및 문의: 캠핑&그릴 051-749-7437



럭셔리한 캠핑의 로망 실현 롯데호텔제주 캠핑존 오션 & 캠핑존 가든

롯데호텔제주는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줄 숲 속의 캠핑, 집을 떠나 자유를 만끽하는 캠핑의 느낌을 담아 캠핑존을 기획했다. 도시의 일상에 찌든 현대인에게, 낭만과 추억을 모른 채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캠핑존'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캠핑존은 두개의 테마존으로 운영된다. 중문 색달해변 바로 위 언덕, 올레길 8코스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존 오션과 호텔 내 300평 규모의 천연잔디 위에 있는 캠핑존 가든이 그곳이다. 캠핑존 오션은 마치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속 오두막을 떠올릴 만큼 예쁜 글램핑장이다. 푸른 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오두막집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로망의 장소이다. 호텔 내 300평 규모의 천연잔디 정원에 조성된 캠핑존 가든은 자연 속의 특급호텔이다. 6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호텔 수준의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식사 비용은 캠핑존 오션이 좀더 저렴한 런치 7만원, 주말과 공휴일 디너는 9만9000원이다. 캠핑존 가든의 런치 메뉴는 27만5000원(2인 기준), 디너 메뉴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없이 33만원(2인 기준)으로 운영된다.

문의 및 예약: 롯데호텔제주 캠핑존 064-731-4260





HERB

약초가 약초로서 인식된 것은 인간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려는 본능에 의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게 된 유독과 무독의 성능 구분 및 식이여부와 약물로서의 효과와 작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과정을 통해서다. 항간에 서 식체 및 오심에 식염으로 토하게 하는 예라든가, 남미 페루 토인들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키나나무를 사용한다거나, 흥인종의 여자들이 자초근(紫草根)을 먹고 피임하는 것 등이 그 예다.

현대 의학에서 강심제로 사용하는 디기탈리스(Digitalis)는 스코틀랜드의 민간약에서 유래되었고, 카밀레꽃(Chamomile)의 경련을 가라앉히는 효능, 발한제와 하제로 쓰이는 센나잎(Senna)은 서유럽의 민간약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이 그 좋은 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직접 먹어보거나 맛을 보아 물질에 대한 특수작용을 시험하고, 발생한 질병의 시기와 절기, 기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수집하여 물질들을 질병치료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실용, 활용 100%인 야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초 Tip을 소개한다.

야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초 - 상처가 생기면 구급용품을 쓰지만 약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약초 지식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모험도감-캠핑과 야외생활의 모든 것 (사토우지 아키)

Medicinal
Garden

우리 몸의 진정한 치유는 '약초'가 책임진다

가든인만을 위한 100% 야외활동 약초활용법

글·황주리 기자

HEALING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 광고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TV프로그램 등 각종 매스컴에서 조금은 무분별할 정도로 토해내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그 정도로 모두가 '병이 든 시기인가 보다'라는 안타까운 걱정을 하게 된다. 가벼운 수다를 통한 유행하고 즐거운 시간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할 정도니 이 사회가 병을 예방하는 사회에서 병을 치유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그렇듯 건강하려면 병에 들기 전에 사전 예방이 최고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그건 조금 사치라는 생각도 든다. '치유'라는 단어가 유행한 이유가 있긴 한가 보다. 그렇다면 우리는 '힐링'에 대해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을까?

DRUGS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아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곳 저곳 아픈 곳이 없고 특별한 원인과 병명을 모르고 호소하는 우리에게 의사는 평소 생활 습관이 문제이며 그것만 고쳐도 만병을 고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대인의 현재를 말해주는 거울이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그런 습관들이 고쳐진다면 병을 키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다만 가지고 있는 병을 의사와 약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양약인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 없이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 의아하면서도 신기할 뿐이다. 적어도 '가든인'을 읽는 진정한 '자연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예방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치료는 제대로 해야겠다. 하지만 우리는 치료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못하다. 우리 생활은 각종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에 노출되어 있다. 옛날 몸살 감기가 걸리면 생강 달여 마시고 따뜻한 아궁이 위 잔대에 누워 땀내던 시절은 간데 없고 약국이나 병원을 전전하며 항생제를 남용하는 우리들의 생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drug'는 'drug'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OUTDOOR



'힐링'이라는 단어보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유행어가 있다. 바로 '아웃도어와 캠핑'이다. 그렇다. 바야흐로 '아웃도어와 캠핑의 계절'인 8월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친구와 가족과의 아웃도어 캠핑도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는 즐거울 수 없다. 야외에서 취사 도중 데이거나 벌레에 물려 피부가 붓거나 발을 헛디뎌 상처가 나면 병원으로 직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지. 물론 심한 상황이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 약초 활용법에 대해 미리 알아놓아도 나쁠 것은 없을 것 같다. 특히 식물을 키우고 기르는 가든인들이라면 더욱 쉽고 빠르게 익혀질 것이다. 여차하면 집이나 뜰에 약초 하나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털여뀌



바위취



일월백설



지운영



무원자나무

벌레에 물렸을 때

석결명 : 파리나 모기에 물렸을 때 잎을 찢어 즙을 바르면 가려움증이 멎는다. 이때 잎을 손으로 비빈 후 필요한 부위에 얹는다. 석결명은 노란꽃을 피우며 종자가 씨 주머니에 들어있다.

거지덩굴 : 뿌리줄기를 짓이겨 그 즙을 바른다. 부기가 가라앉고 가려움도 멎는다. 거지덩굴은 까맣고 작은 열매를 만들어 붉은 꽃받침을 갖고 있다.

털여뀌 : 잎을 물에 씻은 뒤 꼭 쥐어짜서 나온 즙을 바른다. 털여뀌는 붉은 자주색 꽃을 피우며 줄기에 털이 많이 나 있다.

산달래 : 비늘꽃 줄기를 으개서 그 즙을 바른다. 가려움이 감쪽같이 낫는다. 산달래는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우며 꽃봉오리가 유난히 보충하게 생겼다.

기린초 : 잎을 씻은 뒤 으개서 그 즙을 바른다. 배인 상처에도 좋다. 기린초는 왕관같이 생긴 노란꽃을 피운다.

명아주 : 잎을 꼭 찢어 나오는 즙을 바른다. 잎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다시마가루와 섞어 충치에 바르면 아픈 것이 멎는다.

쇠비름 : 잎을 손으로 비벼서 나오는 즙을 바른다. 노란 꽃이 핀 뒤에 생기는 열매는 익으면 껍질이 갈라지고 씨가 나온다.

우산물통이 : 줄기나 뿌리를 두들겨서 나온 즙을 바른다. 이 때 줄기나 뿌리를 돌로 짓이기는 것이 효과가 좋다. 배인 곳에도 효과가 좋다.

여뀌 : 잎에 소금을 조금 넣고 비벼서 그것을 문질러 바른다. 여뀌는 연하고 붉은 작은 꽃을 피운다.

부엌을 때

집약초 (삼백초, 약모밀) : 잎을 물에 씻은 다음 신문지로 싸서 불에 쪄다. 부드러운 잎을 바른다.

바위취 : 잎을 물에 씻은 뒤 불에 쪄서 연하게 만들고, 그것을 환부에 발라 고름을 빨아낸다. 바위취는 흰꽃을 피운다.

질경이 (갈장구, 배부장) : 잎을 물에 씻은 뒤 불

에 쪄고 부드러운 잎을 바른다. 반창고를 덧붙여도 좋다.

식나무 : 잎을 불에 쪄어 (검은색으로 변함) 부드러운 잎이면 그 잎을 바른다.

제비꽃 : 전체를 소금으로 잘 비벼서 바른다. 해독 작용을 한다.

솔대 : 뿌리줄기를 짓이겨거나 갈아서 그 즙을 바른다. **까마중(강태, 감뚜라지)** : 잎이나 줄기 또는 열매에 소금을 약간 넣고 주물러 즙을 내어 바른다. 푸른 열매가 익으면 까맣게 되어 꽃은 흰색으로 핀다.

송알(잠장나무) : 잎을 비벼서 즙을 내고 참기를 섞어서 바른다. 피부병에 좋다. 황록색의 꽃을 피운다.

멸가치(옹취) : 잎을 비벼서 생기는 즙을 바른다. 옷이 얼었을 때도 좋다. 단, 열매는 건드리면 끈적 거린다.

베였을 때

고마리 : 잎과 줄기를 비벼서 즙을 내서 바른다. 흐르는 피가 멈추기도 한다. 꽃 위는 붉은 보라색을 띄며 잎은 흰색을 띤다.

발물버섯 : 배인 상처나 찰과상에 바로 포자를 뿌린다.

창질경이 : 잎을 비벼서 나온 즙을 바른다.

털여뀌 : 잎을 비벼 나온 즙을 바른다. 타박상에는 잎을 불에 쪄서서 바른다.

피막이풀 : 잎이나 줄기를 짓이겨 나온 즙을 바른다.

코피가 날 때

총려나무 : 줄기에 날 털 같은 껍질을 불에 태워서 쿡쿡멍을 막는다.

변비에

알로에 : 줄기를 갈아서 그 즙을 공복에 마신다. 토막을 내서 먹어도 된다.

화상에

가래 : 풀 전체를 짓이긴 뒤, 간장을 약간 넣어 나물처럼 무쳐서 바른다.

오이 : 얇게 잘라서 쥐어짜낸 즙을 바른다.

자운영 : 잎을 부셔서 그 즙을 바른다.

타박상에

털부처꽃 : 잎이나 줄기를 비벼서 즙을 내고 두통하게 바른 뒤 붓대를 감는다. 털부처꽃은 붉은 보라색 꽃을 피우며 잎 끝이 뾰족하다.

손발이 저릴 때

꽃마리 : 풀 전체에 소금을 약간 넣고 비벼서 저린 곳에 바르고 붓대를 감는다. 꽃마리는 연한 청색 꽃을 피운다.

손이 났을 때

하늘타리(취향외) : 열매를 짓이겨서 뜬 데 바른다. 열매의 단면은 꽃모양을 띄며 꽃은 노란색이다.

피부병에

와가래나무 : 익지 않은 푸른 열매를 나무절구(쇠철구는 안됨)에 찧어서 피부에 바른다.

괘이불(괴상이) : 풀 전체를 비벼서 즙을 내고 그 즙을 피부에 바른다. 저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

숙 : 잎으로 안경알을 닦는다. 물안경에도 좋다.

비누 대신으로

무원자나무 : 열매 껍질을 부스르려 주머니에 넣고 물속에서 주무르면 거품이 나온다. 이것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열매는 가을에 익는다.

취암나무 : 씨주머니를 말려서 이것을 물속에서 비비면 거품이 나는데 빨래를 할 수 있다. 가을에 깎기가 생기기 줄기나 가지에 가시가 많다.

나무가 뿜어내는 상쾌함

피톤치드

글 정지은 기자

상쾌한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시원한 물방울이 피부에 스치는 듯하다. 근처에 계곡이라도 있는지 둘러보면 보이는 거라곤 짙은 녹음뿐. 나무가 뿜어내는 상쾌함이 물방울을 쏟아내는 듯하다. 숲 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산림향이 풍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이다. 피톤치드는 소목 주위의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디프테리아 따위의 미생물을 죽이는 휘발성 물질로서 나무가 해충이나 미생물의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한다. 산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어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톤치드의 효과

쾌적감

산림욕의 쾌적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율신경의 안정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개선하거나 잠을 잘 자게 한다.

항균, 방충

식물의 방부, 살균을 비롯해 반나 육식의 곰팡이, 집 먼지 진드기 등의 방충에도 효과적이다.

소취, 탈취

산림 내에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동물의 사체나 썩은 나무 등이 있다. 하지만 공기는 상쾌하다. 산림에는 공기를 정화하거나 악취를 없애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항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감소효과가 탁월하다. 피로의 원인이 각종 스트레스나 우울증인 경우 항불안제나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장기간 투여시 부작용이 따른다.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대표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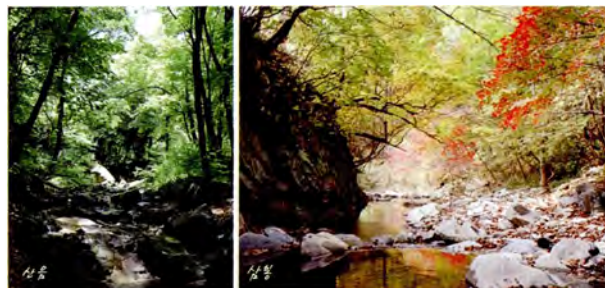
율마 *Cupressus macrocarpa* Hartweg 'Gold-crest'
측백나무과의 식물로 북미 원산의 식물로서 빛이 약한 곳에서는 노란색이 없어지며 연두색으로 변한다. 상심한 잎을 만지면 레몬향과 솔향을 섞어 놓은 듯한 향이 난다.



편백나무 *Chamaecyparis obtusa*
측백나무과의 상록수로 40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교목으로 가지가 늘어지듯 자라는 모양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히노끼'로 부르며 각종 피부질환과 아토피에 효과가 탁월한 걸로 평평이 나있다.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방향성 식물. 향료식물, 요리재료, 미용재료, 허브티의 원료 등에 사용된다. 상쾌한 솔향은 머리를 맑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유(에센셜 오일)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염증성 질환에 좋은 성분이 있다.



휴가철 가볼만한 국내 휴양림 리스트

검마산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검마산길 191
이용문의 : (054)682-9009

남해편백자연휴양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658
이용문의 : (055)867-7881

대관령자연휴양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이용문의 : (033) 641-9990

덕유산자연휴양림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이용문의 : (063)322-1097

백운산자연휴양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길81
이용문의 : (033)766-1063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이용문의 : (031)774-8133

삼봉자연휴양림

강원도 홍천군 내면 삼봉휴양길 276
이용문의 : (033)435-8536

운악산자연휴양림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184
이용문의 : (031)534-6330

유명산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이용문의 : (031)589-5487

장성축령산 휴양림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이용문의 : (061)-390-7770

중미산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1
이용문의 : (031)771-7166

지리산자연휴양림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음정길 152
이용문의 : (055)963-8133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악대학 겸임교수



김상익
농약비서 씨드림 상임대표



유봉수
이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윤승호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종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농사농업 연구회 회장



김귀순
(주) 그린페이버 대표



김상영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준권
농작가사



이창석
전 서울대학교
환경임예학과 교수

습도가 높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저승사자 '탄저병'입니다

산세베리아 잎에 크고 작은 검은 반점이 생기네요. 심한 잎은 쓰러지는 것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검은 반점 한가운데 타원형의 담황색 윤무늬가 생기지 않았나요. 질문하신 내용을 분석해보니 아마도 탄저병인 것 같습니다. 탄저병은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거나 안개가 오래도록 피어있을 때 물에 의해 전염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모든 식물의 잎이나 꽃, 과실 줄기에 발생됩니다. 처음에는 타원형의 담황색 점무늬가 생기고 후에 그 주위가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병반은 움푹하게 들어가면 그 부위에 작고 검은 점으로 된 병원균의 포자층이 생깁니다. 병반이 많아지면 식물전체가 말라죽기도 합니다. 예방법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주변에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제농약은 안트라콜이나 다이센, 다코닐 등 탄저병약을 1주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합니다.



뿌리썩음병, 오염되지 않은 상토를 사용해 예방하세요

다육식물의 뿌리가 썩어가고 말라죽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일까요?

다육식물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뿌리썩음병입니다. 병원균이 토양에 있다가 상처를 통해 뿌리와 줄기로 이동하여 피해를 주게 됩니다. 뿌리 줄기를 잘라보면 줄기 안이 검게 갈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방법은 병원균이 오염되지 않은 상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 및 치료에 적합한 농약은 침투성 살균제농약을 뿌리와 잎이 흠뻑 젖도록 살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잘 드는 칼로 병든 부위를 잘라내시고 약 7일정도 그늘에서 말라셨다가 양분이 없는 상토에 다시 심으시면 심상한 뿌리가 내려게 됩니다.



갈변화의 원인을 알고 여러 방 제법을 사용해 보세요

베란다에 심어놓은 제라늄 잎이 자주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라늄의 잎이 갈색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보니 주로 밑에 있는 잎이 그럴 것 같네요. 우선 화분에 물을 충분히 주고 물 빠짐이 좋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상토일 것입니다. 아니면 수돗물을 계속해서 주다 보면 염소성분이 농축되어 영양의 불균형으로 잎이 갈색으로 말라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육중이라도 화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시면 양분이 많은 흙을 환분 위에다 한 주먹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가을에 피었던 온시디움에서 또다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온시디움은 1년에 꽃이 두번 피는 건가요?

온시디움은 1년에 단 한번만 꽃이 피는 작물입니다. 꽃대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아마도 겹가지에서 나온 꽃대일 것입니다. 겹가지에서 나온 꽃대는 줄기가 가늘고 여러여 꽃수가 매우 적습니다. 식물은 환경이 유리하게 되면 꽃대가 일찍 형성되고 피게 됩니다. 화귀성이 있는 꽃이니 물 관리를 잘해서 오래도록 아름다운 꽃을 감상 하시기 바랍니다.

큐어링(curing)처리, 감자 상처를 낮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다눔은 감자가 자꾸자꾸 썩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감자가 썩는 것은 감자표면에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자는 육질이 많은 저온성 채소이므로 수확 후 반드시 상처가 아물도록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문용어로 큐어링처리라고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한다는 뜻입니다. 표피에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 30~33℃, 습도 90~95% 되는 곳에서 3~4일간 보관하여 수확시 발생한 상처와 토양에 묻어있는 병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자의 전분함량도 높아지게 되고 품질도 좋아지며 저장을 오래할 수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감자를 펼쳐놓고 환기가 잘되도록 보관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그 후에는 서늘한 곳에 아무렇게나 두어도 썩는 병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햇빛의 길이에 따른 암수꽃의 수가 달라지는 작물이 호박입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호박이 암꽃은 없고 수꽃만 많아요. 몇 개 안되는 암꽃도 열매가 크기도 전에 자꾸 자꾸 떨어지네요. 잎도 심상하고 덩굴도 좋은데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호박은 암꽃과 수꽃이 한 포기에서 같이 피는 식물입니다. 전문용어로 자가동주라고 합니다. 호박은 햇빛쪼임 시간이 길어지면 수꽃이 많이 피고 짧아지면 암꽃이 많이 피는 전형적인 단일성 식물입니다. 요즘이 1년 중 가장 햇빛쪼임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여서 수꽃이 많은 것 입니다. 암꽃이 수정이 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은 암꽃이 피는 날 온도가 높거나 비가 와서 수꽃가루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암꽃이 피는 이른 새벽이나 전날 호박이 달린 암꽃줄기를 아래로 향하도록 굽혀놓고 수꽃을 따서 수꽃의 노란 가루를 암꽃 주둥이에 묻혀 주신 후 꽃잎 끝을 손으로 눌러서 살짝 밀며 시켜 주시면 100% 열매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질소비료성분이 너무 많아도 수정이 잘 안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는 수확이 늦을수록 매운 맛이 올라옵니다

5월에 주말농장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덜 매운 고추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확을 해보니 엄청 맵더라고요. 고추 안 맵게 재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덜 매운 고추를 재배하려면 알맞은 고추 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종자를 선택해야 하나요? '오이맛고추'처럼 맵지 않은 고추종자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Capsaicin)이라는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산 보다

국내산 고추가 덜 매운 편입니다. 매운맛이 발생하는 이유는 캡사이신 성분이 집적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캡사이신은 고추 생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일조량, 점도함량, 배수력 좋은 모래질 성분이 많은 밭에서 키운 고추가 더 맵습니다. 재배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운 성분은 수확시기 가 늦을수록 높습니다. 즉, 고추의 생장이 끝나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맵지 않은 고추를 수확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고추 품종의 과피에는 캡사이신 함량이 적고, 태좌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고추로 말려서 고춧가루로 가공할 때에는 태좌의 제거유무에 따라 매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클 만큼 컸지만 다른 작물들에 비해 잘 익질 않네요. 달린지 많이 달렸는데 거름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다 익으면 뽑아내야 할까요. 다시 거름을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를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마토가 이전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열매가 달려도 크지 않고 작거나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큰 토마토는 반쯤 익었을 때 따신 후 2~3일 지나 전체가 빨갛게 익으면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가 수확이 끝나면 그 흙과 상자에 배수를 심으면 좋겠네요. 거름은 흙 무게의 10%를 주면 되는데요. 경량토를 섞어 넣었다면 보통 흙보다 가벼워서 약 5% 이내로 주면 됩니다. 거름은 사서 쓰신다면 흙살림에서 10kg짜리가 있습니다.



상자텃밭을 하나 가꾸어보려고 하는데,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서 상추를 키울 상자 크기의 텃밭밖에 가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추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싶은데,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은 화분에는 잎채소들밖에 키울 수가 없답니다. 고추나 토마토들을 심고 가꾸기엔 너무 늦었고요. 상추와 쪽파나 청경채 등의 씨앗을 뿌려서 가꿔보세요

절화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세요



집 화단에 피어있는 꽃을 꽃병에 장식하기 위해 잘라왔는데 좀 더 오랫동안 관상하고 싶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식물의 뿌리 위에서 자른 꽃들을 절화라고 부르는데, 뿌리를 잘라 주었기 때문에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분식물보다 관상기간이 짧습니다. 좀 더 오랜 기간 보기 위해서는 온도, 바람, 습도, 광조건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첫번째, 탈수현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번식하여 도관이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또는 도관 속에 공기가 유입되어 물올림이 방해되는 경우 등으로 탈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줄기를 재절단 하거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식물의 호흡을 하면서 체내 저장 되어있는 양분을 소모하게 되며, 그에 따라 발생되는 열에 수명이 단축됩니다. 적당한 저온에 식물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식물호르몬인 에틸렌의 발생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 식물이나 사과와 같은 과일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체상태의 에틸렌이 발생되지 않도록 줄기부분을 깨끗이 잘라주고 오래된 과일과 함께 두지 않는 노력을 한다면 보다 오래도록 아름다운 꽃을 관상할 수 있습니다.

August 2013 Garden In News

정원박람회 '전국 아마추어사진 공모전'

8월 20일까지 개인 및 단체부문 접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정원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수 있는 우수 사진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국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내가 꼭 찍은 정원 & 순천'으로 정원박람회장 내 정원, 순천시 관광지, 순천의 맛과 멋 그리고 순천의 정서를 담아낸 모든 소재의 디지털 및 슬라이드 사진이 공모 대상이다. 대상은 개인, 단체부문으로 나눠 총 36점을 시상하게 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당선작은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출품 규격 등 자세한 공모 요강은 정원박람회조직위 홈페이지(<http://www.2013expo.or.kr>), 순천예총(<http://www.artsc.kr>), 순천포토클럽(<http://www.sepho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규격 : 컬러사진 및 흑백사진 11x14인치 인화된 사진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반드시 출품표 작성 후 부착, 우편 또는 방문접수
출품료 : 없음
출품수 : 1인당 4점 이내
접수처 : 순천포토클럽(순천시 장영로 33, 장천동 51-8 이수B/D 2층)
문의 : 순천포토클럽(010-9430-3452)



공기정화와 에너지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바이오 월' 탄생



공기 정화식물과 청정기를 결합한 바이오월을 개발한 도시농업연구팀 김광진 박사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에너지 원천인 석탄과 전기 생산의 고갈로 다양한 과

학을 통한 에너지 대책방안이 이뤄지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에서 에너지 절감 대책중 하나로 식물의 생리와 특성을 이용한 벽면을 녹화하는 개발에 성공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김광진 박사는 "여름철 건물 안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기 정화식물과 청정기를 결합한 벽면녹화 시스템인 바이오 월(Bio wall)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월은 실내 그린 월 등 벽면녹화 중에서 공기를 강제 순환해 근권부 미생물까지 활용하고 넓은 공간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을 말한다. 연구팀에서 실험한 결과, 바이오 월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가 우수하고,

냉난방에 소모되는 에너지 절약에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반방 110ppb와 비교해 바이오 월이 설치된 방은 50ppb로 약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은 대조구보다 각각 56%, 66%, 8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바이오 월이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식물 잎과 뿌리로 순환하도록 해줌으로써 식물 주변 정화에서 넓은 공간 정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식물의 바이오 필터레이션 기능을 활용한 바이오 월은 실내온도를 최대 3℃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냉난방비의 15% 까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월은 식물의 잎과 토양으로 공기 순환과 물주기 자동화로 식물이 잘 자라 기르기도 쉽다. 사용될 알맞은 식물은 공기정화에 효과적이고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이 좋다. 가격은 1㎡에 약 75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며, 1년에 약 20%의 식물을 교체해야 한다. 이 교체 비용은 가정에서 일반적인 식물재배와 비슷하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바이오 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업체로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김 박사는 "이 시스템은 앞으로 사무실이나 상업공간, 가정 등에 보급될 예정이고 빌딩 건축 시 건물 공조형 바이오 필터레이션 시스템을 함께 적용하면 에너지 효율 빌딩 구현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031-290-6162

Garden In News

도시농업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서울시가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제2기 도시농업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는 도시농업양성교육은 도시에 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이론과 작물 재배기술, 옥 상농원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교육과정 중 일정 수 준 이상을 획득한 수강생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서울도시농업 전문가'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향후 서울시 및 구청, 단체에 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현장에서 멘토, 강사, 자 원봉사, 현장관리사로 활동하여 일자리 창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대상은 농업계학교 출신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농경력자, 농업관련교육(50시간 이상)이 수자, 서울시 소재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근무 경력 자 등 농업관련 경력을 가진 서울 시민이며,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agro.seoul.go.kr>에 신청 후 교육신청서 및 경력관련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8월 12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방문 및 우편접수, 팩스 (02-459-8744)와 E-mail(vvssdi@seoul.go.kr) 등 모두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를 20일 11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문의 : 02-459-8994

서울시, 전원생활교육 실시

서울시가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원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초 영농기술을 알려주는 '귀촌'전원생활교육'에 참여할 시민 230여명을 8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귀촌'전원생활교육'은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전원생활 성공사례 ▲텃밭채소가꾸기 ▲건강에 좋은 발작물 ▲특용작물 재배 ▲친환경농업의 이해와 활용 ▲가정 과수 가꾸기와 전원생활 현장 탐방 등으로 5일 과정(30시간)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기에 걸쳐 운영되며 8월 교육은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진행된다.

신청기간 : 8월 9일(금) 17시까지
신청자격 : 서울시민(전원생활 관심 시민)
모집인원 : 200명(1기 과정별 50명 기준)
교육비 : 13,950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선착순 모집)
에 약 : 센터 홈페이지 예약메뉴 이용
<http://agro.seoul.go.kr>
문의 : 02-459-6753~4

약초 가득한 식물원 어디 없을까?

국내 최대 약용식물원 탄생



국내 최초로 약초만으로 꾸며진 최대 규모의 식물원이 만들어졌다. 농촌진흥청은 순수 약초를 소재로 한 국립약용식물원을 충북 음성 내에 개원했다. 국립약용식물원은 우리나라 토종 약용작물 자원의 지속적 안전 확보와 식·의약 원료로 천연물연구의 소재가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용식물은 수많은 기능성 성분을 보유하고 있고 천연물 신물질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내외 선진 여러 나라에서 식물에서 유래한 신약, 건강식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천연물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국립약용식물원은 농촌진흥청 인산특작부 내 5ha 정도의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시각원, 청각원, 후각원, 미각원, 촉각원 등 5개의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총 880종이 재배되고 있다. ▲시각원에는 끈끈이대나물, 마타리, 부용, 산꼬리풀, 술래방이 등 ▲후각원에는 회향, 배초향, 개똥썩, 백리향, 운향초, 레몬밤 등 ▲미각원에는 갯기름나물, 두베부추, 우영, 참취, 치커리 등 ▲촉각원에는 가시오갈피, 팽의비름, 엉겅퀴, 속새, 애기기린초 등 ▲청각원에는 범부채, 창포, 등골나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꿀풀, 삼백초, 약모밀, 목향, 백리향을 볼 수 있는 미래원과, 수생식물로 꾸민 수생원이 있다. 식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고, 관람 시 전문가의 해설을 듣고 싶다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www.nihhs.go.kr에 사전신청 또는 전화예약(043-871-5577)하면 된다. 문의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박준근 043-871-5564

월간 <가든인> 정기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Gardenin 50% 할인권
월간<가든인> 정기구독 이벤트 [기간] 2013. 8. 1 (목) ~ 2013. 9. 30 (월)

가든 인 라이프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Gardenin August 2013

정성껏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이든지 적어 <가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채택된 기사의 주인공께는 가든인구 선물을 보내드리며, 그 결과는 다음 달 'Gardening Reader' 코너를 통해 발표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월간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voice!

▶ 여독사 면서를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6.6% OFF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사은품 포켓가든, 씨앗 (채소, 야생화)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 후 반드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문의 031-712-7009

16.6% OFF

Garden in
정기구독
1년(12권) 10만원(정가 12만원)

신청하시는 분

이름	성별 (남, 여)
이메일	직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 정확한 우편 발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여독사 면서를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독기간	2013년	월호부터 1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농협) 355-0023-7618-13	예금주 벽화수(주)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테르메덴 50% 할인권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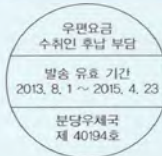
- 본 이용권은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사우나 이용 제외)
- 본 이용권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은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테르(주)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031)712-7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7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주소	직업
전화번호	나이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주소	직업
전화번호	나이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월간 Gardenin 8월호

발행 박화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합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경원 우리꽃 대표 / 이학박사

전문위원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사) 그린메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우철아 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스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편집장 소순복 goll108@hanmail.net

취재기자 정승환 saintlylove@hanmail.net

정지은 kkom8@hanmail.net

강은지 foxbeam@naver.com

객원기자 김지태 j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hotmail.com

마케팅 이정형 010-7393-6314

편집 김새봄 bomad@naver.com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도시농업, 주말농장, 가정원예용 종합관리제

전원생활+

식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전원생활” 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 화학농약이 아니므로 절대 농약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과 미네랄로 인축에 안전함
- 재배 관리기간 중 언제라도 식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음
- 수확직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수확량 증대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됨
- 뿌리 내림과 양수분 흡수에도 도움을 주고, 식물을 튼튼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줌

제품용량	물 20 당 사용약량	물 200 당 사용약량
50ml	5ml(약 한뚜껑)	50ml

■ 주말농장, 가정원에 및 화원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증상(참조용)



안전하다! 확실하다! 깨끗하다! 믿을 수 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제품 등재업체
KOREA BIO SEOUL
(주)코려바이오 서울

꽃은 비료

꽃이만 두면 알아서 영양분을 척척 주는 비료-꼬비

국내 및 국제특허출원번호:10-2011-0125839

작은 화분에서부터 과수, 조경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꼬비질을 주변에 꽃이두기만 하면 정기간동안 적절한 필요한 영양분을 사서히 제공받을 수 있어 영양적인 면에서나 사용적인 면에서 관리하고 획기적인 비료입니다

꼬비(가정원예용)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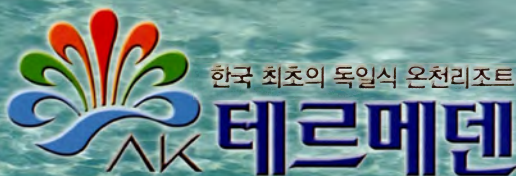


도시농업사업부

1670-5246 T. 02)6408-5246 F. 02)424-5246
M.P 010-8652-3000, 010-9565-1729, 010-4787-1292
www.KoreaBio.net www.KBio.net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 · 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 · 수도권의 유일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치료 후
회복과 건강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AK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031)645-2000 www.termeden.com

테르메덴 50% 할인
월간 가든인 109p를
확인하세요!

